한국전력공사 공인협약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사찰, 주택,식당,병원,목욕탕,숙박업소,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최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2-152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9월 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36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제 역할 못하는 신도회

98년 조계종사태는 재가불자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를 지켜본 재가불자들은 재가자들의 바른 신행과 조직화된 힘만이 이런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청정교단을 구현하고 불교의 개혁과 발전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지난 50년대 종단 정화운동 기간에 청정승단을 기원했던 재가불자들의 염원이 모아져 조계종 전국신도회가 결성되었지만, 기초단위인 사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는 승단과 사찰이 재가신도 교육과 조직에 대한 지도를 방치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재가불자들의 의식이 각성되지 못한 점에 기인했다.

이어 94년 조계종 개혁불사에 의해 창립된 중앙신도회는 종단개혁 세력의 한 주체였던 재가불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총무원의 주도하에 만들어져 신도조직운동의 현실적 역량부족을 드러냈다.

종단 외호하며 건전한 비판 필요

결국 중앙신도회는 2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신도회장과 총무원과의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신도회장의 사퇴로 귀결되어 4년간의 허송세월을 보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신도회는 종단을 외호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종단 내에서 종단 사업에 대한 신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도대중의 여론을 수렴해 종단정책에 반영시키는 중간자적 소임을 맡아야 한다.

종단의 제반사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도 잊지 말아야 하며, 포교와 사회참여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재가연대 정윤정 사무처장은 "명실상부한 신도대표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과 종단의 지도와 조화되는 자율성 확보, 민주적 운영의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통한 신도들의 의식과 신행혁신을 통한 조직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청소년 불자 늘고있다

조계종 포교원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

26·2%로 4년간 8% 증가
신행활동은 오히려 소극적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스님) 포교연구실이 일반 청소년들의 종교에 대한 의식과 종교분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청소년 종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의 청소년이 종교를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26.2%의 청소년이 불교를 신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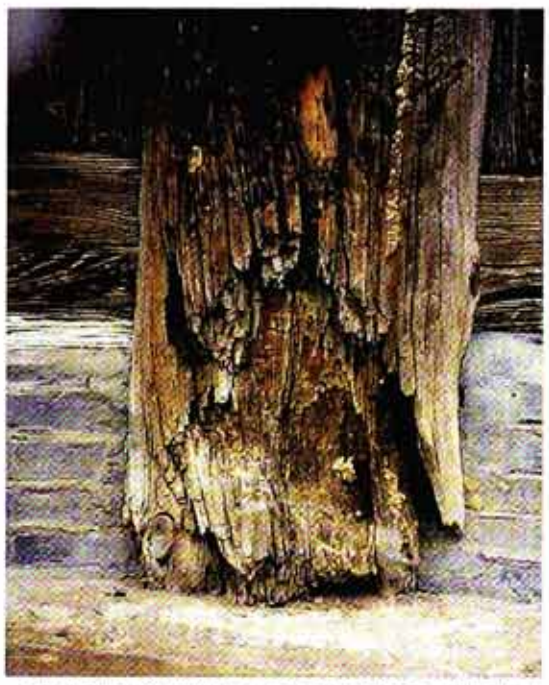
이같은 결과는 지난 95년 통계청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의 10대 청소년 종교인구 현황에 비해 불교를 신앙하는 청소년이 타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써, 지난 4년간 약 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개신교는 26.6%, 천주교 10.7%로 불교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5년 당시 10대(10세~19세) 청소년종교인구는 불교 18.5%, 개신교 22.9%, 천주교 7.38%였다. 이는 그동안 청소년 불교인구의 비율이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뒤져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부정적인 예상을 뒤엎고, 미래불교에 대한 희망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

이번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는 포교연구실이 지난 5월부터 7월 24일까지 광역 지자체별 인구비례에 따라 전국 128개 학교, 3,123명의 중고생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했다.(신뢰도 95%, 표본오차율+-1.75%)

그러나 이같은 청소년 불교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불자의 70.9%가 종교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기도·법회·경전 읽기·교리공부·포교활동·수행 등의 종교활동 참가 빈도는 개신교(81.4%) 천주교(72.8%)에 비해 불교(23.5%)가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님(목사, 신부님)과의 대화에 대한 물음에 불교는 45.6%가 전혀 상담하지 않았다고 답해 청소년불자와 스님과의 접촉이 다른 종교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포교연구실은 이 결과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11월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의식조사작업과 연구 분석을 통해 시대에 부응하는 포교종책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망산 통도사 약사전의 기둥. 흰개미가 갉아먹어 주춧돌과 기둥사이에 손이 들어갈 정도로 울퉉 패였다.

목조문화재 '흰개미 비상'

무위사·통도사등 20여사찰 피해 심각

문화재청 예산부족…조계종 속수무책

통도사 대웅전, 봉정사 극락전, 귀신사 대적광전, 은해사 거조암등 20개 사찰의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22점이 흰개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11면〉

임업연구원은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69개소중 33개소가 흰개미 피해를 당했으며, 사찰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의 목조건물 83개 조사에서도 사찰전각 22개소가 흰개미 피해를 본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장 일참스님은 "종단 성보보존위원들과 논의했으나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문화재청의 관리를 기대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올해 목조문화재 보수예산으로 9백98억원을 책정, 매년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5천억원의 보수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 따라서 목조문화재 개·보수시 사찰과 관할 관청에서는 보수비용을 낮추기 위해 사용목재의 흰개미 방제처리를 생략하는 등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 또 보수순서가 밀린 목재문화재의 경우 오랫동안 흰개미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보수예산을 확충하고 저렴한 방제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한 사찰 목조문화재의 기둥과 닉가래 속은 비어가고, 결국 목조문화재가 붕괴되는 인재(人災)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여의도 불교포교원 1일 개원

방송·정치·금융인 포교활성화 기대

여의도 지역의 포교거점 마련과 언론 정치 금융 등 여론주도층의 신행활동을 돕기 위해 조계종총무원이 마련한 여의도불교포교원(원장 원택 총무부장, 지도법사 종서, 서울 여의도동 26-5 대오빌딩 12층)이 9월 1일 삼존불 점안 및 봉불식을 갖고 개원한다.

여의도불교포교원은 여의도 지역 포교활성화를 위해 △선수행 지도 △전통문화(전통차, 전통향 등) 강좌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직장·직능단체의 법회 및 회의 공간으로 제공된다. 총무원은 특히 여의도불교포교원을 이용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의 전형을 보인다는 방침이다.

1백50평 규모에 법당과 회의실 차담실 사무실이 들어서는 여의도불교포교원의 개원에 따라 KBS MBC SBS 등 방송인불자회, 국회정각회 등 정당불자회, 연예 금융인 등 전문인 포교활성화와 지역불자들의 신행활성화가 기대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구산선문 참선 기행

9월 : 희양산문(봉암사)·대승사·김용사

9월에는 지증선사 도헌스님(824~882)에 의해 개창된 희양산문의 중심도량 봉암사를 찾아갑니다. 봉암사에서는 지증대사 부도(보물 제137호)와 삼층석탑(보물 제169호) 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천오백년 고찰 대승사에서는 화려한 육각탱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서동·성철·서암스님등 조계종 중정 세분을 배출한 김용사도 참배합니다.

특히 조계종 특별수도도량으로 지정된 봉암사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스님들의 수행성지로서 이번 기행은 봉암사를 참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봉암사 특별수행도량…일반에 비공개

◇출발: 9월 4일(토) 밤11시 ·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안내: 자광스님(김용사 주지)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특별수도도량 참배이오니 반바지 착용을 삼가해 주십시오.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 일양약품 · 대한불교제과인회

조계종 하안거 해제
79선원 2천수좌 정진

불기 2543년 하안거 해제를 맞아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 및 해인총림(해인사) 방장 법전스님, 조계총림(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덕숭총림(수덕사) 방장, 고불총림(백양사) 방장 서옹스님은 25일 해제법어를 발표, 지속적인 수행을 당부했다. 〈해제법어 3면〉

이번 하안거(음력 4. 15~7. 15)에는 4대 총림을 비롯 비구선원 42곳, 비구니선원 30곳, 해외의 선원 2곳 등 모두 79곳의 선원에서 2천여명의 수좌들이 안거에 들어 정진했다.

정성운 기자

"승가대학 교육환경 개선 절실"

조계종교육원 평가보고

조계종 사미 승가대학(강원)은 교육행정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이며, 사미니 승가대학은 재정적 후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조사되는 등 사미·사미니 승가대학간에 운영상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실시한 승가대학 종합평가 보고서를 통해 교직자의 교육열의는 대단히 높았으나, 승가대학이 소재한 사찰 소임자들의 의식이 종단과 교직자, 학인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교육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인의 경우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서의 강원의 위상과 역할 및 학인의 신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사미·사미니의제미시행 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종합평가에서는 동학사 승가대학(의제 시행), 직지사승가대학(학적부관리), 봉녕사승가대학(도서관시설), 운문사승가대학(컴퓨터 시설 및 교직자 채용), 해인사승가대학(평가제 시행) 등이 항목별 모범 승가대학으로 평가받았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통도사 신임주지에 대한 지지 성명서

고승대덕과 선지식들이 불조의 혜명을 잇고 1,600여년 동안 자장국통의 청정 계율 가풍의 법맥을 이어온 통도사가 조계종 종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무리들에 의해 말할 수 없는 광풍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금번 종단사태의 한 가운데 통도사가 자리하기까지 저희들의 미혹과 불찰을 스스로 책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은 화합과 공의로 총림을 온전히 이끌지 못한 것이 우리 모두의 불찰이고, 정화라는 명분으로 어른의 눈과 귀를 멀게 한 일부의 권속과 속된 무리들로부터 어른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또한 우리들의 불찰임을 아프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보살의 가피와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더 이상 통도 역사에 죄인이 되고 싶지 않고 역대 조사스님들과 선대 스님들의 이름 앞에 진정한 참회를 하기 위하여 뜻있는 스님들이 결사를 만들어 통도사 사태에 대한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통도사 사태수습을 위해 이미 임회와 신중총회에서 추천된 현문스님을 새로운 주지로 적극 지지하며, 통도사 본 말사(암) 주지를 비롯하여 전 대중이 뜻을 모아 본사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며 차후로는 다시금 이러한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는 통도사 대중이 되기를 부처님 전에 맹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를 천명하는 바입니다.

불기 2543년 8월 27일

◀ 우리의 결의 ▶

1. 우리는 신임 주지 현문스님을 전폭 지지한다.
2. 우리는 신임 주지스님을 중심으로 통도사의 수습과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통도사를 혼란케 하는 정화개혁회의 등 그 어떤 외부세력도 철저히 배격한다.
4. 우리는 월하 큰스님을 산중 최고의 어른으로서 여법히 모실 것을 다짐한다.

- 통도사 본말사(암) 대중 일동
- 통도사 신도회 일동
- 울산 불교신도회
- 울산 신행단체협의회
- 각말사 주지(무순)

중 진: 초우, 놀암, 혜남, 법산, 종범, 태봉, 종진, 노암, 현산
산내암자: 성파, 원명, 태응, 명정, 원산, 무애, 수안, 중선, 법선, 덕봉
본 사: 종회의원 영배, 박물관장 범하
울 산: 신흥사 산응, 문수사 태연, 정토사 덕진, 은월암 법일, 내원암 명현, 해남사 성본, 선암사 혜인, 남산사 지용, 법륜사 정진, 대안사 문성, 청룡암 종현, 석남사 영운, 화장사 재경, 보현사 동우, 옥천암 항조, 월봉사 상운, 낙서암 원우, 염불암 금파, 운흥사 재흥
양 산: 학림사 초현, 성전암 도승, 벽송암 지견, 보현정사 정수, 신흥사 영규, 양산포교당 혜철, 물금포교당 일진, 원효암 양현, 내원사 혜등, 미타암 혜오, 안적암 도훈
부 산: 원광사 지일, 보현사 지환, 부산포교원 심산, 금화사 대안, 극락선원 관행, 불광사 인산
의령/창녕: 수도암 상원, 관룡사 정안, 구고사 진범, 각묘암 우보, 삼성암 시명, 청련암 원진, 도성암 만천, 창녕포교당 청운, 법화사 법운
마산/창원: 정법사 지태, 구룡사 지형, 자비정사 진홍
밀 양: 석골사 선운, 무봉사 도문, 홍제사 법마, 보문사 신행, 만어사 만오
석 남 사: 법희, 불필, 법용, 현묵 외 일동
내 원 사: 송림, 상오, 진성, 혜남 외 일동
기 타: 마하사 재원, 영명사 주광, 내원사 정수, 대각사 정호, 해황사 주원
재 적 승: 지근, 명안, 도본, 법해, 본원, 준수, 회문 , 묘경, 묘행, 묘영, 시공, 신광, 혜우, 백운, 종선, 덕월, 영수, 명본, 도진, 영일, 영봉, 동진, 만성, 만송, 만행, 명덕, 도행, 도전, 무이, 문수, 해도, 법진, 보덕, 삼석, 선본, 시원, 일송, 정관, 정일, 정행, 지선, 진공, 진상, 진하, 춘우, 태진, 혜공, 혜도, 혜안, 효범, 효신, 혜정, 인오, 혜덕, 덕송, 정암, 수연, 진목, 동우, 병천, 도류, 진범, 지상, 무설, 영한, 만초, 진응.

사 설

불교TV 살릴 사람 없나

불교텔레비전이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는 과거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위태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못하느냐'의 근본적인 문제에 당면해 있는 것이다.

천만 불자들과, 불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불교텔레비전의 이런 위기상황에 애를 태우고 있으며, 또 뜻있는 많은 분들은 직접 이 위기를 해소하는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려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심이 되어야 할 조계종을 비롯한 교계의 종단들과, 관계 인사들은 손을 놓고 있는 듯하다는 것이 더욱 더 이 위기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들은 불교 텔레비전이 없어지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책임 회피를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를 좀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간 다음, 극적으로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위기를 해소하여 불교텔레비전의 운영권을 장악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천만 불자들이 있는데 누구라도 나서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나아가, 만에 하나라도 불교텔레비전이 없어져 버린다면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현대 사회는 첨단 영상매체의 시대이고 텔레비전은 바로 그 상징이다. 그토록 어렵게 마련한 영상포교의 교두보인 불교텔레비전을 여기서 포기한다면 불교 중흥, 불교 현대화의 과정은 완전히 뒷걸음을 치게 되고 마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 대중매체는 그만큼 오랜 세월의 노력과 투자 없이는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고급의 기술을 축적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기에 대중구제를 위한 천만 불자들의 염원으로 이루어진 불교텔레비전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교계 당사자들의 성급하고도 파행적인 운영이 오히려 이 어려움을 증폭시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동안 쌓아온 것마저 한꺼번에 날려 버리게 된 상황을 맞이하고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불교텔레비전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한다면 천만의 신도를 지녔다는 불교의 위상은 어찌되는가? 현대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는 종교라고 나설 수 없는 3류의 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또한 불교 현대화와 대중구제의 힘찬 발걸음에 성원을 보내던 뜻있는 불자들의 열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며, 다시 불교텔레비전이 서는 것은 까마득한 뒷날이 될 것이다.

이 땅의 많은 불자들이 아직 대중매체를 통한 포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불교텔레비전이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자들의 인식을 끌어올리고 힘을 모아야 할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불교텔레비전이 존폐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는, 그 해결의 역할을 맡은 관계자들이 불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해결의 구심점으로 바로 서는 것이 우선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리고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모든 교계의 지도자들이 불교텔레비전을 바로 세우는데 발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조계종 청사재원 '어디서' 공사중 이주대책 '어디로'

청사건립위 7일 발족 계획발표

조계종 총무원청사 신축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도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 1백80억원에 이르는 재원마련 및 공사기간 중 이주 대책을 제시해 종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청사 신축에 280억원이 필요하나 적립된 청사신축 특별회계는 35억원에 불과하다. 또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공사비로 1백76억원(시공사인 풍림은 350억원 주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별회계 이외의 청사 신축비용의 조달 방법은 밝혀진 것이 없다.

현 청사 철거 후 총무원을 조계사 제2문화교육관으로 이주키로 함에 따라 지난 해 조계종사태 후 열린강연회, 각종 교리·문화 강좌 등을 개설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조계사의 계획도 강의실 부족으로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무원과 교육원 종회만 공사기간 동안 조계사 인근으로 이전하거나, 중앙승가대학을 김포학사로 이전하면 안암동 학사를 임시총무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종회 건물과 조계사 경내에 입주해 있는 선우도량 대학생불교연합 재가연대 불교귀농운동본부 등 20여개의 불교단체들도 새 사무실을 찾아나서야 한다. 상근자 보수 지급에도 힘겨워하는 불교단체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고산 총무원장은 당초 4층이었던 청사를 5층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4천3백여평 규모의 청사에는 총무원을 비롯한 3원과 종회, 불교중앙박물관이 입주하게 된다. 박물관 입주에 대해 업무공간과 문화공간이 혼합되는 부조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관도 나오고 있다.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4천3백평 규모의 총무원청사 조감도.

한 종회의원은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론수렴의 결여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종도들의 참여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총무원은 7일 청사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원택 총무부장) 출범식을 갖고, 이때 재원 마련 방안 및 이전 대책 등을 밝힐 예정이다. 청사 건립추진위는 원로의원과 교구본사주지, 종회의원 등 중진스님과 중앙신도회장 및 교구신도회장, 사회각계 지도적 불자 등 2백여명으로 구성하고, 총무원부·실장이 집행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에 앞서 총무원은 2일과 7일 원로의원 간담회와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어 청사 신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여와 후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는 내년 4월 토목공사에 착수, 2002년 8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의제시행령-승가대학령 '통과'

조계종, 의제 불시행자 징계방안 확정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은 8월24일 종무회의를 열고 '사미·사미니의제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과 '승가대학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미·사미니의제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98년 2월28일 제정)은 '식차마나니 의제는 사미·사미니의제를 준용한다'는 조항과, '사미·사미니식차마나니가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의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종법령에 따른 행정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승가대학령 개정안'(96년 7월2일 제정)은 제5조 1항 승가대학 지정요건을 기존의 '학년 정원 7인 이상, 총학인 정원 30인 이상 80인 이하'에서 '총학인 정원 10인 이상 80인 이하'로 개정했다. 또 제39조 1항 학인의 전학 요건을 기존의 '소속된 승가대학 학장의 추천과 당해 승가대학 교무회의의 의결을 통한 경우에 전학할 수 있다'에 '교육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전학할 수 있다'는 사항을 추가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쌍계사 주지후보에 통광스님 선출



조계종 제13교구 쌍계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법광)는 26일 산중총회를 열어 단독입후보한 통광스님(쌍계사 승가대학 강주)을 쌍계사 주지후보로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총무원에 주지임명을 품신키로 했다. 통광스님은 여환스님을 은사로 쌍계사에서 출가, 59년 명허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63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 10하안거를 성만했다. 칠불사 주지를 역임하며 복원불사를 이뤄냈다. 정성운 기자

통도사 주지직대에 현문스님 임명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8월 27일 통도사 주지직무대리에 현문스님을 임명했다.

임명장을 받은 후 현문스님은 기자들과 만나 "대중공의를 받들어 통도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문스님은 월하스님을 은사로 통도사에서 출가해 70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승가대학 대교과 졸업 후 통도사 총무국장, 표충사 주지, 조계종 중앙선관위원을 역임했다.

정성운 기자

"신도화합통해 운영정상화 최선"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새회장



"우선 신도회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들의 고언을 기꺼이 받아들여 신도회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

8월20일 조계사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신도회 대의원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선출된 백창기(67·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씨는 "거듭된 신도회의 파행을 마무리 짓고 조직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재정자립의 기초를 다져 종단 운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총무원과는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해 불교 외호세력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백 회장은 "그러나 옳고 그른 일은 분명히 하고 할 말은 하는 신도회를 만들어 스스로 자율성을 키워가는 신도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한 신도단체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재정자립 기반의 제도적 확립이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밝혔다. 또 내부 조직정비를 마친 후 전국신도회와의 통합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추었다. 서로가 양보하고 화합한다면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백 회장은 △교구별 지역별 지도자 수련회 개최 △통일·환경·인권·법률위원회 및 자문기구 구성 △신도 및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세부적인 공약을 차질없이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재경 기자

"새회장에 힘 모아주자" 여론

중앙신도회의 앞날

백창기 중앙신도회 회장은 일부 대의원들이 제기한 불공정 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온후함과 포용력을 겸비한 성품으로 대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있다. 대의원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80명(투표자 170명 중)의 대의원들도 이미 상당수 백 회장에게 힘을 모아주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부 대의원들이 당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회장 임기가 2년(연임가능)으로 짧아 소송기간이 오히려 길 가능성이 큰데다, 1년6개월여간 회장 공석으로 표류해 온 중앙신도회가 빠른 시일내 정상화돼야 한다는 회원들의 위기의식도 신임회장에 힘을 몰아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백 회장은 서울 인사동에 소재한 신도회 사무실에 3개월간 상근하기로 방침을 정할 정도로 중앙신도회의 정상화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다. '총무원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를 주장하며 반대입장에 섰던 대의원들을 대거 부회장단(50명 내외)으로 영입하는 등 화합과 단결에도 고심하고 있다.

이미 사무처장에 최연(前 대불련총동문회 사무총장), 교화부장에 궁인창(유임), 기획실장 겸 총무부장에 임동현(前 조계종포교사단 국장)씨 등 실무진을 내정하는 등 사무처 강화에도 의욕을 쏟고 있어 모처럼 중앙신도회에 활기가 돌고 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메아리

윤장대(보물 제684호)에 願(원)을 실어 돌려라 ~ 이루어지리라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법보대찰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윤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지 청 안 합장

• 입재 : 1999(불기2543)년 10월 17일(음 9월 9일)토요일 오전 10시 • 회향 : 1999(불기2543)년 10월 26일(음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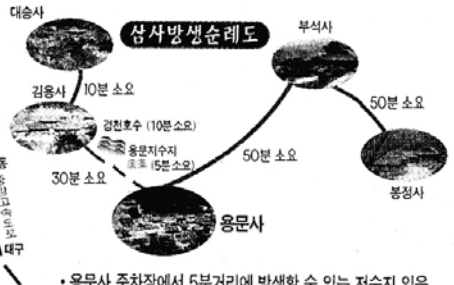
용문사는 움직이는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9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보물 684호)

용문사 가는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40분간격)
3시간 10분 소요 ⇒ 예천에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비행기 : (서울 ⇒ 예천)대한항공 오전 8시 45분 오후 5시
아시아나 오후 4시
(예천 ⇒ 서울)대한항공 오전 10시 10분 오후 6시 30분
아시아나 오후 5시 20분





• 용문사 주차장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 등(1인1등) 10,000원 • 영가 위패(1위당) 10,000원
• 동참 온라인 구좌 농 협 : 747028-51-009313 예금주 : 용 문 사
우 체 국 : 702191-0016235
• 대장경을 이고 법성도를 돌면서 윤장대를 윤전하실 분만 동참금 1만원을 준비하십시오.
• 당일은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대찰 소백산 용 문 사

문 의 : (0584)655-8695(종무소), 655-1010, 8405

청소년불자 73% "업보 믿는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의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는 청소년 불자화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청소년불자의 신행활동이 타종교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포교 거점사찰 또는 거점지역을 지정해 청소년 포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청소년 포교활성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신행활동이 거의 없는 청소년들의 신행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파라미타 청소년 활동과 각종 신행프로그램의 거발을 앞당겨야 한다.

또한 불교적 가치를 내재한 청소년 교육용 교재의 개발과 활용, 보급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의 하나다.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불교의 지역적 편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8.9%) 광주(11.7%) 인천(13.6%) 강원(17.3%) 서울(19.2%) 지역이 전통적 불교 강세 지역인 울산(58.5%) 제주(44.4%) 부산(42.6%) 경남(38.0%) 대전(35.4%) 등의 청소년 불교 인구 비율에 비해 매우 낮았다.

이는 95년 통계청 조사와 비슷한 양상이다. 이같은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지역의 청소년포교, 특히 수도권의 청소년 포교에 종단적 힘을 투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현재 신앙하는 이유에 대해 53.4%의 청소년불자가 가족이 불교를 믿고 있어서 불교를 종교로 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천주교는 33.1%, 개신교는 14.0%만이 가족의 종교를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교의 경우 부모의 권유와 스스로 판단해 선택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신행기간에 대한 설문에서는 청소년불자의 39.8%가 10년 이상의 신행경력을 갖고 있으며, 5년 이상의 신행경력을 갖고 있는 청소년불자는 21.1%였다.

조계종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 내용과 의미

개신교 26.6% - 불교 26.2% - 천주교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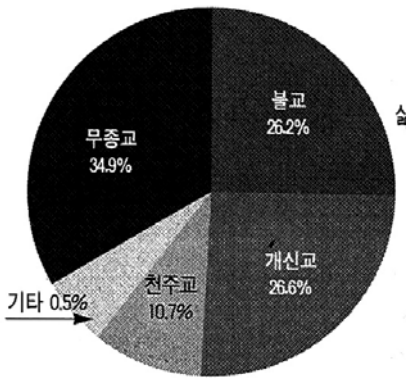
가족영향 불교선택…지역편중 심해

"정신적 안정위해 불교믿는다"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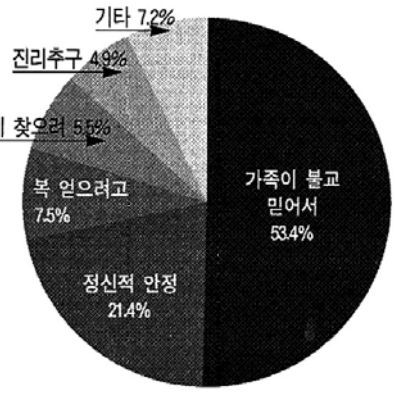
◇지역별 청소년 종교비율(%)

	거주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불교	19.2	42.6	13.6	33.7	11.7	35.4	58.5	22.1	17.3	27.4	24.0	8.9	28.0	31.8	38.0	44.6	26.2
개신교	33.7	14.4	34.6	15.8	32.0	12.2	7.7	33.5	24.0	33.9	20.8	36.3	35.5	21.6	10.5	8.9	26.6
천주교	12.5	8.8	16.0	10.9	12.6	12.2	4.6	12.1	9.6	5.6	12.5	7.4	8.1	10.2	6.5	12.5	10.6
무종교	32.9	32.4	35.8	39.0	35.9	37.8	26.2	31.5	49.0	33.1	42.7	41.5	28.0	35.2	43.0	33.9	34.9

◇청소년의 종교비율



◇불교신앙 이유



청소년불자들의 나이가 아직 10대임을 감안할 때 어린이포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어린이포교 활성화없이 청소년포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종교를 믿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정신적 안정을 위해 믿는다(22.2%)고 답했으며, 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신과 같은 절대자에 의존하는 게 싫어서(36.9%)라고 답했다.

청소년들은 종교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청소년 교화 및 선도(47.7%)를 1순위로 꼽아 청소년 포교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이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교단체에 대한 물음에 무종교 청소년 가운데 15.2%가 불교를, 14.8%가 천주교를, 6.7%%가 개신교를 꼽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불교에 호감을 갖고 있거나 잠재적 불자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종교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천주교(62.8%), 개신교(55.2%), 불교(45.8%)의 순으로 자기종교가 가장 이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같은 현상은 타종교에 비해 청소년불자의 자부심이 저조함을 보여준다.

이는 그동안 불교가 대사회적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지난 해의 조계종사태 등 불교계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크다는 지적이다.

사찰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7.9%의 청소년들이 사찰을 경건하고 엄숙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아늑하고 편안하다(24.4%), 답답하고 무섭다(12.2%), 아무런 느낌도 없다(11.2%)고 답했다.

종교적 명제에 대한 호응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73.4%가 업보를 믿는다고 답했으며, 윤회에 대해서도 48.3%가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종말론에 대해서는 20.3%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해, 불교적 명제에 대한 동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종 여부와 개종 전의 종교에 관한 질문에서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개신교신앙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불교의 경우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개종한 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는 청소년이라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방식의 조사를 펼쳐, 앞으로 청소년 포교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됨과 동시에 21세기 청소년 포교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기묘년 하안거 해제법어

"산하가 다 내집인데 어디가서 내집 찾으리"

혜암스님(조계종 종정)



頭上帽子重七斤 脚下地獄苦萬端
穌迦彌陀飮砒霜 迦葉阿難喫火藥
包塞虛空絶影形 能含萬象體常淸
目前眞景誰能量 雲捲靑天秋月明
大地山河是我家 更於何處覓鄕家
見山忘道狂迷客 終日行行不到家
會麈
一二三四五六七 九秋黃菊滿空飛
喝 一喝

머리 위의 모자는 무게가 일곱근이요
발 밑의 지옥은 괴로움이 끝 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비상을 마시고 가섭과 아난은 화약을 먹는다.
허공을 꽉 싸안고 그림자와 형체를 뛰어난 온갖 형상 머금었어도 몸은 항상 깨끗하다.
눈 앞의 참 경계를 누가 능히 헤아리리.
구름 걷힌 맑은 하늘에 가을달이 밝아라
대지산하가 바로 다 내 집인데 새삼 어디 가서 고향 내 집 찾으리.
산을 보다가 길을 잃고 미쳐 헤매는 사람 한 종일 가도가도 집에는 못 가리라.
알겠는가?
일 이 삼 사 오 육 칠이여 가을의 단풍은 하늘 가득 날으네
아악-

"치우침 가운데 바름이요 바른 가운데 치우침"

서옹스님(고불총림 방장)



盤走珠珠走盤 偏中正正中偏
羚羊掛角無蹤迹 獵犬過林空跋蹄
喝

소반에서 구슬을 굴리고
구슬이 소반에서 소반에서 구르니
치우침 가운데 바름이요
바른 가운데 치우침이로다.
산양이 뿔을 거니 자취가 없거늘
사냥개는 숲을 돌며 공연히 서성대도다.
악-

"청천백운 오고가지만 운수납승 자취 없도다"

원담스님(덕숭총림 방장)



靑天白雲自去來 雲水衲僧本無跡
白雲本無住根地 衲僧本無功如然

청천백운이 스스로 오고 가지만
운수납승은 본래 자취가 없도다.
백운은 본래 따를 근지가 없고
납승도 본래 없어서 또한 그러하도다.

"죽었던 사람 다시 살아나니 새벽에 가라하네"

법전스님(해인총림 방장)



大死底人還却活 不許夜行投明到
陳州人出許州門 翁翁八十重年少

크게 죽었던 사람 다시 살아나니
밤에 다니지 말고 새벽에 가라고 하네.
진주 땅 사람이 허주 땅에서 나오니
늙은이 팔십세에 다시 소년이 되었네.

"새울음과 벌레소리 다 마음 전하는 비결이요"

보성스님(조계총림 방장)



解制結制又解制 雪上加霜又加雪
日到天心照大地 雪消霜盡百草春
해제하고 결제하고 또 해제하니
눈 위에 서리를 덮고 서리 위에 눈을 덮음이로다.
해가 중천에 떠서 대지를 비추니
눈이 사라지고 서리는 녹아서 모든 풀이 봄빛을 띠었구나.

鳥語聲聲總是傳心之訣
花映草色 無非見道之文
새울음과 벌레소리는 다 마음을 전하는 비결이요
꽃색깔과 풀빛은 도를 보는 글 아님이 없도다

無邊風月眼中眼 不盡乾坤燈外燈
柳暗花明千萬戶 敲門處處有人應
가없는 풍월이 눈 가운데 눈이요
다함 없는 하늘땅은 등 밖에 등이라
버들은 어둡고 꽃은 밝은 만호장안에 어느 집 문을 두드린들 주인 있어 대답하지 않으리

佛祖不是妄語人 不信衆生誠難救
經舟任風歸去處 喜逸古人說往事
부처님과 조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중생은 구제하기 어렵네
가벼운 배를 바람에 맡겨 돌아간 곳에서
즐거이 옛 친구를 만나 지난 일 이야기하리.

佛祖不曾會 分明百草頭
부처와 조사도 일찍이 알지도 못했지만
모든 풀 끝에 분명히 보이네

목어

청문회를 보고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무능 탓인지 진실을 은폐하려는 검은 손이 방해한 탓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급 옷 로비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 역시 진실은 밝히지 못한 채 의혹만 더욱 증폭시키고 막을 내렸다.

검찰의 수사발표가 미덥지 않던 터라 국회 청문회에서만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애초부터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같은 것은 없었던 여권에서는 청문회가 무사히 끝나 다행이라고 내심으로 좋아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경찰도 검찰도 권력에 아부하느라 진실을 은폐하거나 호도하기 일쑤여서 신뢰받지 못하는 판에 국회에서조차 진실을 밝혀 낼 수 없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어둡다 못해 캄캄할 뿐이다.

진실이 은폐된 채 청문회가 무사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왜 자기가 받은 훈장마저 국가에 반납하고 차라리 외국으로 이민 가겠다는 말이 나오는지 말이다. 자신의 나라에 대하여 기대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적 불행이요 비극이다. 이 나라 이 정부에 얼마나 실망했으면 국가에서 준 훈장이 한낱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현정부도 불행의 씨앗을 잉태해 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국회에서조차 밝히지 못한채 지나치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업(共業)이고 보면 그 업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가 자못 걱정스럽다.

청문회에 불려나온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고 있던 간에 우리 불자 역시 지금 그들과 이 땅에 함께 살아가면서 역사를 만들고 업을 함께 짓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불교인들도 오늘의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잡보장경〉에 "어리석은 자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믿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곳을 살핀다"고 하였으니 진실이 은폐되는 시대일수록 불자들의 밝은 지혜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성 열 (강남포교원장 · 본지 논설위원)

불국정토 구현 기원

제2회 관정수기 대법회

관정경에 관정이란 왕이 즉위하거나 전법(傳法) 수계(受戒) 할 때 또는 수도자(修道者)가 일정한 계위(階位)에 오를 때 사해(동, 서, 남, 북의 바다)의 물을 길어다 수계자의 정수리에 부어 계위를 인증하여 주는 불사입니다.

관정수기를 받는 사람은 미래에 전륜성왕이나 대아라한 대보살 종래에는 부처를 이룰 큰 인연 공덕을 짓게 됨으로 현세에는 모든 고난과 질병에서 벗어나며, 복덕이 구족하여 빈곤하지 아니하며, 뜻하고 구하는 모든 일들을 원만히 성취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주 희유하고 성스러운 불사이며, 일생중 단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라 모든 불자는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대덕문화체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소 1999년 9월7일(음7월28일) 11시
주최 제2회 관정수기 대법회추진위원회

■후원 :
한국불교중단협의회 · 대한불교 중정협의회 · 불교TV · 청주불교방송국
현대불교신문사 · 한국불교노인복지회 · 삼론법보신문사

⊙ 제 2회 관정수기 대법회 심원

대 법 주 이 대 산 대종사 (대한불교 종정 협의회장)
관정증사 전석봉 대화상 진지마 대화상 신각화 대화상 박팔봉 대화상 김혜승 대화상 이신수 대화상 사혜광 대화상
마정증사 김법진 대화상 최대운 대화상 류정봉 대화상 김법광 대화상 노우담 대화상 이만혜 대화상 이정수 대화상
연비법사 김오봉 대화상 임인봉 대화상 조법진 대화상 이종덕 대화상 최상순 대화상 서혜공 대화상 이용석 대화상

⊙ 고문 · 자문위원

고 문 강영순(향운) 이의동(원인) 배사옥(석왕) 도월천(대월) 김진오(해운) 윤원주(진여성) 방우순(대명화) 송동수(마명) 박현주(도안) 이연옥(대도심) 김점주(법장화) 이기남(설운) 신청월(청월) 강숙조(지화) 정성기(정각)
자문위원 장정배(혜일) 최천안(보현) 이분임(지인) 이지형(동림) 이종진(대원심) 성영옥(일심화) 구순옥(보덕행) 류기복(원화) 김기열(공덕심) 신순자(마하) 한상옥(선혜) 박순애(대정심) 김선조(법화) 김영숙(법륜화) 강선구(어옥순) 박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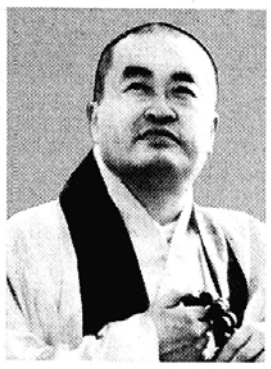
⊙ 대회본부

대 회 장 이 혜 공 스님 (혜명정사 회주)
부대회장 채 법 원 스님 (원진암 주지)

봉행위원회 위원장 김진봉 스님 (연화원 주지) / 부위원장 박상준 스님 (천보사 주지)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택봉 스님 (지장암 주지) / 부위원장 정법작 스님 (관음사 회주)
준비위원회 위원장 배향담 스님 (동림사 주지) / 부위원장 주도경 스님 (무량사 주지)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갑 스님 (보림사 주지) / 부위원장 조지경 스님 (천용사 주지)
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청봉 스님 (옥예원 원장) / 부위원장 김지겸 스님 (청국사 주지)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이해암 스님 (무학사 주지) / 부위원장 허지호 스님 (태고정사주지)
문화홍보위원회 위원장 이자연 스님 (연화사 주지) / 부위원장 구본암 스님 (불도사 주지)
법요위원회 위원장 윤지운 스님 (우암정사 법사) / 부위원장 서혜공 스님 (화엄선원 원장)
동원위원회 위원장 이지해 스님 (용화선원 원장) / 부위원장 유지도 스님 (보안사 주지)
호법위원회 위원장 이지광 스님 (삼룡사 주지) / 부위원장 류의완 스님 (성불사 주지)
예경위원회 위원장 이지연 스님 (청용사주지) / 부위원장 장묘안 스님 (보현사 주지)
지도위원회 위원장 정대안 스님 (안덕사 주지) / 부위원장 김달봉 스님 (동자암 주지)

"고국품서 여생 편히 지냈으면…"

김희로씨 석방주역 삼중스님



"김희로씨의 석방을 위해 끊임없이 마음을 모아준 모든 분들의 정성이 이룬 결실입니다. 그가 석방되어 조국의 품에서 편히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재일한국인 차별에 분노해 일본인 야쿠자 2명을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31년간 복역하고 7일 석방되는 김희로씨의 후견인인 삼중스님(자비사 주지)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석방되는 날 까지 일본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또 "작년에 세상을 떠난 김씨의 노모가 함께 이 석방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80년부터 20년 가까이 서명과 석방탄원서 제출, 편지교환, 노모 방문 등 김씨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쳐온 삼중스님은 이제 석방이후 김씨의 한국 생활도 아낌없이 후원할 계획이다.

삼중스님은 "모든 여생을 부처님과 자신만을 믿고 살겠다는 김씨의 마음을 헤아려 최선을 다해 후원해 주고 싶다"며 김희로씨의 출감을 맞기 위해 1일 다시 일본으로 출국했다.

7일 석방 후 곧바로 부산으로와 조국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김씨를 위해 "9일 부산 자비사에서 김씨와 함께 그의 어머니 박득숙씨의 100재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100재는 자유의 몸이 된 김씨가 죽음을 넘어 어머니와 상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삼중스님은 "김희로씨 석방이 개인의 석방차원을 넘어 일본에서 차별과 설움속에서 살았던 재일교포들의 아픔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석방이 한일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희망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국방부 호국원광사, 효자 · 열녀 시상



◇유맹님보살이 장한며느리상을 받고 있다.

장한며느리상 유맹님씨

국방부 호국원광사(주지법사 이협우)는 8월22일 불교 5대 명절의 하나인 우란분절(음력 7월15일)과 효행천도주간을 맞아 '효자 효부 열녀 열부 시상식'을 거행했다.

부모에 대한 효행과 배우자에 대한 현신으로 불자들의 귀감이 된 선남자 선여인을 포상함으로써 점차 단절되어 가는 민족전통 사상과 예절을 불교적 차원에서 선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장한 며느리상'의 유맹님(56) 보살 등 10명의 호국원광사 신도가 상패와 기념반지를 수상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90세의 시어머니를 기쁜 마음으로 극진히 봉양해 온 유맹님보살은 "자식된 도리를 한 것 뿐인데 이런 상을 받다니 부끄럽다"면서 "시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님처럼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한 아내상'을 받은 정연이(66) 보살은 13년간 병석에 누운 남편을 간병했으며, 홍복임(68) 박계숙(65) 김증자(60) 박귀순(68) 맹부섭(60) 류계화(77) 보살은 20~40대 때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와 손자들을 뒷바라지 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 주시후(47) 이재한(45) 거사는 암으로 투병중인 부인들을 수년간 극진히 보살펴 '장한 남편상'을 받았다.

김재경 기자

"소외청소년 프로그램 강화"

목동 청소년회관 새관장 경륜스님



"사회와 학교에서 조차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생각입니다."

8월 21일 목동청소년수련관 제5대 관장에 취임한 경륜스님(석불사 총무)의 말이다.

11년 전 목동지역 청소년의 복지와 포교를 위해 문을 연 목동청소년수련관은 하루 1800~2000명의 청소년이 내방하는 연이용 인원 60만명 규모의 매머드급 청소년시설.

청소년 여가 문화활동은 물론, 청소년들의 건강과 고민 상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지역 청소년들의 보금자리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시설미비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컴퓨터 사물놀이 등의 교양문화 특활프로그램을 인근 중고등학교와 연계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목동청소년 수련관에서 실무를 익혀온 스님은 "이같은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포교를 펼칠 계획"이라면서 "前 관장스님들이 전개했던 사업을 이어받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교차로

日 광명회 초청받아 강연



보광 동국대 대외협력처장 스님은 8월27일 일본 간사이 공항 호텔에서 (재)광명수양회가 주최한 근세 일본의 대표적 염불실천가 변영성자(弁榮聖者) 80주기기념문화강연회에서 '현대사회의 염불행자'를 주제로 발표했다.

군승 하계수련회



이희용 육해공군군승단장은 14~16일 제주도 이시돌 수련관에서 '21세기-새로운 천년, 신세대를 위한 포교이념 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실천 수행'이란 주제로 군승 122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정련스님 초청 간담회



성광 육해공군예비역군법사단 단장은 8일 오후7시 서울 화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02)737-7277

명예정치학 박사학위 받아



권노갑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은 8월27일 동국대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동창회 조직 활성화 기여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념사 요사채 상량식



지광 능인선원장 스님은 16일 오후1시 삼각산 국념사 산신대제 및 요사채 상량식을 거행한다.

동국대 사회교육원서 특강



목정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은 1일 동국대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거행되는 동국대 사회교육원 입학식에서 '자아와 여래장'을 주제로 특강한다.

반야사 종합수련센터 기공



성제 충북 영동 반야사 주지는 5일 오전10시 석굴암주지 종상스님을 증명법사로 초청 한가운데 종합수련센터인 백화루 기공식을 거행한다. (0414)742-7722

생명나눔회 하루찻집 열어



김성호 생명나눔실천회후원회장(불교미술전시관장)은 7일 오전10~오후7시 서울 조계사 건너편 샘터다방에서 인간방생을 위한 하루찻집을 연다.

송석구 동대총장 평통 종교위원장에

법혜스님은 간사맡아



◇송석구총장



◇법혜스님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8월23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분과위원장에 임명됐다. 또 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장 스님은 중앙상임위원 겸 종교분과위 간사에 임명됐다.

종교분과위 위원은 6대종교 지도자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직자가 아닌 재가 신도가 종교분과위원장에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석구 총장은 "범 종교간 공통과제와 각 종단별 개별과제를 검토하겠다. 또 범종교간 협의회를 구성해 경쟁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종교의 역할을 구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론 밝으면 수행도 쉬워요"

동국대 수석졸업 원과스님



국내 최초로 7학기 만에 3개 전공을 이수, 3개의 학위를 받으며 수석으로 졸업한 학인스님이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원과스님(96학번). 스님은 선학 외에 불교학과 인도철학을 복수전공해 8월27일 동국대 9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수석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라는 원과스님은 "불교가 신앙적으로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학문적인 체계를 갖고 싶었고 편견을 버리기 위해 3가지 학문을 같이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스님은 가을학기부터 대학원에서 불교논리학을 전공할 계획이다.

27일 동대 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300명, 석사 337명, 박사 54명, 최고 경영자 과정 128명이 학위를 받았다.

강지연 기자



해제… 만행

Focus

"호방하게 읊조리며 푸른 산기운 속을 내려오나니/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마음에 두고 싶지 않네/ 누군가 하산(下山)의 뜻 묻는다면 / 누더기 한 벌과 지팡이를 들어 보이리."

((감산운와기담(憨山雲臥紀談))중의 출산음(出山吟))

자신과의 싸움에서 사경(死境)을 넘은 다음 산(자기 자신)에서 내려오는 이의 넉넉한 심정을 읊은 선시다. 지난 5월29일 결제에 들어간 전국 77개 선원 하안거 대중 1천6백40명(전국선원수좌회 집계)의 수좌스님들이 8월 25일 용맹정진을 마치고 해제했다.

사진은 인천 용화선원에서 정진한 용주사, 위봉사, 운문사 중앙선원, 회룡사 비구·비구니스님들이 하산하는 모습. 이날 용화선원 조실 송담스님은 "안거가 끝났더라도 최상승의 수행법인 화두참구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글=김재경 · 사진=고영배 기자

■ '자랑스런 지하철인' 대상받은 김용환 거사

"부처님 가르침대로 일했어요"



독실한 불자로 서울지하철법우회 활동에 앞장서 온 서울지하철공사 신정차량사무소의 김용환씨(55)가 8월31일 '자랑스런 지하철인'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런 지하철인'상은 1만1천여 명의 서울지하철공사 직원 중에 업무 수행능력, 대인관계, 성실성, 도덕성, 청렴도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우수사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지하철공사 종사자들에게는 최고의 상으로 올해가 3번째.

김용환씨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일해 왔을 뿐"이라며 "개인의 기쁨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땀흘려 일하는 정비차량 사무소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1974년 공채 1기로 철도청에 입사해 네식구 살아가기에 빠듯한 박봉에도 '서울시민 발, 서울시민의 봉사자'라는 사명감속에서 지난 25년동안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왔다. 김용환씨는 "지하철 차량 한량에 7만8천6백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차량과 전동차를 정비하는 데는 숙련된 기술과 투철한 직업관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기술자를 우대해 주는 사회적인 풍토가 정착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했다.

김용환씨는 8월31일 표창장과 기념패 수상과 함께 부정비장에서 과장으로 1계급 특진했다.

도필선 기자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통신 · 출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2천여동문 졸업 · 40기생 모집중>

1. 강의시간 9월 1일 입학 · 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2. 교육과목 20개 과목외 범패의식 (법현스님) 특강(동 · 하계 스쿨링때 범패의식 교육)

1학년	1학기 (16주)	◇불교경전의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불교상용 의식 ◇유식사상
	2학기 (12주)	◇화엄사상 ◇구사론(아비달마)	◇중국불교의 이해 ◇불교상용의식 실습 ◇비교종교
2학년	1학기 (18주)	◇부파불교의 이해 ◇대승기신론	◇밀교학의 이해 ◇우리말 불교의식 ◇반야사상
	2학기 (12주)	◇한국불교의 이해 ◇선사상	◇대승불교의 이해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천태사상

3. 교 수 진 권탄준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김종명박사 김호기박사, 권오성법사, 법현스님(동국대), 정성준박사, 김은희박사

초빙강사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4. 모집 및 전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불교학 출강 00명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서류전형
●불교학 통신 00명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주민등록등본1부 (사진 3매)	합격자 개별통지

5. 원서교부 및 접수 8월 28일까지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능

원서교부 ▶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 대구 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 원주 법웅사 (0371)742-2701
▶ 제천 묘장암 (0443)653-3249 ▶ 진해 삼밀사 (0553-542-6531
▶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 하동 도림사거사림 (0595)882-4585

6. 특전사항 ◇ 법사고시 경유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탐방 대한불과회



◇대한불과회는 6월3일 창립 5주년을 맞아 대전 용문사에서 기념법회 겸 전국모임을 가졌다.

연꽃케이크 만들며 전법발원

94년 제과인 10명이 창립 교도소·복지시설 정기위문

반야심경이나 무상게를 데코레이션한 생크림케이크, 연꽃이 활짝 핀 연꽃케이크 등 제과제빵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포교일선에 나선 모임이 있다. 대한불과회(회장 정관수)가 그주인공.

94년 5월 창립 당시 '우리가 정말 해 낼 수 있을까'라는 10여명 회원들의 반신반의 속에 발족된 대한불과회는 5년만에 제과협회에서 인정받는 제과인들의 모임으로 자리잡았다. 처음엔 40명의 발기인이 대한불과회 창립을 준비했으나 타종교인들의 방해와 질타로 동참하겠다는 인원이 10여명 안팎으로 줄면서 출범식 자체가 무산될 뻔 했다. 대한불과회 정관수 회장은 "속이 시커멓게 타 물 한모금 넘길 수 없을 것 같은 심정이었다"며 그때의 상황을 회상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회원간 돈독한 결속력을 키울 수 있었다는 대한불과회는 창립 이후 줄곧 불교를 소재로 한 제품을 연구, 개발해 시중에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연꽃케이크을 비롯해 산채나물을 이용한 산나물밥 고로케, 산나물밥 브레드, 연꽃화과자, 연잎스틱, 연근과자 등 10여 작품. 불경의 한 구절을 실크스크린기법을 활용해 케이크 위에 데코레이션한 반야심경 케이크, 무상게 케이크은 제과업계는 물론 불교계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대한불과회는 제품의 기술을 공유하고 전수하기 위해 매년 세미나를 열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

대한불과회의 선행 또한 제과업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두달에 한번(짝수달) 넷째주 수요일이면 정성스럽게 빵과 음료, 과일 등을 장만해 천안교도소를, 찾고 있으며, 양로원, 고아원, 무의탁노인, 복지원, 소년소녀가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관수 회장은 "불과회의 창립은 포교의 방편이 되는 동시에 제과업계의 발전을 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대한불과회는 9월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천안교도소에 제과제빵과를 개설해 재소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직장법회 경전읽기로 가을맞이

무량회·정불회등 10여곳 강좌 열어
금강경·천수경·법화경 윤독 '인기'

열대야로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가 처서를 맞으면서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부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사색의 계절을 실감케 하고, 책은 그 사색의 깊이를 더한다. 직장직능불자회는 올 가을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책, '경전'을 통해 내실을 다질 전망이다. 경전공부를 통해 신행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직장직능불자회는 6개 통신불자회 외에 10여 곳에 이른다.

91년 창립이래 스님과 불교학자를 초청해 〈선가귀감〉 〈화엄경〉 〈지장경〉 〈반야심경〉 〈천수경〉 〈승만경〉 등 10여 종의 경전을 공부해 온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회장 이완배)는 좀더 깊이있는 경전공부를 위해 '무량 초청강좌'를 상설화했을 정도. 올해는 동국대 목정배교수를 초청, '유마경의 세계'에 대해 공부할 계획이다. 또 정부 과천종합청사 정불회(회장 강평수)는 지난 1년간의 기초교리 공부를 끝내고 평생불자회 김정호 회장으로부터 매주 금요일 정오부터 1시간30분동안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다. 정불회는 내년 6~7월경 〈법화경〉 책거리를 계획하고 있다. '단순한 지식 습득 차원이 아닌 완전한 교리체계 확립이 목표'라고 귀띔하는 금융결제원불자회(회장 조화제)도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 귀가길에 신림동 관음정사에 들러 〈금강경〉을 공부한다.

또한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회장 권영일)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다보빌딩(불교방송) 15층에서 〈초발심자경문〉 윤독법회를 열고 있다. 창립한 지 2개월된 경희의료원 불자회 경불회는 지난 7월 창립 직후부터 매주 화요일 한정섭법사에게 기초교리와 〈천수경〉에 대해 공부하며 초발심을 지켜나가고 있다. 한국은행불자회(회장 윤주하)도 매월 셋째주와 넷째주 금요일에 문사수법회 김태영지도법사와 문서포교원 정우스님으로부터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각각 배우고 있다.

이처럼 직장직능불자회는 매월 정기적인 경전공부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불교공부를 체계화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로 삼고 있다.

한국은행불자회 안구병씨는 "경전은 인생의 나침반과 다름없다. 다만 직장인이다 보니 경전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며 "경전공부를 자기수행과 한사람의 포교사가 되는 길이라 생각하고 올 가을을 보낼 작정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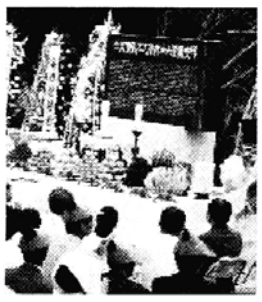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불교회는 내달부터 매월 셋째주 금요일 경전공부를 시작해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거리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가는 사이 부처님의 모습을 닮아갈 직장직능불자회의 가을 경전수확이 기대된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직장직능불자회는 경전을 읽으며 자기수행과 포교활동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사진은 한국은행불자회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경과 경전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임진왜란 고혼 천도비 세워

부산 토향회 8월 25일 옥련선원에

부산 토향회(회장 김무조)는 8월25일 옥련선원에서 임진왜란좌수영무주망령천도비 제막식을 가졌다.

옥련선원 주지 현진스님, 신종관 수영구청장, 해군 3함대 김성만 사령관 등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제막식은 호국영령들을 위한 묵념과 영가천도의 순으로 치러졌다.

김무조 회장은 "천도비를 세우는 후손들의 노력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애국지사의 혼을 달래고 뜻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은사 백중맞이 수해희생자 천도재

봉은사(주지 원혜)는 8월25일 백중맞이 행사로 '백중 49일 지장기도 및 수해희생자 합동 천도재'를 봉행했다.

사대부중 2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영산재 형식의 천도재와 함께 육법공양, 영가천도를 위한 창작무〈사진〉가 펼쳐져 관심을 끌었다.



대불청 전안호 회장 취임법회

대한불교청년회 제20대 중앙회장 취임법회가 8월21일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포교원장 정련스님을 비롯한 종단 관계자와 대불청 회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신임 전안호 회장은 "새로운 각오로 불청운동을 시작하겠다"며 "화합, 단결하여 종단 발전과 나라의 '정의실현,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교 어산작법학교 습의과 수료식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교장 인묵스님) 제3기 습의과 수료식이 8월21일 중앙승가대학 강당에서 교육원장 일면스님을 비롯한 종단 관계자와 21명의 수료생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어산작법학교는 어산(범패)작법과 불전의식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97년 4월 문을 열었다.



중앙대 불교학생회 가족수련

중앙대학교불교학생동문회(회장 서정규 쌍용연수원 부장)는 8월21~22일 1박2일간 영월 사자산 관음사에서 동문 회원과 가족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수련회를 개최했다.

정진기도와 함께 동문가족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시간을 보낸 중앙대불교학생동문회는 신앙귀의처인 원찰 건립을 위해 현재 1천 3백만원의 기금을 모금해 놓고 있다.

우리 모임에선

심우회 12사단 위문법회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5일 인제 12사단 훈련소 수계 및 위문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심우회는 12사단 군법사 상적스님과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장병들에게 빵과 음료, 떡, 내의 등을 전달한다. 02)578-2525

동산반야회 교리강좌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직장인을 위한 3개월 과정의 '불교교리' 강좌를 개설한다. 불교의 정의와 특징, 삼보설, 연기설, 반야심경 등을 강의한다. 02)732-1206

대구구도회 봉불식

대구구도회(회장 하재웅)는 5일 오후4시 본회 법당에서 석가모니불 봉불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053)256-8589

BBS통신원 자선공연

불교방송교통통신원 수원시지부는 4일 오후3~7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불우장애인돕기 기금마련 특별공연을 개최한다. 곽규호씨의 사회로 김흥국, 김하정, 안정애, 너훈아, 타틴탄야 등이 출연한다. 0331)258-2379

금강경독송회 통합철야법회

10개지회 5백여명 4~5일 경주서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4~5일 경주 두대마을에서 전국 금강경 수지독송 회원을 대상으로 철야통합법회를 봉행한다.

전국 10개 지회 5백여 명의 금강경독송 회원들이 참여하는 이날 통합법회는 4일 밤 10시에 입재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철야로 봉행되며, 금강경 7독, 정진, 김재웅법사의 법문, 각 법당별 수행담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통합법회에는 금강경독송회 회원이 아니어도 금강경 읽기에 관심이 있는 불자면 어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2)742-0172

한전반야회 사업소 연합법회

한전불자회(본사 반야회 회장 김영창)는 5일 직지사에서 제1회 전국 사업소불자회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본사 한전반야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날 행사는 한전 12개 사업소 불자회원과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불자 등 3백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1부 기념법회, 2부 만남의 장으로 진행된다. '만남의 장' 시간에는 전국 한전불자회연합체 구성에 대한 협의와 사업소간 상견례가 있을 예정이다. 출발은 5일 오전 6시30분 본사 앞에서 한다.

한전불자회는 지역별 순회모임을 가져 연합법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02)3456-5780

불교와의 새로운 만남

1999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원효학당

본 학당은 동·서양의 철학사상으로부터 현대의 제반과학에 이르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원효사상의 요체를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심도있는 교과과정을 통해 올바르고 소중한 삶의 진리를 밝혀드리겠습니다.

- 각 과정별 법사학위 수여
- 수강자의 희망에 따른 자유선택
- 타 교육기관의 이수경력 인정
- 깨끗한 음질·편리한 통신과정

특전 대학(원) 재학생 중 선발된자, 서류전형 우수자는 장학혜택 있음.

모집안내
- 입학자격/제한없음
- 모집과정/동장과정 00명
- 제출서류/입학원1부, 사진 3매
- 원서접수마감/8월30일
- 문의처/본 학당 사무국 3411-6167,8

99년 2학기 강의 시간표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교시 (10:30~12:00)	삼국유사 V 정병조 (본원원장)	선기공 적운스님 (골굴암)	한국승려의 참과 수행 김종명 (동국대)
2교시 (13:30~15:00)	대승기신론 연구 II 송찬우(중앙승가대)	대승불교의 이해 정병조(본원원장)	서경III 진성규(중앙대)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원효학당
서울시 강남구 개포3동 186-1 개포빌딩 6층 Tel (02)3411-6167~8
Fax (02)3411-6169 (지하철3호선 대치역 ▶개포5단지 경기여고앞)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이렇게 들었다

계율과 수행

계는 생사바다 건너주는 뱃사공

조계종은 최근 해인사 해인율원, 송광사 송광율원, 파계사 영산율원, 봉녕사 금강율원 등 네곳을 종단의 계율전문 교육기관으로 인가했다. 교계는 이번 율원 인가를 계기를 흐트러진 승가 위계질서가 바로잡히고 수행과 포교중심의 승가상이 구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전문 율원에서의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율 연구를 통해 현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작업도 계속돼야 할 것이다. 계는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나침반이다. 율원지정을 맞아 계율과 수행의 깊은 의미를 경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계(戒)는 온갖 선법(善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요, 온갖 선법이 생겨나는 근본이니, 땅이 온갖 수목의 생겨나는 원인인 것과 같다. 〈열반경〉

▨계는 해탈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계에 의지해야만 온갖 선정(禪定)과 고(苦)를 없애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니, 그러기에 비구(比丘)된 자는 마땅히 청정한 계를 지켜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만약 사람이 있어 청정한 계를 지킨다면 선법을 얻으려니와, 청정한 계를 지켜가지 못한다면 온갖 좋은 공덕(功德)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계야말로 최상의 안온(安穩)한 공덕이 깃들어 있는 곳임을! 〈유교경〉

▨계를 지키는 공덕을 수행(修行)해 성취하면, 계를 지키는 공덕 때문에 성불(成佛)하게 된다. 〈광명경〉

▨부처님께서 금강수보살(金剛手菩薩)에게 이르셨다. "무생계(無生界)는 모든 성자(聖者)를 세우는 땅이며, 온갖 선행(善行)을 생기게 하는 터니, 터(땅)를 만들지 않는다면 어찌 성스러운 선(善)이 설 수 있겠는가?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려 한들 어찌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며, 똥을 파내어 향을 만든다고 될 리가 없다.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가려면 반드시 자비의 배를 빌려야 하고, 어두운 거리를 밝히려면 모름지기 지혜의 횃불을 켜들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온갖 중생도 이 계를 지키지 않으면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는 말이 안된다. 이 계는 온갖 승속(僧俗)이 누구나 수지(受持)해야 한다. 〈무생계경〉

▨보살은 정계(淨戒)의 배로 파계자(破戒者)를 건네 준다.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나 열반의 기슭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육바라밀경〉

▨보살은 청정한 계로 그 몸을 아리땁게 하고, 다시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계를 굳게 지키도록 한다. 〈수호국계주경〉

▨계는 시원한 물과 같으니, 심광미만(深廣彌滿)해서 지계자(持戒者)의 신심(身心)의 더러움을 씻어준다. 계는 진기(珍奇)한 보배와 같으니, 착한 사람들은 이를 귀중히 앎으로써 길이 온갖 과실에서 떠난다. 계는 좋은 말과 같으니, 착한 사람들은 이를 타고 진실하게 사유(思惟)해서 즐거운 과보(果報)에 매이지 않는다. 〈제법집요경〉

▨만약 사람이 있어서 부처님의 정계(淨戒)의 향(香)을 수지(受持)한다면, 천신(天神)들이 널리 이 내음을 맡고 다 사랑과 존경을 보낼 것이다. 이같이 청정한 계를 완전히 지켜서 늘 여러 선법(善法)을 실천하는 경우, 이런 사람은 능히 세상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온갖 번뇌(煩惱)로부터 떠날 수 있게 된다. 〈계향경〉

▨계는 위대한 뱃사공이니, 능히 생사의 바다를 건네 준다. 계는 시원한 못이니, 온갖 번뇌를 씻어낸다. 계는 두려움을 없애는 술법이니, 사해(邪害)의 독을 제거한다. 계는 무상(無上)의 반려(伴侶)니, 험악한 길을 통과하게 된다. 계는 감로의 문이니, 성자들의 근거처다. 그러므로 계를 수지하여 마음에 동요가 없고, 전념해 포기하지 않으며, 바른 계상(戒相)을 헐뜯지 않고, 또 사명(邪命)의 마음이 없고 보면, 이를 일러 청정한 계라고 하는 것이다. 〈승기율〉

▨"내가 모든 중생을 관찰하니, 계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탓으로 악취(惡趣)에 도로 떨어져 윤회(輪廻)를 받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 도리를 잘 알아서 깊이 계를 마음에 새겨 잊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기필코 불환과(不還果)를 얻어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본사경〉

독자의 소리

대행스님 독일대법회 '해탈의 가르침'에 감동

7월 31일 독일 라팅겐에서 개최된 대행스님 초청법회에 가족과 함께 참가했다. 한국어를 모르는 15세 된 딸과 독일남편도 통역이 전해주는 법문을 열심히 들었다. 근 25년이 되도록 불교를 잊고지낸 내게 이날 함께 부른 사홍서원은 어린시절을 다시 기억하게 했다. 천주교신자였지만 한국에서는 조계종립 학교에서 스님들께 불교를 배운 기억은 지금도 생각하면 참으로 다행이다. 이번 법회에서 큰스님의 오랜 동안 자연을 베개삼아 이룩하신 해탈의 경험 전부가 고귀하고 아름다워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난 98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나는 내 아들이 한국인들을 위해 만든 독일 한국 꽃동네후원회를 소개했었다. 카스트의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장이신 혜진스님이 다가오셔서 두손을 꼭 잡아주셨다. 스님은 헉헉대던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특히 말로만 국적과 종교를 떠난 사람을 이야기 하는게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타국에서 상처받거나 또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교포들의 아픔이나 기쁨을 어루만져 주고, 또 유럽인에게 한국불교를 알게 해 준 계기가 된 대행스님 초청법회가 독일에 살고있는 한국인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웠다.

이경희〈독일 자브룩켄 거주 교민〉

존경받는 승가 되려면 계율실천 더욱 엄격해야

현재 한국불교는 승풍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하는 듯하다. 그러나 근본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신발신고 발바닥 긁는 격이 아닐까.

한마디로 승가가 타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스님들이 돈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승가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근본 불교수행의 국가처럼 계율을 철저히 지키게 해야 한다. 포교법사 또는 소임있는 스님 외에는 보살들을 상대치 말게하고, 위의 스님들도 혼자서 또는 1:1로 만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보시도 어느 스님 개인에게 하는 것을 신도들에게 금하는 교육을 시키고 개인적으로 보시금을 받은 스님은 곧바로 사찰재무를 담당하는 분에게 내놓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사항들은 쉽게 이행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대중참회 또는 기타의 벌칙을 분명하게 정하여, 발견될 때는 인정을 떠나 불법을 청정하게 유지시킨다는 각오아래 즉각 실천해야만 한다.

진실한 출가자와 불자라면 무엇이 수행에 방해되는지 분명하게 분별해 애당초 멀리하여야 한다. 동묵〈전북 전주시〉

목탁소리

천 미 희 〈부산주재기자〉

장삿속 법회 '조심'

남편의 건강, 자식의 직장, 가정 문제 등을 해결하길 원하는 불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법회 안내장이 부산 전역에 뿌려졌다. 유명 일간지에 광고까지 났다. '○○스님초청 소원성취법회'. 소원성취라는 만병통치약을 팔 때 풍기는 야릇한 냄새는 장학회 기금이나 교도소 교화기금 등 그럴듯한 불사 명칭으로 보기 좋게 포장되어 있었다.

소원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 뜻대로 풀리지 않는 자신의 문제를 안고 소원을 이루려는 많은 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무언가에 매달리듯 모여든 이들에게 축원을 해준다며 주소와 이름 등의 신상을 기록하게 하는 것으로 법회가 시작된다. 정해진 수순이 끝나자 법상에 선 법사가 외친다. "복을 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루에 천원씩 복전을 모아 지로로 일곱달 동안 입금하는 정성을 모아야 한다" 이쯤 되면 보기 좋게 포장한 상술을 눈치 챌 법도 한데 '현대판 면죄부'를 파는 일이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뜬 불자는 열 명 남짓. 마지막으로 법회참석 기념으로 염주가 축원카드와 교환되었다. 참석한 이들은 하루에 천원이라는 말에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한 달에 3만원, 7개월에 21만원이라는 생각은 해볼 틈도 없이 염주를 받아들고 귀가했다. 들리는 말로는 이렇게 염주를 팔기위해 대량으로 만드는 공장까지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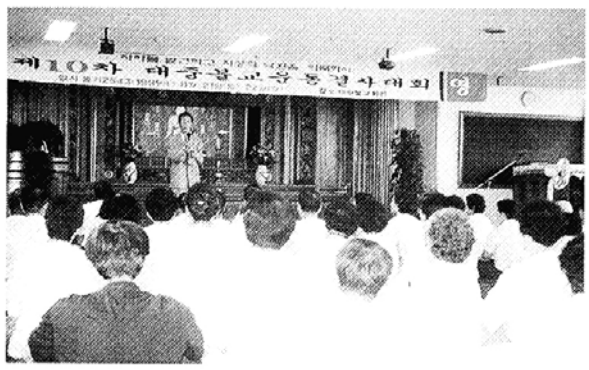
염주판매라는 '장사성' 법회가 부산에서 이미 10여차례 열렸고 인천과 서울에서도 개최돼 피해를 당한 불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회를 주관한 단체는 유령단체이거나 행사를 위해 급조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익금이 어떠한 명분으로 쓰이는지 그 내역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다.

최근 조계종 호법부는 이같은 법회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법회를 빙자한 물품강매행위에 대한 공고를 내고 불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피해를 당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종단차원의 조치에 앞서 불자 개개인이 올곧은 정진과 수행으로 혜안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불심을 사고 파는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 참다운 불심을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사기성상술이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할 테니까 말이다.

열린마당

제10차 대중불교 결사대회
21세기 대중불교운동

대원회 제10차 대중불교 결사대회가 8월21~22일 서울 대원불교회관에서 열렸다. '21세기 문화의 대중불교운동 방향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중결사대회에서는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 갈 문명적 대안으로서의 불교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대중불교 결사대회에서 발표된 발제문을 정리요약한다. 〈편집자 주〉



◇10번째 맞은 대중불교 결사대회에서는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문명적 대안으로서의 불교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소승적 수행 벗어나야"

권탄준〈대원불교대 학장〉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이지만 그 전반적인 수행의 성격은 소승불교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리와 수행이 괴리되어 겉돌고 있는데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승불교 본연의 수행법의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여 현실사회속에서 정법을 구현하고,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살행이야말로 개인주의에 물들어 맹목적으로 탐욕을 부리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아를 확립하여 자기자신을 참되게 지키고 실현해 나아갈 길을 열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보살행은 또한 현재의 불교수행에서 구복신앙 차원, 신비체험 차원, 개인혼자만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승적 차원 등의 성격을 탈피하여 현실세계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부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수행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수행법은 고학력시대에 각종 사회교육과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수준높은 지식을 갖춘 합리적인 현대인에게 종교를 초월하여 공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조직정비 적극적 실천"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대중불교 결사운동은 지난 89년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 이념을 바탕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돌아가 민족과 사회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 결성됐다.

그동안 대중불교결사운동은 〈대중불교〉 〈어린이 굴렁쇠〉 등의 창간을 결의해 척박한 불교포교현실에 문서포교를 통한 새 장을 열기도 했으며, 사후 각막 및 시신기증을 교계 최초로 실천해 교계 장기기증운동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 이같은 적극적인 실천행으로 생활속의 불교를 뿌리내리게 한 한국불교재가신행운동의 선두주자였다.

이제 10년을 맞은 대중불교 결사운동은 과거를 되돌아 보고, 겸허한 자세로 새로운 세기에 대비해야 한다. 먼저 대중불교 결사운동의 주체를 다시한번 확립하고, 그동안의 조직을 새롭게 정비함과 동시에 신행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해 명실상부한 대중불교 결사를 일구어 내야 할 것이다. 어제의 경험을 되살려 살아있는 불교, 21세기의 희망이 되는 불교를 이끌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대중불교 결사운동의 몫이다.

"다양한 사회운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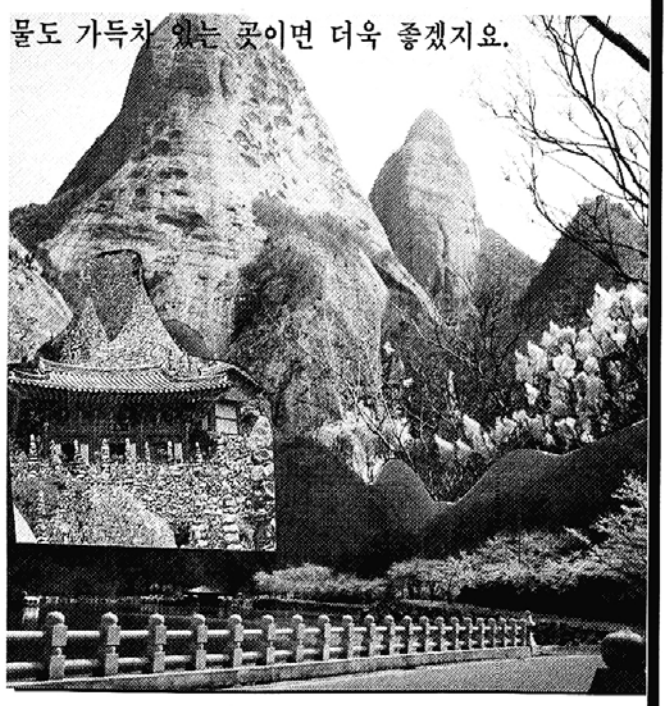
박경준〈동국대 교수〉

열반이 불교의 최고선이며 궁극적 목표라 할 때, 불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류문명은 '열반지향의 문명' 또는 '열반문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실로 오래전에 붓다가 제시한 참다운 문명에의 지름길을 놔두고 멀고먼 우회로를 돌아 왔는지 모른다. 이제 문명적 대위기에 직면한 인류를 위한 미래문명의 대안으로서 불교적 열반지향문명을 일구어 나가야한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및 경제생활 전반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을 이루고, 오늘날 대중문화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교육문제에 특히 깊은 관심을 기울여 열반문화의 방향에 대한 뒷받침을 이루어야 한다.

"불교는 우리에게 세계 전체에 걸쳐 고통을 낳고 영속화 시키는 경제구조에 도전할 수 있는 논리와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는 스웨덴 출신의 녹색운동가 노르베리 호지의 말을 희망삼아 다양한 불교사회운동을 전개하고, 불교도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NGO 등의 단체는 물론 다른 종교와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문명 모색과 창출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과 방생을 한 곳에서·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433-2900, 0303
(0655)432-0652, 0072

■약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신개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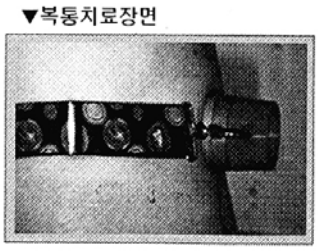
김시연스님

시·연·쑥·뜸·기

난치병에서 피부미용까지

쑥뜸의 효능은 3,000년간 인정받았습니다.
피부에 전혀 손상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뜰 수 있습니다.
한의사 대체의학 연구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복통치료장면



▼어깨결림 치료장면



○ 프랑스의 슈미트 의학박사는 현대의학상 외과수술외에는 쑥뜸법으로 무슨 병이든 전부 치료할 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 독일의 헤리 베르르 수미트 박사는 쑥뜸법은 동양 의학에서는 과거의 유물일지 모르나 서유럽에서는 새로운 의학이며 장래성 있는 의학이다.

○ 일본의 원지명태량 의학박사는 쑥뜸의 새로운 연구는 의학 최종목적인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양면을 동시에 해결케 해준다고 하였다.

♣몸 어느 한곳이라도 좋지 않은 분은 本社 제품 꼭한번 사용하세요.

♣「시연 쑥뜸기」는 아픈 곳이 곧 치료점입니다.

·각종질병 쑥뜸의 효능·

만성피로	정력강화	고혈압
견비통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당뇨병	요통
전립선	조루증	냉증
피부병	생리통	위장병

만병의 원인은
피가 탁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것인데 쑥뜸을 뜨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증가하여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되어 병이 치유됩니다.

■판매원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 ■제조원 : 도훈건강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138
053-628-9145 / H.P 011-808-8880
입금계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가격 : 200,000원(1set)
압축쑥 1개월분(50,000원), 쑥뜸기일체,
안내책자(12,000원)포함



◇근대 최초 불상으로 꼽히는 김복진의 '미륵불'을 감상하고 있는 관객들.

덕수궁미술관에 가면
한국근대 조소미술작품전

김복진 '미륵불' 등 감상



◇부산 범어사 '나한상'

국립현대미술관이 10월 31일까지 덕수궁 분관에서 여는 '한국근대미술:조소-근대를 보는 눈'展에 가면 근대불교미술의 선구자적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1900년대부터 현대조각으로 이어지는 1960년대까지의 조소작품 70여점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는 김복진(1901~1941)의 높이 117cm 크기의 '미륵불', 1905년에 제작된 작자 미상의 범어사 나한상, 김만술(1911~1996)의 '불두' 등이 그것.

이 가운데 근대불교조각의 선구자였던 김복진이 남긴 유일한 작품으로 알려진 '미륵불'이 백미. 도판에서 소개된 적이 없는 이 미륵불은 근대미술사 최초로 제작된 미륵불이다. '미륵불'은 1925년 동경미술학교 재학시절 출가했을 만큼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김씨가 전북 김제 금산사 미륵불 조성을 의뢰받고서 제작했다.

이번 전시품은 계룡산 소림원(주지 봉래스님)에 소장된 실물 디륵불의 멀티플 조각. 실물은 흙과 니금으로 제작됐다.

부산 범어사의 '나한상'은 이번 전시회에서 근대조소의 기점으로 삼은 작품. 고개를 약간 돌리고 미소짓는 나한상의 모습을 통해 이제까지 결코 동적이지 않고 근엄하기만 했던 우리 전통불교 조각에서 새롭게 근대적인 시각을 반영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윤범모 교수(경원대)는 "오밀조밀하고 외형적인 완결성이 강조된 일본의 불교조각에 비해 근대불교미술의 조각품은 좀더 역동적이며 장엄한 무게감이 느껴진다"며 "2천년간 면면이 이어온 불교미술 특히 조소의 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연극 '두타' 윤회메시지 '관객호응'

5일까지 세실극장서

말보다 몸짓연기 희로애락 표현



◇대사없는 신체연기로 선(禪)적인 감동을 전달해주는 불교신체연극 '두타'가 세실극장에서 인기리에 공연되고 있다.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말로 '탐욕과 망상을 떨궈 버리고 수행 정진한다'는 뜻을 가진 '두타(頭陀)'.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 신체의 움직임을 매개로 불교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신체연극 '두타'(강만홍 작·연출)가 5일까지 서울 덕수궁 옆 세실극장에서 공연되고 있어 관객들에게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체적인 상황과 주제를 배우의 몸짓 연기로 표현한 '두타'는 스님처럼 머리를 깎은 연기자들이 웃옷을 벗고 무대에 올라 태초의 에덴동산에서부터 권력의 탄생, 그리고 식욕과 성욕, 권력욕에 집착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까지 온몸으로 보여준다. 때로는 웅크리고, 구르고, 울부짖고, 웃고 심지어는 성행위를 하는 몸짓까지도 표현한다. 하지만 전혀 천하거나 원색적이지 않고 오히려 불교적인 몸짓을 추구하며 선(禪)적인 감동을 전달하는 장면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욕망의 집착에서 비롯되며 또 모든 것은 무상한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 있다는 불교의 윤회사상을 주요 메시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폭력성과 권력욕을 통해 인간의 사악함을 표현한 이 작품에서는 배우들의 신체 움직임을 통해 파괴적인 힘겨루기와 칼부림, 독살 등의 이미지를 표출하기도 하며 물구나무선 가부좌의 자세를 조금씩 움직이는 등 새로운 움직임도 보여준다. 또 선(禪)적인 구도를 암시하는 죽비가 소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두타'는 이미 지난 96년 뉴욕 라마다극장에서 초연돼 격찬을 받는등 세계 무대에서도 소개돼 호응을 받은 작품. 그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거쳐 지난 6월 미아리 활인 소극장에서 재공연됐다.

뉴욕타임스가 "배우들의 동작 하나 하나는 인간의 영혼을 울리는·아름다운 동작"이라고 평하기도 했을 정도다.

이렇게 '두타'가 뉴욕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한국적인 몸짓으로 극찬을 받은 것은 연출가 강만홍씨의 독특한 훈련 방식에서 비롯됐다.

강만홍씨는 "북한산 중턱에 매일 올라가 배우들에게 불교적인 체험을 위해 단전호흡과 참선 등을 지도하며 집중과 몰입을 훈련 시켰을 정도"라며 "신체연기의 기본틀도 요가와 선무도 등을 통해 보완했다"고 밝혔다. (02)736-7600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9월의 문화인물

매월당 김시습



문화관광부는 15세기 위대한 학자이자 사상가이며 생육신의 한 분인 매월당 김시습(설잠스님·1435~1493)을 9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했다.

김시습은 1435년(세종17년)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강릉, 자는 열경(悅卿), 호는 매월당·동봉(東峰), 법호는 설잠(雪岑)이다.

21세 때 삼각산 중흥사에서 공부를 하던 중 수양대군의 왕위찬탈 소식을 듣고, 3일을 통곡한 끝에 출가했다. 이때부터 10년간 전국을 만행하고, 이때 얻은 견문과 정회를 담아 〈매월당시 사유록〉을 남겼다. 31세 때부터 경주의 남산(일명 금오산)에 금오산실을 짓고 정착하였으며, 최초의 한문소설로 불리우는 〈금오신화〉를 창작했다. 49세 이후 소양호 주변의 청평사, 설악산 등지에서 수행했고, 다시 강릉지방에서 만행하다가 마침내 충청도 홍성 무량사에서 입적했다. 그때 나이는 59세(성종 14년). 무량사에는 스님의 부도가 남아 있다. 저서로는 〈십현담요해(十玄談要解)〉 〈묘법연화경별찬(妙法蓮華經別讚)〉 〈매월당집〉이 전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매월당 설잠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강원도, 강릉문화원과 협조하여 15일 강원도 강릉 문화예술관에서 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또 충청남도와 부여문화원등 관련기관·단체와 협조하여 11일 부여군 무량사에서 매월당 추모백일장을 마련하고, 4~5일 '탄생지에서 금오신화 집필지까지' 11일 '은둔처에서 입적지까지'의 매월당 문화유적 탐방을 실시한다.

'영남범음범패' 비디오 나왔다



원문-해석 자막처리
재대령·관욕편 영상화

불교 음악의 진수인 범패의 원문과 해석이 담긴 비디오가 불교계 처음으로 출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년전 영남범음범패 테잎을 제작, 교계와 학계의 관심을 모았던 부산의 범음범패 제작연구소(대표 이현담)에서 제작한 비디오는 재대령과 관욕의 두편, 20개로 제작된 영남 범패의 인간문화재 구암스님의 구음 테잎과 그 의문집(儀文集)으로 출판되었던 영남법음집을 한데 묶어 비디오로 제작한 것이다. 천도재에 널리 쓰이는 재대령과 관욕 부분을 일차로 제작한 이 비디오는 범음의 원문과 해석 자막을 범패가 전래된 영주 남장사, 쌍계사 등의 영상과 함께 담고 있다. 영가 천도시 먼저 일체 제불을 모시는 거불, 영가를 청하는 대령, 영가의 넋을 맑혀 주는 관욕까지의 뜻풀이를 담고 있어 범패의 이해를 쉽게 해주고 깊은 맛을 한껏 느끼게 해준다.

범패를 구성하는 구음의 원문과 뜻을 몰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어 온 스님과 일반인들에게는 교과서로, 불교음악과 불교사적 측면에서는 자료 가치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문과 해석은 범패부문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문구암스님을 비롯한 원르스님과 학자들이 참여했다. 이 비디오는 영남범패와 호남, 경기범패로 양분되는 범패의 흐름 중 영남범음범패의 교과서역할과 아울러 영남범패를 폭넓게 알리고 보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범패가 세상빛을 보게 한 테잎과 비디오 작업은 이현담 거사의 개인적 범패사랑과 관심에서 출발해 더욱 의미 깊다. 음악을 가르치다 범패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 생업을 포기하고 무작정 범패 연구에 뛰어든 결실이기 때문. 범음범패제작연구소 이현담 대표는 비디오 제작을 결심하고 2년여의 제작기간동안 범패를 우리나라에 전래한 진감선사의 발자취를 더듬는 5천km의 대장정을 직접 영상 촬영하는 열성을 보였다.

전무한 범패 자료를 남긴다는 자긍심으로 작업했다는 이대표는 "비디오 자료가 범패의 보존과 전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비디오로 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교음악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불교성악과 문화' 주제로

우리나라와 인도, 티벳, 중국 등 동양 각 나라의 불교음악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가 열린다. 국립국악원과 국악진흥회는 1·2일 양일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99 제4회 동양 음악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아시아의 불교 성악과 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한국불교음악연구의 회고와 전망-권오성교수(한양대) △한국 범패의 우형과 가창-법현스님(동국대) △인도의 불교 성악-리투익 산얄교수(바라나스힌두대) △티벳의 불교 성악-앨리스 이지드 음악감독(미국 라디오 프리아시아)등이 발표된다. (02)580-3076



◇각림스님 작 '제위행존자'

각림스님의 허허전

4일까지 대전시민회관

사찰에서 뒹구는 나무가지, 문짝, 관자 등을 생활소품으로 거듭나게 한 각림스님(대전 여래사 주지)의 '허허전'이 1일부터 4일까지 대전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다구, 목걸이, 장승, 나무병풍, 액자 등과 같이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생활소품과 수묵담채화 7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회 수익금은 전액 수재민과 젊은 학인스님들의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문화 단신

조계종 창작찬불가 공모

창작 찬불가에 대한 저변 확대와 유능한 불교 음악인을 발굴하기 위해 조계종 문화부가 창작 찬불가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의 신청서 교부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24일까지이며 응모기간은 12월1일부터 24일까지.

응모요령은 1인이 각 부분별로 1곡에서 3곡까지 출품 가능하며 모든 응모 작품은 피아노반주를 원칙으로 한다. 심사발표는 12월30일. (02)739-1830

10월26일부터 '종교미술제'

제3회 종교미술제가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미술제에서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등 각 종교 미술가들이 제작한 종교성 짙은 서양화 동양화 판화등 회화와 조각 서예 사진 등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출품작수는 1인 1작품으로 오는 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후원하고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종교예술제는 음악 미술 영화 학술세미나 등 각 부분별 종교간의 상호이해와 더불어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다. (02)739-1830

신 간

육바라밀이 어렵다고요 ?

육바라밀 수행법

김현준 지음 / 4×6판 / 186면 / 3,500원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좋은 세상을 여는 보시·
해탈의 주춧돌인 계율·행복의 묘약인 인욕·
향상된 삶을 보장하는 정진·평화로움을 되찾는 선정·
지혜의 완성 반야바라밀 !

이 수행법은 고해의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배입니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실천하지 않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고 알기 쉽게 엮은 이 한 권의 책을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육바라밀 수행법≫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을 만나십시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쉬운 불서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4×6판 / 160면 / 값 3,5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조형물은 어느 하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우리 불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신국판 / 320면 / 7,000원

이야기로 푼 '오분향 예불문' !!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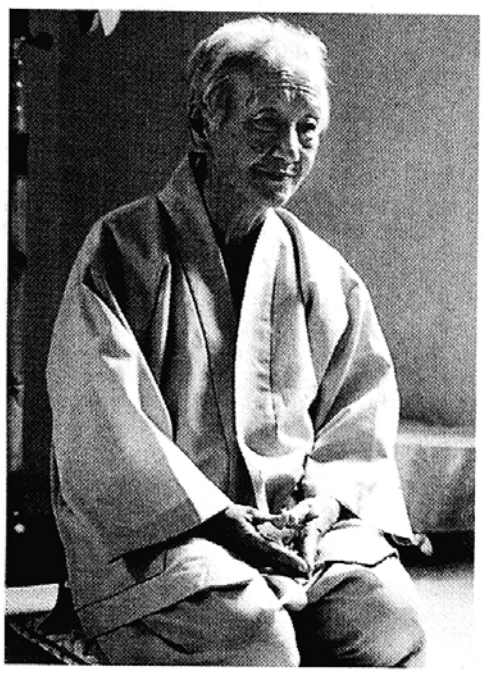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행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Ⅰ. 새벽예불 Ⅱ. 오분향례 Ⅲ. 부처님이시여, 크나큰 진리여
Ⅳ. 거룩한 사대보살 Ⅴ. 영산회상의 제자들
Ⅵ. 불법은 승보가 호지한다 Ⅶ. 자타일시성불도

신국판 /240면 /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일생동안 학문의 길을 걷다가 불법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정년퇴임후 구도의 길을 걷고 있는 이남덕씨.

흐르는 물처럼 사는 '中道의 삶'

이남덕 수상집 '여든살의 연꽃 한송이'

여든살의 인생역정 불퇴전의 수행열정 일기형식 차분히 정리

"70세에서 80세 사이의 정신과 육체 건강관리 실제를 여기 한데 묶었습니다. 글을 쓰는 이유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공감하자는데 있지요."

동아대·숙명여대·이화여대 국문과에서 후학을 가르치다 86년 정년퇴임하고 경기도 포천 죽엽산 자락 말구리 마을과 갑사 대자암에서 대자연과 벗하며 구도생활을 하고 있는 이남덕씨(80)가 수상집 〈여든 살의 연꽃 한송이〉(불광 刊)를 내놓았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공감하자"라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의 속살은 적어도 공생공존의 중도사상을 담고 있다.

88년 청화스님과의 만남 이후 매년 안거와 글쓰기를 병행해 온 이남덕씨가 낸 이 책은 자신의 수행을 일기형식으로 객관화시킨 신심의 결정체다. 그는 "인간의 삶이란 어떤 것이 참다운 삶인가하는 보편적인 물음이 생각의 주제였다"라고 강조한다. 이 책에 쓴 주제들도 고행의 의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일, 사람되어지이다, 참(眞·誠)을 구하는 마음 등 '삶이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보편적인 수행일기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여든살의 인생역정과 불퇴전의 수행 열정이 농축돼 있어 수행의욕을 북돋워 주기에 충분하다.

저자는 노구에도 불구하고 수행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고통은 우리들 삶에 따라 붙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참 생각을 가질 때 깨달음을 얻는다. 진리를 갈망하는 구도심이 강렬하면 할수록 어떤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다"가 이씨의 수행이념 중 하나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철야정진을 하고 매년 안거수행을 한다. 저자가 수행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중도(中道)를 얻기 위함이다. 이 책에 실린 글에서도 중도사상을 간단없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저자의 생활공간 곧 처처가 수행공간인 셈이다. 참선과 노동 그리고 일상의 단상을 적은 이 책속에서는 해묵은 된장처럼 진한 수행의 향기가 묻어나온다.

이 책은 정년퇴임후 참선을 시작하면서 월간 불광지에 매달 기고한 내용으로 〈두메산골 앉은뱅이의 기원〉의 후속편이다. 또 이 책에는 선학특강 3편을 비롯 중도의 길, 생명의 글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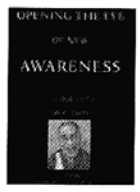
물렁물렁한 물컹이 심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3기 80세 출발의 소원이다는 이남덕씨는 "연꽃 한송이로 상징되는 불교의 무아·무소유의 가르침이 언제나 환한 빛으로 내 가슴에 남아 있기 때문에 행복과 감사를 가지고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로 짧막하게 소감을 말했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해외신간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다=미국인 불자의 가슴을 10여년간 잡아왔던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다(Mountains Are Mountains and Rivers Are Rivers : Applying Eastern Teachings to Everday Life)〉가 새롭게 출간됐다. 미국의 명상가 레비노위츠가 불교의 철학과 명상을 일상에 투영, 현대적인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그동안 일반인의 초발심을 자극해 왔던 책으로 더욱 유명하다.

Hyperion 출간, ISBN 0786864761



▲새로운 지각의 눈을 뜨고=티벳불교를 알고 싶은 불자들에게 유익한 책이 출간됐다. 달라이 라마, 텐진 가쵸등 티벳불교 종파중 겔룩파의 지도자들이 불자의 길을 제시한 〈새로운 지각의 눈을 뜨고(Opening the Eye of New Awareness)〉가 그것. 수천년 동안 겔룩파에서 비전되어 온 '수행의 정수'를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한 이 책은 티벳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기본 지침서로도 활용 가능하다.

Wisdom Publications 출간, ISBN: 0861711556



▲선(禪)과 컴퓨터=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선'을 발견한다. 필립 수도의 〈선과 컴퓨터(Zen Computer: Mindfulness and the Machine)〉는 컴퓨터를 켜고, 프로그램을 설치·이용하는 데에서 선의 원칙인 자각, 마음챙김, 중도 등을 이끌어 내고 있는 책.

Simon & Schuster 출간, ISBN 0684854090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김재웅 법사의 영문번역서

'닦는 마음 밝은 마음' 미국서 인기 상한가



김재웅 법사의 영문 번역서가 미국 서점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닦는 마음, 밝은 마음〉의 번역서 〈POLISHING THE DIAMOND, ENLIGHTENING THE MIND〉가 화제의 책. 보스톤에 있는 위즈덤 출판사가 올 1월에 출간한 이 책은 초판이 3개월만에 매진, 최근 2쇄를 낼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용화출판사가 90년 출간한 이 책은 김법사의 제자인 한윤상씨(28·뉴저지 거주)가 서양인들과 한인 2세에게 소개할 목적으로 번역했다.

현재 버지니아 윌리암 앤 메리법대에 재학중인 한윤상씨는 "불교에 대한 서양인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로 초신도들이 쉽게 이해할 단한 불교 서적들이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책은 금강경의 내용을 우리 실생활과 접목시켜 설명하고 있어 불교에 무지한 서양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쓰여져 있다"고 출판 등기를 밝혔다.

달라이 라마가 쓴 추천의 글과 함께 총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김 법사가 스승인 백성욱박사(前 동국대 총장)에게 들은 법문과 자신의 수행여정, 도량을 찾아온 젊은 구도자들과 나눈 대화 등을 서술하면서 한국불교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책방 여시아문 등 시중서점과 인터넷서점인 아마존닷컴 종교사이트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값 2만5천원〉

'초기불교의…' '상윳따 니까야 1·2·3'

남방대장경 개론서-경전 출간

남방대장경 개론서와 초기경전이 나란히 출간됐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이 펴낸 〈초기불교의 연기사상〉과 〈파알리대장경 상윳따 니까야 1·2·3〉(한국빠알리성전협회 刊)가 그것이다.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은 초기불교에서의 인과관계를 설명한 연구서. 이 연구서의 특징은 북전 〈아함경〉에 대한 근본원리인 '차유고피유(此有故彼有) 차생고피생(此生故彼生) 차무고피무(此無故彼無) 차멸고피멸(此滅故彼滅)'이라는 일반원리로 파악하여 사성제를 연구한 것이다. 이 책은 전교수가 95년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을 재편집한 것.

북전의 잡아함경에 해당하는 경전인 〈쌍윳따 니까야〉는 초기경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에 가까운 경전이다.

1권은 부처님과 하늘사람과 악마와의 대화 등이 수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경전이다. 2권과 3권은 연기법에 대하여 부처님과 제자들의 담론을 상세히 밝힌 경전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보르헤스 탄생 100돌

작품·사상 '재조명'

8월 24일로 탄생 1백주년을 맞은 20세기 문학의 거장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의 문학작품 및 사상 재조명 작업이 활발하다.

보르헤스는 〈보르헤스의 불교강의〉(여시아문 刊)가 출간되면서 교계에 널리 알려진 작가. 탄생 1백주년을 맞아 국내에서는 서울대 스페인·중남미 연구소가 18일 '보르헤스와 아르헨티나 근대문화의 형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민음사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열기〉를 내놓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전시회, 다큐멘터리, 낭독회 등의 행사가 펼쳐졌다.

보르헤스는 많은 불교서적을 탐독할 정도로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불교강의〉를 저술했을 뿐아니라 말년에 실시한 문학강연에서 "불교는 구원의 길이었다"고 고백할 정도. 대표작 〈알래프〉도 깨달음의 세계를 더욱 치밀하게 묘사하기 위해 쓴 소설이다.

새싹불자 위한 극본집

함재수씨 '소쩍새의 울음'



아동문학신인상을 수상한 함재수씨(49·한국불교청소년 포교문제연구원장)가 첫 어린이 극본집 〈소쩍새의 울음〉을 펴냈다.

함재수 어린이 극본집 〈소쩍새의 울음〉은 〈부모은중경〉을 통해 불교의 기본사상인 인연의 진리를 일깨워주는 '어린이의 글', 도심 근교 포교원인 은애원을 무대로 동자스님에게 예불과 공부 그리고 선행을 하라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종이학' 등 15개의 극본이 실려 있다. 또 유아들을 위한 극본 9개도 수록돼 있다.

저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물은 교훈적이고, 문학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 극본집은 연극으로 어린이들에게 보다 더 가깝게 다가 설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발간의 의의를 밝혔다. 미리내 刊. 값 7천원.

쉽지 않은 만남 | 이인옥 편역

대만 성운스님의 불법홍포 원력



"불교가 나를 의지하게 할 결심을 해야지 내가 불교를 의지할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대만 최대의 사찰인 불광사를 건립하고 전 세계 150여개의 말사를 운영하며 인간불교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성운스님. 수행하면서 겪었던 자신의 일상과 불법포교의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의 교훈과 삶의 지침 등을 적은 수상록 〈쉽지 않은 만남〉을 이인옥씨가 편역했다. 성운스님의 불법홍포의 원력을 담은 이 책은 월간 구룡지에 매월 연재되었던 내용을 간추려 엮은 것이다. 운주사 刊. 값 6천5백원.

화제의 책

자유가 두렵다 | 노우스님 지음

깨달음 향한 선승의 삶 '엿보기'



"마침내 구속에서 벗어난 육체가 갈 곳이 없다. 막연히 자유를 갈구했을 뿐 그 자유의 용도를 알지 못했다. 나는 자유가 두렵다. 해제를 맞았으나 마땅히 갈곳이 없는 것이다." 출가후 제방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는 노우스님이 펴낸 신간 〈자유가 두렵다〉는 수행자로서의 고민과 애잔함, 도반들과 신도들의 모습을 보며 깨달아 가는 윤회속의 고(苦), 도를 구하고자 출가할 때와 지금의 마음자세를 돌이켜보며 자신을 채찍질하는 열정이 담겨 있다. 우리출판사 간, 값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연하연구원	불교시대사
2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3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4	나는 아직도 스님이 되고싶다	최 인 호	여 백
5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창작시대
6	자 떠나자 원효찾으러	장 휘 옥	시 공 사
7	화두이야기 1	이 은 윤	동아시아
8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 겔	여시아문
9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정 찬 주	해들누리
10	티베트에서 온 행복의 열쇠	주 민 황	정 우 사

구입문의:(02)737-0695

이제는 집에서도 온 가족이 손쉽게 법회를!

가정법회

모든 불자들을 위한 가정법회 안내서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 5계 수지문 낭독 · 찬불가 · 성구 및 해설 · 발원문 · 사홍서원



신행활동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될만한 내용을 아함부경전에서 가려뽑은 성구와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해설.
축원이나 감사는 물론 각종 행사나 절기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된 발원문.
온 가족이 날짜나 요일을 정해놓고 혹은 특별한 날에 가정법회를 진행한다면 훌륭한 불자가정은 물론 삶의 지혜와 교훈,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혁종 편저/신국판/350쪽/값 10,000원

중국과 대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선학총서 첫 번째 권

불교와 유학

불교와 유교, 동아시아 사상계의 가장 큰 충돌, 그리고 중국화된 불교와 불교화된 유교!



불교와 유학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상호간의 투쟁, 배척, 흡수, 융합 등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책은 바로 이 양자의 관계를 정확한 관점과 명쾌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와 중국에서 발원한 유학이 갖는 각각의 특징, 불교의 중국화 과정에 유학이 미친 영향, 역으로 중국의 유학에 불교가 끼친 영향,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의 결과 및 의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賴永海 저 · 김진무 역/신국판/363쪽/값 12,000원

알기쉬운

한문해석법

현대 한문해석법의 완성과 반야심경에 대한 최초의 문법적 분석



불교경전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이 책은 한문의 기초부터 한시는 물론 허사에 이르기까지 한문해석을 위한 한문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총정리한 초보자를 위한 한문입문서이다. 특히 반야심경을 현대의 한문해석법에 문법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장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심재동 저/신국판/383쪽/값 12,000원

初發心自警文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게 꾸민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

번역 및 자해난은 물론 원문에 토를 달고, 원문 해석의 순서와 방점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혜공 편역/신국판/136쪽/값 4,500원

1999년도

불교서적 종합목록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교서적을 총망라한 국내 유일의 종합정보지.

전 서적에 대한 내용별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전체목록 색인란과 출판사별 색인란을 두어 목록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가까운 불교서점에 가시거나 운주사로 연락주시면 (우편발송비 2,000원 동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주 최	주 제	날 짜
대각사상연구원	백용성스님과 불교계의 노동문제	9월9일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제50회 학술대회	9월9 · 10일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	관음도량과 해조음의 관계 외	9월11일
한국미술사연구소	발해의 미술	9월11일
한국불교연구원	한국불교사에서의 사명당의 의의	9월17일
고려대장경연구소	비판불교의 인도철학 이해에 대한 검토 외	9월18일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21세기 불전전산화 방향	10월6일
성철선사상연구원	성철스님의 사부대중교화 외	10월8일(예정)

하반기 학술발표회

주 최	주 제	날 짜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	마음에 대한 유불 비교연구 외	10월9일
고려대장경연구소	비판불교에 대한 서양철학 입장에서의 접근	10월16일
보조사상연구원	제23차 월례발표회	10월23일
한국종교학회	21세기 종교와 종교학	11월6일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한국불교 정보화의 과제	11월6일
고려대장경연구소	마츠모토 시로 강연 및 토론회	11월20일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	원시 선정 구조의 일고 외	12월11일
보조사상연구원	제24차 월례발표회	12월26일

대각사상硏 · 종교학회 · 대장경硏 · 동국대 불전硏등

하반기 불교학술회의 '풍성'

노동 · 복지 · 전산정보화 · 비판불교등 '주제 다양'

올 하반기 불교학계는 노동문제, 복지, 서양학자들의 불교연구 비판, 불교계 전산정보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풍성한 학술발표회가 준비되고 있어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세미나는 대각사상연구원의 대각회 창립 30주년 세미나. 그동안 학계에서 외면받아 오던 불교계에서의 노동문제를 선농불교를 중심으로 심도깊게 조명할 계획이다.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대각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사 연구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불교계의 노동문제에 대한 기념세미나를 9월9일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백용성스님과 불교계의 노동문제-선농불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이 '백용성스님의 후반기의 생애'를 기조강연으로 발표한다. 이어 김광식 박사(대각사상연구원)가 '백용성스님의 선농불교'를, 성본스님(동국대 교수)이 '선불교의 노동문제'를, 박경준 교수(동국대)가 '인도불교계율에 있어서의 노동문제'를, 유필화 교수(성균관대)가 '불교교리와 현대의 기업경영'을 발표한다. 주제토론에는 정광호 교수(인하대), 신규탁 교수(연세대), 이종철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윤원철 교수(서울대) 등이 참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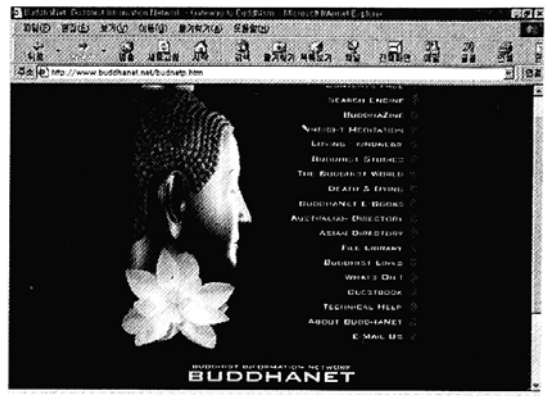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위원장 해주)는 올해 네 번의 발표회를 갖는다. 9월, 10월, 12월은 분과의 월례발표회로 '관음도량과 해조음의 관계'(조용헌), '마음에 대한 유불비교 연구'(허정희), '화엄사상'(사또, 이효걸) '원시 선정 구조의 일고'(김형준) 등이 발표된다. 11월6일에는 '21세기 종교와 종교학'을 열리는 종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불교 사회복지'(김응철), '서양 학자들의 불교연구에 대한 비판'(이동휘) 등이 발표되는등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 인도학불교학회가 9일 · 10일 양일간 개최하는 제50회 학술대회에는 '한국불교의 예수재에 관해'(법산스님), '의상의 법계연기관'(도업스님), '원효의 화쟁원리-화엄일심에 관해'(해주스님), '사무량선에 대하여'(김형준), '밀교승 혜초의 재고찰'(이정수) 등이 발표된다. 한국미술사연구소는 9월11일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발해미술의 국제성과 한국적 특징'을 주제로 '발해상경불교조각의 연구' · '동경성의 불상'(임석규), '크리스키노 사원지의 불교미술'(볼딘), '상경성 건축'(이강근) 등 9편이 발표될 예정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의 비판불교 세미나는 9월 10월 각각 비판불교의 여래장과 본각사상 이해에 대한 검토(최정규), 비판불교의 인도철학 이해에 대한 검토(이은덕), 비판불교에 대한 서양철학 입장에서의 접근(소흥렬 · 김옥선) 등을 발표한다. 이어 11월에는 비판불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마츠모토 시로 박사를 초청 강연을 듣고 토론을 개최해 1년동안의 세미나를 결산한다는 방침이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는 국내 최초로 '21세기 불전전산화 방향'을 주제로,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준)는 '한국불교 정보화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10월6일, 11월6일 개최할 계획이다. 불교계에 강조되어온 전산정보화 과정이 이 두 세미나에서 세세하게 밝혀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성철선사상연구원의 추계학술대회와 보조사상연구원의 월례발표회 등이 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붓다넷

유럽전역에 중국불교 포교 전담
선시 · 법문 · 법계도 등 알짜정보

티벳불교가 주류를 이룬 유럽지역에 중국불교의 포교를 전담하는 '붓다넷(buddhanet)'이 개설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 사이트는 영국의 서남부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브리스틀 선불교會'가 주축이 돼 영국을 비롯해 유럽 전역에서 활동했던 유관단체들이 모여 지난 9월초에 브리스틀에서 결성됐다.

'붓다넷'의 웹마스터 존 크룩씨는 성엄스님(대만)의 법제자. 성엄스님은 지난 63년부터 일본 · 미국 등지에서 선(禪)센터를 개설해 중국불교의 포교에 전념한 스님. 따라서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중국불교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곳에서는 △중국불교개관 △수행관 △권장도서 △전자잡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붓다넷이 제공한 정보 중에서 법문, 선시, 선불교교우회의 활동과 관련사진 등이 실려있는 전자잡지인 '禪광장'(New Ch'an Forum)과 중국 선불교의 '법계도' 등이 불자네티즌의 호기심을 충분히 충족시킬 정보이다. 이외에도 뉴욕 · 퀠리포니아 · 대만 등지에서 중국불교의 포교에 노력하는 선(禪)센터와의 링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링크 서비스 가운데 '미국불교회(The Buddhist Association)' 사이트는 미주대륙에서 중국불교의 교세를 엿보기 위해 방문해 봄직하다.

불교회는 중국불교학에 관심을 가졌던 중국계 미국인의 모임인 '리하이 불교클럽(Lehigh Valley Buddhism Club)'에 기원을 두고 1987년에 설립된 퀸실베니아 지역의 중국불교계 학술 · 신행 단체.

불교회는 퀸실베니아의 장엄사에서 회의, 포럼, 법회 등을 개최하고 뉴스레터도 발간, 배포하고 있다. 장엄사는 대불전, 관음전, 인광루, 천련재, 태허재, 도서관, 식당 등의 건축물과 칠보호(七寶湖) 등을 갖춘 대규모 사원.

또 불교회 회원들은 중국의 한문장경을 연구하기 위해 불교전뇌자신고공덕회(The Electronic Buddhadharma Society)라는 학술기구도 설립, 지원하고 있다. 이 공덕회는 대반야경, 불학 사전등의 불교 자료들을 입력하여 CD-ROM으로 출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상세한 보고서를 한문(BIG-5)으로 읽을 수 있으며 입력한 자료들을 일부 샘플(영 · 한)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선불교 개론 · 영상 · 불교일반 등의 정보를 비롯해 티벳과 관련 티벳불교 · 문화자료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제작된 불교영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가운데 '명상과 무소유'(알란 와츠, 시인) '선불교 소개'(다이도 로리, 禪山사원 원장) 등을 비롯 6개의 선불교 관련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로 꼽히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역시 이 사이트에서 눈에 띄는 정보.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붓다넷 http://www.buddhanet.net
△미국불교회 http://dual/iems/nwu.edu/~cwshen/

소광섭교수 '물리학과 대승기신론' 기독교 언어사용 불교해석 '논란'

물리학과 불교교리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물리학과 대승기신론〉(서울대출판부 刊)이 불교사상의 진수인 〈대승기신론〉을 기독교적인 언어로 해석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승기신론〉 해석에 있어서 진여(眞如)를 하나님, 여래(如來)를 하나님의 아들, 여래장(如來藏)을 하나님의 품, 법신불(法身佛)을 하나님 아버지, 보신불(報身佛)을 하나님의 성령, 화신불(化身佛)을 하나님의 아들, 마하연(摩訶衍)을 큰 수레 또는 하나님, 일심을 한마음 또는 하나님 마음, 정법(淨法)을 하나님의 진리, 무명(無明)을 사탄 등으로 해석한 것이다.

'하나님'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불교와 기독교의 사상적 접근과 상호 이해가 가능하도록 시도했다는 저자 소광섭 교수(서울대)는 "불교와 기독교는 두 사상이 본질적으로 달라서가 아니라 단지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이해가 불가능하다. 〈대승기신론〉을 번역하면서 기독교적 표현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우리말로의 옮김이자 기독교 언어로의 옮김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번 시도는 두 종교 간의 근본 정신의 상통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며 "서로 뜻이 다른 언어를 가져다가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진여를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에 대해 다른 단어를 대며 반론을 제기한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바꿀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 교수의 해석에 대해 불교모독이라는 반응과 함께 시도 자체는 신선하지만 기신론의 해석을 서로 뜻이 다른 언어를 가져다 견의하는 것은 무리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일고 있다.

김용정 교수(동국대)는 "불교에 심취해 열심히 공부하는 소 교수이기에 불교를 훼손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대승기신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강지연 기자

김동화 박사 전집 12권 내년가을 완간 예정

동대 불교사회문화硏 자료정리



현대불교학의 태두인 뇌허 김동화 박사가 심혈을 기울여 저술한 〈불교학개론〉 〈불교교리발달사〉 등의 논저를 비롯해 수필 잡저에 이르기까지 원고 3만매에 달하는 평생 저술이 12권 전집으로 내년 가을경 선보인다.

뇌허불교학술원(원장 곤응스님)은 8월21일 뇌허 김동화 박사 전집 간행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12권으로 전집을 완간하기로 하고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진 박사의 저술은 가급적 원뜻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옮긴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 윤호진스님)이 자료수집과 편찬관련 업무를 맡았다.

일본 입정대학에서 불교교리발달사를 연구한 김동화 박사는 1947년 동국대학교 교수가 된 이후 학장 대학원장 불교문화연구소 소장 등을 거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많은 저술을 남겼다.

1972년 학술원공로상을 받은 뒤 학술원 종신회원이 했다. 김 박사의 업적을 기리며 불교학 발전을 위해 뇌허불교학술원은 뇌허학술상을 제정했다.

강지연 기자

학술단신

'동원학술논집' 제1집 발간

한국고고미술연구소(이사장 정양모)가 〈동원학술논집〉 제1집을 펴냈다. 1집에는 '15세기 조선자기 양식에 관한 연구'(김영원) '금공품을 통해 본 5~6세기 신라의 집권화과정'(이한상) '5~6세기 신라의 무기 변화양상과 그 의의'(김길식) '신라 도성의 교통로에 대한 연구'(박방룡) 등의 논문이 실렸다. 이외에도 '해동명산도첩'(이원복) '임실 중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고찰'(최선주) 등의 학술조사보고도 담겨있다.

국사편찬위 자료 전산화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성무)는 8월26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각종 역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전산화 작업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불교사 경제사 등 한국사 관계 자료를 전산화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거나 CD롬으로 제작해 학계나 일반에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또 친근하게 다가서는 국편을 만들기 위해 우리역사의 중요 쟁점들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일반인을 위한 교양과정 개설도 검토 중이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주머니 속 대장경 303 - 선(禪)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 최근 출판가엔 가히 한국판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투어 출판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종락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물음, '너는 누구냐'는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장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범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제 기자)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선사들 즐겨 인용한 섭대승경

경전 속의 禪 사상 32

금강삼매경 (中)

글쓴이

최 유 진
(경남대 인문학부 교수)

〈금강삼매경〉은 8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품(序品), 무상법품(無相法品; 법에는 상이 없다), 무생행품(無生行品; 냄이 없는 행을 함), 본각리품(本覺利品; 본각에 의하여 사물을 이롭게 함), 입실제품(入實際品; 虛에서 實로 들어가게 함), 진성공품(眞性空品; 참된 성품은 공하다. 모든 行을 분별하여 眞性의 空으로 나오게 함), 여래장품(如來藏品; 무량한 문으로 여래장에 듦을 나타냄), 총지품(摠持品; 의심을 없애는 부분)의 8품이다.

〈금강삼매경〉은 일명 〈섭대승경(攝大乘經)〉(대승을 모두 포섭하는 경전)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대승 경전의 이론이 망라되어 있다. 〈반야경〉과 〈중론〉의 공사상, 〈화엄경〉의 '삼계허망 단시일심작(三界虛妄但是一心作; 삼계가 허망하니 다만 한 마음이 만든 것이다)' 설, 〈유마경〉의 '수불출가 부주재가(雖不出家 不住在家; 비록 출가하지 않았지만 재가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설, 〈법화경〉의 일승삼승(一乘三乘) 및 장자궁자(長者窮子; 장자의 궁핍한 아들) 비유, 〈열반경〉의 일천제(一闡提; 불성이 없는 중생) · 상락아정(常樂我淨) · 불성(佛性)의 설, 〈능가경〉과 〈기신론〉의 불성여래장(佛性如來藏), 본각(本覺) · 시각(始覺)설, 명(名) · 상(相) · 분별(分別) · 정지(正智) · 진여(眞如)의 오법설, 〈범망경〉과 〈영락경〉의 보살 52위설과 삼취정계(三聚淨戒), 당시 유행한 참회(懺悔) · 정상말(正像末) · 흔구정토(欣求淨土; 기쁘게 정토를 구한다)의 사상, 섭론종의 9식설, 초기 선종의 이입설(二入說)과 수일입여래선(守一入如來禪; 하나를 지켜 여래선에 들어간다) 등 7세기 중반 당시까지 중국에서 성행한 불교 사상 대부분이 망라되어 있다.

理入 중생과 부처 둘 아닌 무분별의 경지

行入 구함없어 경계에 초연한 무생행 상태

특히 선종과 연관하여서는 이후에 하택신회(荷澤神會), 정중무상(淨衆無相), 보당무주(保唐無住), 규봉종밀(圭峯宗密) 등 성당시대의 선종에서 한결같이 〈금강삼매경〉을 선종 성립의 근거로 삼고 있고 또 법안종의 영명연수(永明延壽) 등도 즐겨 인용하고 있는 데서 이 경전이 선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입설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금강삼매경〉 입실제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입(二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두 가지 들어감(二入)은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이다. 이입(理入)이란 중생이 진성(眞性)과 다르지 않으며, 그렇다고 하나도 아니고 공통적인 것도 아니고 다만 객진(客塵)이 가리는 바 되어 있으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것임을 깊이 믿고, 마음을 모아 각관(覺觀)에 머물러 불성(佛性)을 자세히 관찰하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자기도 없고 남도 없으며, 범부와 성인이 둘이 아님을 알아서 금강심지(金剛心地)에 굳게 머물러 움직이지 않고 적정하고 무위하여 분별이 없음인데 이것을 이입(理入)이라 한다. 행입(行入)이란 마음이 기울거나 의지하지 않으며 그림자에 흘리거나 바뀜이 없으며, 모든 처소에서 생각을 고요히 해서 구함이 없으며, 바람이 북 치듯 해도 움직이지 않기를 대지와 같이 하며, 마음과 나를 버려서 중생을 구원하고 제도함에 무생무상(無生無相)이고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원효는 이를 풀이하여, "이입(理入)은 순리(順理)하여 신해(信解)함인데 증행(證行)은 얻지 못했고 위(位)는 지전(地前; 十地 이전)에 있다. 행입은 증리(證理)하여 수행함이며 무생행(無生行)에 들어감이니 위(位)는 지상(地上; 十地 이상)에 있다."고 말한다. 이 이입설(二入說)은 선종의 초조(初祖)인 보리달마의 이입사행론의 근거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금강삼매경〉이 위경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 문제에는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어쨌든 선종의 이론과 관련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금강삼매경〉에서는 이입과 행입의 이입(二入)만을 말하고 있는데 비해 보리달마의 이입사행론에서는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의 이입(二入)을 말하고 행입에 다시 네 가지 행을 말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네 가지 행이라는 것은 보원행(報怨行; 괴로운 인생은 자업자득이라 생각하여 감수함), 수연행(隨緣行; 인연에 隨順하는 행위), 무소구행(無所求行; 구하는 바가 없는 행위), 칭법행(稱法行; 법에 맞는 행위)이다.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13

중도

수행자세 갓 피어난 꽃같다

마음열면 고통 · 행복 함께 있음을 이해

"할수 있을까" 자문하는 것은 자기 결박

수행의 길을 택한 사람은 마땅히 중도(中道)의 길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쾌락이나 고통 따위는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명상을 시작한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신념을 지키고 변화를 막기 위해 틀 짓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틀 속에서 자라는 것은 망상이다. 초발심이 강한 집착을 만든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처음 법륜을 굴릴 때부터 양쪽 극단과 중도에 관해서 설했다. 두 극단에는 집착이 발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해지고 싶을 때, 한쪽에서는 고통이 일어난다. 이 싸움은 몸과 마음에서 항상 일어나며, 부처님은 중도로써 이 싸움을 가로질러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기꺼이 고통, 행복, 열정, 냉소 등 모든 변화를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마음을 열면 이 세상에는 고통과 행복이 함께 있는 것을 이해하는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세상은 기쁨 · 고통, 오르막 · 내리막, 밝음 · 어둠, 더위 · 추위 등 이원적(二元的)으로 이루어져있다. 두 부분은 동시에 일어난다. 행복만을 찾으려고 해도 고통은 또 다른 운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마음을 열기 위해선 먼저 고통의 참 모습을 알아야 한다. 몸과 마음은 고통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명상 속에서 맞부딪친 고통은 그냥 보고 헤아리면 된다. 유난히 정신을 집중한다든지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단지 보고 헤아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귀중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

어떤 고통이든지 극복하라. 우리는 고통을 감당해낼 능력이 있다. 세상의 어머니는 자신의 심장에 세상의 고통을 담는다. 우리는 그 심장의 일부이며, 고통의 일부분은 우리의 몫이다. 연민보다는 즐거움으로 고통을 대해야 한다. 수행의 자세는 갓 피어난 꽃과 같다. 비 · 바람을 묵묵히 견디며 피어나는 꽃처럼 가만히 앉아 고통을 보고 경험할 때, 고통은 어느새 사라져 버린다.

보고,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래 머무를 수 있을까,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당신 스스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는 것은 스스로를 결박하는 것이 아닐까.

마음은 인내의 여정으로 챙겨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자질구레한 일들을 남에게 시키지 않고 손수하는 것, 이를 테면 식사 후에 조심스레 설거이를 하거나, 마음을 챙겨 얌전하게 덜거덕대지 않고 집안 일을 하는 것들은 선정 계발에 도움이 되고 수행을 쉽게 만들어 준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일상의 일부분이 되어, 그 속에서 생생한 수행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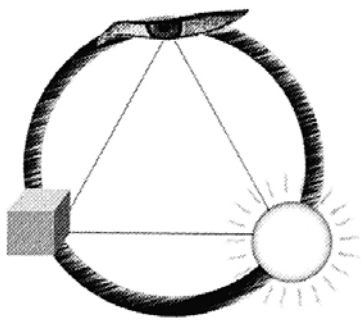
중도는 이 터전에서 우리의 의식을 일깨우는 첫 계단이며, 따라서 우리가 일생을 통해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어떤 나라이건 부정과 착취가 있고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만약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면 이 지구의 에너지와 식량을 충분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도, 중도는 우리의 조국 가족 종교만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 사랑은 탐욕, 집착, 증오, 무지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해 고통이 여전히 답습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오종욱 기자

과 학 산 책

양자역학 (下)



지난 시간에 이어 전자를 이용하여 이중 구멍 실험을 계속해보자. 이제 전자총을 조정하여 전자가 연속하여 무더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개씩 나오도록 한다. 그래서 전자와 전자 사이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간섭이 없도록 했기 때문에 실험 결과는 총알의 경우와 비슷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험결과는 그와 반대로 전자가 두 개의 구멍을 모두 통과한 듯 나타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자는 입자이며 입자는 파동과는 달리 두 장소를 동시에 통과할 수 없다. 실제로 전자가 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벽 뒤에 불빛을 비추어 전자가 어떤 구멍을 통과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든 다음 실험을 다시 해본다. 그러면 두 개의 구멍 중 단지 한 개의 구멍에서만 전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 그러므로 전자는 한 개의 구멍만을 통과한다고 결론짓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결과는 바로 전의 실험 결과와는 달리 물결 모양이 아니라 총알 실험의 것과 같다.

분명히 빛이 문제인 것 같다. 아마도 우리가 조명의 강도를 줄여 조명으로 사용하는 빛의 에너지를 줄이면 구멍을 통과하는 전자를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이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빛의 주파수를 줄여 빛 에너지를 줄이면 전자에 쏘여지는 빛 에너지가 작아져 전자가 빛에 의한 영향을 덜 받게 된다. 주파수를 낮추고 실험을 다시 해보자. 우리는 총알을 사용한 실험의 결과를 얻는다. 더 낮추면 파동과 같은 모양의 결과를 얻기 시작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빛의 주파수를 낮추는 것은 빛의 파장을 증가시킨다. 빛의 주파수가 충분히 낮아 빛의 파동 모양이 나타나게 될 때면 빛의 파장이 두 구멍사이의 간격 보다 더 길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구멍으로 전자가 지나갔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 이는 어떤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그 물체보다 작은 크기의 빛을 쪼여야 한다는 원리(해상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주관과 객관 서로 연결

빛 비추면 전자입자 파동으로 바뀌듯

실험 관찰자가 관찰대상에 영향 미쳐

이 일련의 실험은 양자역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교훈을 제공한다. 즉, 관찰은 관찰이 행해지는 실험의 맥락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간단히 전자가 입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면 이미 그렇지는 않다는 증거를 보았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두 구멍 실험을 통해 전자를 관찰하면 입자처럼 행동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조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려면 우리는 다른 실험을 해야만 한다. 또한 우리가 어떤 실험을 계획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의 성질을 가정한다. 그리고 그 가정하에서 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계획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관찰 대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대표적인 관찰 방법은 눈으로 보는 것이다.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관찰 대상에 부딪쳐 반사되는 빛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려는 의도는 이미 빛을 그 관찰 대상에 쪼이게 하고 그 빛의 쪼임은 관찰 대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세계에서는 빛의 쪼임으로 인한 영향이 적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자의 세계처럼 작은 입자의 세계에서는 빛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관찰하려는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고는 대상을 관찰할 수 없다.

이는 빛뿐만 아니라 관찰을 위해 동원되는 모든 방법들이 관찰 대상에 영향을 필연적으로 미치게 된다. 그래서 관찰대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찰자란 적어도 양자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써 물리학에서는 양자역학의 출현으로 객관(관찰대상)과 주관(관찰자)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게 된 것이다.

〈조원희 본사전략정보실장〉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어놓았던 동판을 모두 걸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전북 남원 실상사 약사전. 보물 제41호인 철제여래좌상이 봉안된 곳이지만, 흰개미 공격을 받아 정면 출입구 기둥 아래쪽이 손이 들어갈 정도로 심하게 패여있다. 흰개미는 기둥 아래에서 위로 이동, 결국 서까래와 자붕까지도 공격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

아름드리 기둥도 주저 앉는다

"흰개미들이 목조문화재를 다 먹어치운다."

국보와 보물급 목조 문화재들이 나무를 갉아먹는 흰개미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임업연구원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하는 '임업연구사업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국보·보물 지정 목조 문화재 69개소 가운데 전남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국보 제13호), 충북 보은 법주사 대웅전(보물 제915호), 전남 순천 선암사 극락전(유형문화재) 등 33개소가 흰개미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부지역의 사찰 대부분이 흰개미 피해를 받고 있지만, 목조 문화재를 개·보수하는 목수조차 흰개미를 잘 알지못해 식해(食害)중인 목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피해실태 임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위사 극락보전, 법주사 대웅전, 실상사 극락전 등은 흰개미가 나무를 갉아먹는 과정에서 생긴 누런 나무가루가 문틈마다 2~3mm 두께로 쌓여 있었다. 특히 흰개미는 대들보 위쪽과 같이 잘 보이지 않는 지붕 구조물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커 시급한 조사가 요구된다.

경남 양산 통도사 약사전의 기둥 8개 가운데 5개가 흰개미의 공격을 받았다. 밑둥을 갉아먹어 오른쪽 기둥은 주춧돌과 기둥 사이에 손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생겼으며 위 왼쪽귀퉁이 기둥은 손 닿는 부분까지 속이 비어 두드리면 '통통' 소리가 날 정도.

경북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국보 제14호)은 바닥에 약 1cm 두께의 스펀지를 깔아 습기가 건물 내부 기둥쪽으로 집중 방출돼 습기로 녹녹해진 기둥은 흰개미에게 최상의 먹이가 된다. 그러나 사찰측은 흰개미는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습기제거를 위해 기둥 밑 주춧돌에 휴지를 깔고 제습제를 갖다 놓는 정도의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흰개미가 기둥은 물론 옆의 탱화도 갉아먹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충남 공주군 마곡사 대웅보전(보물 제802호)의 지붕은 보수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비가 샌 흑적이 역력하고, 정문 아래 축 가로목은 흰개미 피해로 추측되는 5cm 크기의 홈이 패여있다. 습기찬 소나무를 좋는 흰개미의 속성을 생각하면, 머지 않아 대웅보전 서까래까지도 흰개미의 습격을 예상할 수 있다.

전남 영광군 불갑사 대웅전(보물 제830호)의 왼쪽과 오른쪽 앞 기둥은 마치 산탄총 맞은 듯 수많은 작은 구멍이 나 있으며, 3m 높이까지 빈 소리가 난다. 이 대웅전은 지금껏 10개 기둥 가운데 4개를 완전 교체했고, 나머지는 기둥 아래쪽을 교체했다. 흰개미의 엄청난 먹성 때문이다.

마루·대들보 등 닥치는대로 갉아먹어
관리소홀-마구잡이식 개·보수 '방제 소홀'

대책은 없나 살충제 훈증처리 일반적 퇴치방법

보물 제41호 철제 여래좌상이 있는 전북 남원 실상사 약사전은 흰개미 피해뿐 아니라 빗물 누수로 건물 상층부가 썩어 대들보를 버팀목으로 받쳤고, 전남 순천 선암사 대웅전은 흰개미 피해로 기둥과 주춧돌 사이에 손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생겼다. 또 강릉 개압사 대웅전(보물 제292호), 해남 대둔사 천불전(유형문화재), 완주 송광사 일주문(유형문화재)도 흰개미 피해로 기둥이 부식돼 손으로 건드리면 바스러진다.

흰개미의 피해는 이쯤해서 끝나지 않는다. 흰개미의 공격을 당한 목조건축물들은 건물을 받치는 목재들이 약해져 갑제 귀신사 대적광전(보물 제826호), 영주 부석사 조사당(국보 제19호)과 같이 기둥이 기울고 건물이 비틀어지는가 하면, 화엄사 대웅전과 같이 흰개미가 파먹은 자리는 다른 나무로 교체 또는 시멘트로 메워지는 등 절름발이 문화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관리현황 문화재청은 "98년 4월 해인사에서 흰개미가 발견된 뒤 일선 문화재관리를 맡은 시·도에 지역 문화재의 흰개미 피해를 유의해 살피라고 지시했으나 피해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말할 뿐이다.

목조건물에 대한 관계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지금도 사찰 목조 문화재들이 흰개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제시가 98년 12월 11일 및 99년 6월 29일 귀신사 대적광전(보물 제826호)에 대한 점검 일지에는 '이상없다'고 나와 있으나, 대적광전은 현재 흰개미 피해로 기둥과 마루가 기울고 보와 벽이 뒤틀려 갈라지는 등 붕괴위험에 처해 있다.

또 문화재청에 등록된 목수들이 흰개미 피해사찰을 개·보수하면서도 흰개미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목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임업연구소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개·보수 과정을 밟았던 사찰 목조건축물들이 유독 흰개미의 목표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조물 대들보를 세울 곳에 소금과 숯을 재웠던 선대의 지혜가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99년 초 준공한 귀신사 영산전의 대들보를 흰개미가 계속 파먹고 있어 바닥에 나무가루가 허옇게 뿌려져 있다. 전남 구례군 화엄사에서 짓고 있는 1백30평 규모의 '강학당'의 경우 현재 16여억원이 투입돼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사용목재를 방부처리 하지 않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방제대책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목조문화재가 충해로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훈증처리.

이 방법은 흰개미 침투지역을 천으로 완전히 도장한 뒤 살충제인 메틸브로 마이드 가스를 수일간 주입, 약제가 흰개미 집까지 침투하도록 해 흰개미를 퇴치하는 것.

그러나 이동흡박사(농학·임업연구원)는 "침투한 흰개미의 피해를 즉일 수 있는 방법은 훈증처리 외에는 사실상 보존대책이 없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흰개미는 땅속 50~150cm 깊이에 집을 짓고 근처 수백m까지 원정을 나가 목재를 갉아먹는 속성 때문에 살충제가 흰개미 집까지 도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구례 화엄사 목조건물에 대한 방충·방염작업을 해왔던 공생개발주식회사 박용식 과장도 "흰개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재를 방충처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가압' 방부처리와 '유용·수용성' 방부처리. '가압처리'는 기계적 압력차를 이용해 목재에 방부제를 침투시키는 것이고, '유용·수용성' 방부처리는 등유 및 물을 이용, 방부제를 투입하는 것.

또 사용목재는 가능한 자연과 격리시켜야 한다. 옛날에는 목조건축물을 축조할 때 터파기 작업에 숯과 소금을 2~3 가마니씩 다져놓고 주춧돌과 목재기둥을 올렸다. 해충이 목재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에는 토양을 흰개미 방충제로 '살균처리'하는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글=오종욱 기자(gobacou@buddhapia.com)
사진제공=중앙일보사

흰개미

1만~10만마리 집단서식
소나무에 치명적 해충

왠만한 크기의 목조건물을 두 세달 안에 먹어치울 정도로 무서운 식성을 가진 해충, 흰개미. 이 치명적인 해충은 부드러운 소나무를 유난히 좋아해 대부분 소나무로 만들어진 사찰 문화재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임업연구원에 따르면 흰개미는 1920년대까지 광양·개성 등 이북지역과 서해안에 서식했으나, 현재는 전국 지역에서 출몰하고 있다고 한다. 흰개미는 땅속 50~150cm 깊이에 집을 짓고 근처 수백m 내외에 있는 목재를 갉아먹는다. 현재 국내에서 발견된 흰개미의 종류는 일본의 규슈(九州) 흰개미, 몸길이 2~3mm 정도로 1만~10만마리 정도가 무리를 이뤄 살고, 번식력 또한 뛰어나다.

따라서 흰개미를 퇴치하려면 땅속의 집을 찾아 제거해야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아직까지 흰개미의 땅속 집이 발견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동흡박사(농학·임업연구원)는 "흰개미 집단은 한 곳에 평균 30년을 살며 근처 이곳 저곳에 계속 피해를 주는게 습성"이라며 "한때 흰개미 피해를 받았던 곳은 현재 흰개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방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 봉정사 누각. 앞쪽 기둥이 산탄총을 맞은듯 수많은 작은 구멍이 나있다. 흰개미가 파먹은 흔적이다.

목조 지정문화재 흰개미 피해 사례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국보 제13호) 주춧돌과 기둥 사이에 틈 발생
해남 대둔사	천불전(유형문화재) 기둥이 부식돼 손으로 건드려도 부서짐
남원 실상사	극락전(유형문화재) 주춧돌과 기둥 사이에 틈 발생
영광 불갑사	대웅전(보물 제830호) 기둥 모두 완전 또는 부분 교체
순천 선암사	대웅전(유형문화재) 기둥과 주춧돌 사이 틈 발생
완주 송광사	일주문(유형문화재) 기둥이 부식돼 손으로 건드려도 부서짐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보물 제826호) 기둥이 기울고 건물이 비틀림
보은 법주사	대웅전(보물 제915호) 주춧돌과 기둥 사이에 틈 발생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보물 제802호) 정문 가로목 5cm 크기의 홈이 패임
양산 통도사	약사전(유형문화재) 주춧돌과 기둥 사이에 틈 발생
영주 부석사	조사당(국보 제19호) 기둥이 기울고 건물이 비틀림
부안 개암사	대웅전(보물 제292호) 기둥이 부식돼 손으로 건드려도 부서짐


◇전북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보물 제826호). 거의 모든 기둥이 흰개미 피해를 입어 마루바닥의 널판지가 떨어져 나가고 기울어졌다.


◇얼굴과 어깨까지는 도드라지게 새기고 그 밑은 간략하게 선각으로 처리한 덕주사 마애불.

마애불을 찾아서

덕주사 마애불

얼굴 고부조로 조각…몸은 선각
고려시대 거불기법…높이 13m

거대한 암벽 남면에 조각된 이 마애불은 전체 높이가 13m나 되는데 얼굴은 고부조로 조각하고 신체는 선각하였다. 긴 눈, 커다란 코, 축 늘어진 턱 등은 고려시대 거불조성에서 흔히 보이는 수법으로 비만한 얼굴의 특징을 뚜렷이 강조하고 있다. 선각된 신체는 평면적인 체구이지만 미량감이 넘치며 통견의 법의는 늘어져 힘이 없지만 양다리의 통심타원형 의문 등으로 가하학적인 역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른손은 가슴까지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손등을 보이고 있다. 마애불의 양어깨위 좌우에는 사각형의 건물 가구공(架構孔)들이 남아있어 조성당시에는 목조전실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충북 제천시 한수면에 소재하며 보물 제406호로 지정돼 있다.

글·사진=불자포교사진연합회 제공
(011-337-7312)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 (99.9%)카드 에..

▲앞면 달마도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해탈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해어 수맥을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앤씨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위에 새겨서 상품화(실용신안등록 No24266호) 했다. 천만불자 특별 보시 보급품으로 선보여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카드는 앞면에 달마도의 대가 매헌 윤종우 선생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찢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님들의 불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할인은 물론 앞뒷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본, 부적, 이름 등 어떠한 문안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달 가능하며 최고의 정신 달마도를 고급 표구액자(27cm×32cm)화한 액자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매헌 윤종우선생님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영쇠고리 순금판 상반신 달마도 영쇠고리 1개 : 1만원, 3개(set) : 2만원에 판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제조판매원: 한국 지.앤.씨 (24시간 공유팩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영업점 모집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⑧

聽我言說 從朝至暮 十二時中
청아언설 종조지모 십이시중
或見或聞 或笑或語 或瞋或喜
혹견혹문 혹소혹어 혹진혹희
或是或非 種種施爲運轉 且道畢
혹시혹비 종종시위운전 차도필
竟是誰 能伊陰運轉施爲耶
경시수 능이마운전시위야
若言色身運轉 何故有人 一念命終
약언색신운전 하고유인 일념명종
都未壞爛 卽眼不自見 耳不能聞
도미괴란 즉안부자견 이불능문
鼻不辨香 舌不談論 身不動搖
비불변향 설부담론 신부동요
手不執捉 足不運奔耶
수불집착 족불운분야
是知能見聞動作 必是汝本心
시지능견문동작 필시여본심
不是汝色身也
불시여색신야
況此色身 四大性空 如鏡中像
황차색신 사대성공 여경중상
亦如水月 豈能了了常知 明明不昧
역여본심 기능요요상지 명명불매
感而遂通恒沙妙用也 故云神通

길고, 나무를 운반하는데 있다' 하였다. 즉 물을 길고 나무를 나르는 일상의 생활을 뜻한다.

且入理多端 指汝一門 令汝還源
차입리다단 지여일문 영여환원
汝還聞鴉鳴鵲噪之聲麼 曰聞
여환문아명작조지성마 왈문
曰汝返聞汝聞性 還有許多聲麼 曰
왈여반문여문성 환유허다성마 왈
到這裏 一切聲一切分別 俱不可得
도지리 일체성일체분별 구불가득
曰奇哉奇哉 此是觀音入理之門
왈기재기재 차시관음입리지문
我更問爾 爾道到這裏 一切聲
아갱문이 이도도저리 일체성
一切分別 總不可得 旣不可得
일체분별 총불가득 기불가득
當伊麼時 莫是虛空麼 曰元來不空
당이마시 막시허공마 왈원래불공
明明不昧 曰作麼生 是不空之體
명명불매 왈작마생 시불공지체
曰亦無相貌 言之不可及
왈역무상모 언지불가급
曰此是諸佛諸祖游命 更莫疑也

보고 듣고 말하고 동작하는 것은 그대의 본심이지 육신이 아니다

감이수통항사묘용야 고운신통
幷妙用 運水及搬柴
병묘용 운수급반시
왈차시제불제조수명 갱막의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고, 듣고, 웃고, 말하며, 혹은 성내거나 기뻐하거나 또는 옳다, 그르다 하는 갖가지의 행위와 동작은 필경 누가 그렇게 하게 하는가를 말해보라. 만약 육신이 동작하게 한다면, 어째서 금방 명이 끊어진 사람의 몸은 아직 썩지 않았는데도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고, 코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혀는 말을 하지 못하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잡지 못하고, 발은 걷지 못하는가? 이러므로 보고, 듣고, 동작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본심이지 그대의 육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육신을 이루고 있는 사대(四大: 地.水.火.風)의 성품은 비어서 거울 속의 형상과 같고 물 속의 달과 같은데, 어떻게 항상 뚜렷이 알고, 분명하고 어둡지 않아 깬지스강의 모래수같이 한량없는 묘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신통과 묘한 작용은 물을 길고 나무를 운반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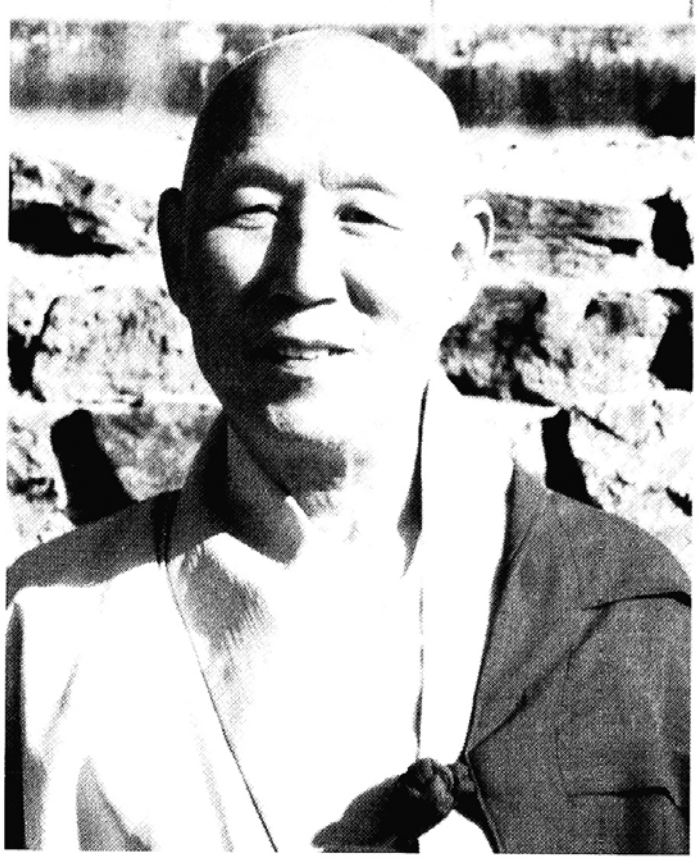
그리고 진리에 들어가는 길은 많지만 그대에게 한 길을 가리켜서 그대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대는 저 까마귀 우는 소리와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가?" "예 듣습니다." "그대는 돌이켜서 그대가 듣고 있다는 성품을 들어 보아라. 거기에도 많은 소리가 있는가?" "거기에는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없습니다." "기특하고 기특하구나. 이것이 바로 관음보살이 진리에 들어간 문이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는 거기에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미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면 그러한 때는 허공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원래 공하지 않아서 밝고 밝아 어둡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공하지 않은 것의 본체인가?"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생명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나쁜생각을 하나씩

서운스님 〈서곡정사 주지〉



· 1914년 강원도 강릉 생
· 21년 호응스님을 은사로 득도
· 33년 계룡산 동학사 사교과 졸
· 36년 금강산 유점사 대교과 졸
· 43~47년 동해 삼화사 주지
· 47년~57년 치악산 상원사 주지
· 71년~75년 영월 보덕사주지
· 75년~현재 영월 서곡정사에 주석

바깥 세상은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모양입니다만 이곳 강원도 두메 산골의 산사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계절이 바뀔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주욱 흘러 내리는 한여름 전국의 선방 스님들은 하안거 결제 를 하고, 백중날 백일 용맹 정진을 마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입재와 회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입재는 시작으로 회향은 끝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작과 끝의 의미가 아닙니다. 입재란 기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삶에 대해서 조촐히 되새겨보고, 마음을 깨끗이 닦겠다는 다짐의 출발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에 비해 회향이란 의미는 기도로써 쌓은 공덕을 다른 사람과 나눠 갖는 것을 말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기도해서 얻어진 공덕은 나혼자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했을 지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내 기도의 덕을 골고루 나눠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도 정신인 것입니다.

공덕은 나눠 가질수록 커집니다. 그래야만 더 행복해 집니다. 바로 여기에 회향의 참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향이란 단지 끝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발원의 씨앗을 심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불자들 가운데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원을 세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건강, 사업성취 등 생노병사에 닿아 있는 절박한 소망들이지요. 이런 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살이고자 한다면 그런 발원보다는 마음 하나 청정 하기를 발원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기도의 공덕은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또 이웃들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의 공덕은 나누는 것이고 이웃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말 자체가 회향이라는 뜻입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기에 가장 좋고 바람직한 것이 너나 없이 바라는 복(福)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을 짓고 나누고자 한다면 우선 각자 스스로 복받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실천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정히 하는 것입니다. 삼업이라면 신(身)·구(口)·의(意)를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몸으로 짓는 행위를 청정히 하는 것입니다. 또 입으로 짓는 네가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 즉 진실이 아닌 말을 하지 말 것. 둘째는 입에 발린 쓸데 없는 말이나 아첨을 하지 말 것. 셋째는 양설이라 해서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 것. 넷째는 악담 즉 상스러운 말이나 욕을 하지 말 것 등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업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뜻, 즉 마음으로써 짓는 악업이 있습니다. 바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이 모든 행동을 먼저 결정하고 있다"고 설하셨지요. 이 말씀을 바꾸어 표현하면 마음으로부터 말과 몸으로 짓는 행위들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업(業)이란 마음의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선업이든, 악업이든 결정짓고 나서 몸의 업이나 말의 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절에 들어와 부처님을 모시고 산지도 70여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문득 삼업을 짓고 살아가는 내자신을 돌이켜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나는 7살 때 동해 삼화사에서 동진 출가해 행자 생활을

"삼독 벗어나 평화로우려면 자기 참모습 스스로 참구하세요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어요"

시작했습니다. 조실부모한 내게는 부처님이 부모요 절이 집이었습니다. 은사는 호응스님이셨는데 매우 엄격하신 분이었지요. 부모에게 한창 응석을 부릴 나이 인데도 청소와 공양 짓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사시사철 어김없이 예불 시간이 되면 나를 잡아 깨워 은사 스님과 함께 졸린 눈을 비비면서 아침 예불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만약 스님이 출타하셨을 경우 돌아오셔서 불단에 향을 피운 흔적이 없으면 예불을 모시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렸을 때 엄하게 받은 교육 덕분에 70여년동안 예불 모시는 일 만큼은 하늘이 두쪽이 나도 했습니다. 만행이나 포행을 나가도 작은 분상을 모시고 나가 야외에서 시간에 맞춰 예불을 모실 정도이니까요.

이렇게 엄격하셨던 은사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깨우치도록 유도 하셨습니다. 자상하게 무엇인가를 일일이 설명해 주시는 분은 아니셨지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스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출가의 목적입니다.

스님은 〈오복덕전경(五福德田經)〉을 인용해 "첫째 출가는 생사를 벗어내려는 마음을 내어 수도하기 위함이며 둘째 사치를 버리고 법복(法服)을 입기 위함이며 셋째 목숨을 던져 도법(道法)을 따르기 위함이며 넷째 모든 애정을 버리고 사랑도 미움도 초월하기 위함이며 다섯째 대승법을 간절히 구하여 중생을 건지기 위함이다"고 말하셨습니다.

나는 스님의 곁을 떠나 22세때에는 금강산 유점사 대교과를 졸업하고 24세가 되어 금강산 마하연 선방에서 두철을 참선 정진했습니다. 마하연 선방은 당시 북쪽에서 가장 큰 선방으로 1백여명의 대중스님들이 수행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철저한 규율과 통제속에서 정진 했습니다. 각자의 근기에 따라 화두참선, 염불, 기도 등 수행할때는 어떤 방법을 택해도 상관없지만 나는 처음부터 화두 참선에만 매달렸습니다.

도서출판 황금꽃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특이할 만한

구도의 대지침서

제3의 눈을 찾아서

저자 도엽



제3의 눈의 개안(開眼)은 모든 구도의 99%를 차지하는 구도의 대본(大本)이다.
이 책은 저자의 30년 간의 수행과 체득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구도서이다.

석가모니 부처나 보살들의 이마에 제3의 눈의 표시가 있는데, 그것을 '백호(白毫)' 혹은 '영안(靈眼)' 이라고 한다. 부처님도 '동방의 샛별' 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동방의 샛별은 옛날부터 '영안' 의 고유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름이다. 또는 부처님은 비파싸나 호흡법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비파싸나 호흡법은 영안 집중과 분리할 수 없는 호흡법이다.

제3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대로 이루어진다.
제3의 눈을 열자! 이 책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가 12,000원

"제3의 눈은 유체의 부분으로 존재한다. 그대가 죽을 때, 그대의 육체는 죽지만 제3의 눈은 그대와 함께 이동한다. 그것은 새로 탄생한다. 두 번째 육체가 죽지 않는다면 그대는 탄생, 죽음, 재탄생, 재죽음의 반복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제3의 눈의 계발이, 이 지상에서는 마지막 단계이다. 그 다음은 부처, 신의 단계, 우주와 하나가 되는 단계뿐이다. 그는 지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제3의 눈이 활성화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인가의 예속(隷屬)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가미사마, 또는 귀신, 조상(祖上)를 등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명상 중에 나를 만나면, 즉시 죽여라"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 본문 중에서 –

도서출판 황금꽃에서 판매하는 책이나 테입들을 전화나 팩스로 1회 주문시 3만 원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중, 매년 5분을 추첨하여 인도 무나에 있는 '오쇼 명상 휴양지'로 초대합니다

'고타마 붓다'의 영혼을 받아들인 오쇼의 이야기 !

– '무심(無心), 그 영원의 꽃들' 인 20명의 선사(禪師)들에 대한 강의 –

고타마 붓다 / 보현(普賢)
파산 / 석두(石頭)
남전(南泉) / 수산주(修山主)
대수(大隨) / 앙산(仰山)
대자(大慈) / 위산
마조(馬祖) / 유관(惟寬)
문수(文殊) / 장경(章敬)
바쇼(Basho) / 장사(長沙)
법안(法眼) / 조주(趙州)
보리달마(菩提達磨) / 혜각(慧覺)



정가 9,000원

5월 19일 출간

무심 그 영원의 꽃들

저자 오쇼 / 옮긴이 류원장

일본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신도(神道) 신사(神社)의 영능력자인 카츠에 이시다는 오쇼의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미륵불(彌勒佛, Maitreya The Buddha)이 들어간 그 사람이다. 그는 21세기의 유토피아를 창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수많은 파괴적인 힘이 그에 맞서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를 사탄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결코, 독극물에 중독된 사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사탄은 흔히 독극물을 중독시키는 자이지, 독극물에 중독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 사람, 오쇼를 보호해야 한다. 부처가 그에게 들어갔다."



카츠에 이시다

"7주 동안의 투쟁의 마지막 날, 모든 고통이 나의 육체로부터 사라졌다. 그것은 거의 기적처럼 일어났다.
그 마지막 날 밤, 한밤중에 나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드문 일이었다. 아무도 나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나는 눈을 떠야 했다. 방 안은 무척 어두웠다. 그러나 나는 문득 순수한 빛으로 이루어진 한 인간이 닫힌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장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손님은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향기로웠다. 나는 그를 선뜻 내 가슴 안의 침묵 속으로 받아들였다.
이 순수한 빛의 몸은 다름 아닌 '고타마 붓다' 였다.
그대는 지금도 나의 눈 속에서 내가 내 안으로 흡수하였던 그 불꽃을 볼 수 있다. 2,500년 동안 은신처를 찾아 지구를 배회했던 불꽃을." – 오쇼 –

도서출판 황금꽃 전화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큰스님 수행한담

제거하는 것이 수행”



◇6.25 전쟁때 소실된 태백산 보덕사 천왕문에서 삼척 감로사주지 보광스님, 前 화엄사주지 의석스님 등 도반들과 함께한 서운스님(사진 왼쪽끝)

“인간사 자초지종 마음에서 시작 마음으로 끝나니 마음의 눈 떠야죠”

마음이 모든 행동을 먼저 결정 합니다

쌓은 공덕 다른사람과 나누는 것 ‘회향’

부처님이 계신던 정법시대에는 설법만 듣고도 깨쳤으나 지금은 하근기 시대라서 그냥으로는 안됩니다. 화두를 짓든지 기도를 하든지 각자의 근기에 맞는 일관된 수행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참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두를 드는 것입니다. 화두란 비유컨데 소(마음)를 길들이는 말뚝과 같은 것입니다. 1천7백가지 공안(화두)이 말은 달라도 역할은 같습니다. 법당벽에 흔히 그려진 심우도를 예로 들어보지요. 산속의 소는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용서를 모르고 욕심과 투쟁심이 가득찬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를 찾아 말뚝에 묶고 길들이면 코뚜레를 꿸수도 있습니다. 말뚝은 풀이나 돌, 참나무 등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소를 길들이는 것이 목적이지 말뚝은 의미가 없지요. 화두를 안들어도 공부가 잘된다면 굳이 화두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끈을 당기지 않아도 잘 따라온다면 끈도 필요 없지요. 나중엔 소와 사람이 일체가 됐다가 사람도 소도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바로 이 상태가 번뇌 망상이 제거된 때지요. 또 검정소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희어지는 것은 업장소멸을 나타냅니다.

선지식 스님네들이 화두의 참뜻을 몰라 그 의심이 마음 가운데 꽉 맺혀서 자나깨나 그 의심을 놓을 수가 없게 되면 이것은 참으로 생사를 해탈하고자 하는 진실한 발심자로서의 의심인 것이지요. 하지만 만약 얼마동안은 의심이 죽 잘 나가다가 가끔은 의심이 없어지곤 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신심과 결단심, 또 성심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것은 바로 번뇌망상에 끌리고 잠든 상태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마하연 선방에서 안거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수마와의 싸움이었지요. 잠이 몰려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잠에 쏠려 들어가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이 오기 시작하면 벌써 눈꺼풀이 무겁고 뻣뻣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얼른 다시 정신을 챙겨서 몸을 단정히 앉고 입속말로 조용하게 화두를 한 두 번 들먹거리면 잠이 달아나고 온전한 마음으로 참선이 잘 되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 잠이 완전히 물러가지 아니하며 화두가 똑똑히 의심되지 아니하고 희미할 때에는 일어나 선방 마당에 내려서서 발끝만을 디디고 수십보를 천천히 걸으면 눈이 가뿐해지고 정신이 깨끗해져 다시 정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참선 비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이다(一切唯心)’라고 말합니다. 마음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즉심시불(卽心是佛)’이라고도 합니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말입니다. 종합해 말하면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팔만대장경에 담겨 있는 만큼 불교를 알려면 팔만대장경을 다 봐야 할텐데 누가 그 많은 팔만대장경을 다 보겠습니까. 팔만대장경이 그토록 많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마음 ‘심(心)’자 한자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33세 치악산 상원사 주지로 있을 때 절실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였는데 인민군들이 상원사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신도들이 피신을 하라는 겁니다. 그 때 상원사에는 절일을 도맡아 하는 부목과 행자스님, 기도하러 온 학생 등 넷이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를 빼고 세명은 급히 마을로 내려 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목숨과도 같은 상원사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과 운명을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보광전에서 계속 기도를 올렸습니다. 인민군들도 우리와 똑같은 중생들이고 부처님의 제자들인데 사상이 틀리다고 해서 분별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오히려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민군이 총뿌리를 겨누고 들이 닥치자 사실 두렵기도 했지만, 성심 성의껏 공양도 지어주고 그들의 업장소멸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인민군들은 조용히 절을 떠나 갔습니다.

오히려 마을로 피신했던 부목과 행자스님, 학생은 인민군들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은 시신을 보니 ‘문여하사 귀하처’(問如何事 歸何處)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죽은 사람에게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물음이 합당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허망하고 덧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부터 불법만이 영원한 대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오묘한 진리란걸 깨닫고 정진 또 정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와같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닥쳐도 좋은 마음을 먹으면 선한 결과를 낳는 법입니다. 팔만대장경도 전체를 뚤뚤 뭉치면 심(心)자 한자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한자의 문제만 옳게 해결하면 일체의 불교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체 만법을 다 통찰 할수 있고 삼세제불(三世諸佛)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인간사의 자초지종(自初至終)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마음의 눈을 뜨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자기의 본성, 즉 자성(自性)을 보는데 그것을 견성(見性)이라고 합니다.

나는 출가인들에게 오직 견성 성불을 위해 하루 24시간 항상 긴장하며 깨어 있으라고 권합니다. 속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수행자들처럼 항상 정진의 상태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성불에 대한 생각을 놓지 말았으면 합니다.

나는 금강산 유점사 마하연 선방에서 용맹정진 하던 시절부터 계속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주장자를 오른손에 잡고 무릎을 꿇은채 참선을 해왔습니다. 내가 예전에 노스님들에게 가르침을 배울 때에는 반드시 무릎을 꿇었으며 경내에서 스님들과 신도들을 마주치면 차수한 손을 들어 합장 반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그 옛날 엄격했던 수행자의 모습을 찾아 보기 어려워 안타깝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옛날 출가때 초발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무릎을 꿇고 참선을 합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나투다보면 마음이 청정해 지지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수행의 목적은 마음을 청정케 하는 것, 즉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점차 제거해서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하루동안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정진하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아무도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속의 참 모습을 스스로 탐구 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를 정진에 의해 해탈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정진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모든 어려움들이 차츰 사라질 것입니다. 내일은 더 쉬워지고 그 다음날은 더더욱 수월해 질 것입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나의 수행일기



이교재 〈강북구청 사진교실 강사〉

개심사스님의 무설법문에 방황 ‘끝’

전방부대 장병위문은 구도여행

피난민이란 명찰을 달고 타향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향민의 한 사람이다. 불교와의 첫 만남은 휴전 직후 큰형과 함께 강화도 전등사를 참배한 것이었다. 나는 그때 이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불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형으로부터 알게됐다. 역사속에서 만나고, 등산길에도 만나고, 무작정 길을 걷다가도 만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터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불교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젊은 나이 이지만 실향민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았을 뿐이다. 불자로서의 이러한 생활은 수년간 지속됐다. 언덕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것일까. 타향에서 열심히 노력해 직장내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가정도 나름대로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을 즈음 시련이 다가왔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몸과 마음이 함께 방황하게 되었고, 그 속도는 거침없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 때 내 인생의 좌표를 바로 잡아 준 스님이 계시다.



부처님께 답답한 마음이나마 속시원히 털어놓고 싶은 간절한 심정에서 절을 찾은 적이 있었다. 괴산 개심사였다. 그곳 주지스님은 나를 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차나 한잔 하자”시는 것이었다. 스님의 안내로 스님방에 들어가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 때만 해도 스님과 마주앉아 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때이고, 게다가 비구니스님과의 독대는 긴장을 갖기에 충분했다. 스님은 차를 우려내어 주셨다. 그리고 또 한잔을 주셨다. 몇잔을 마셨는데도 스님은 아무말씀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는지 모른다. 아주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긴 시간이었다. 그리고는 아무말도 없이 스님방을 빠져나왔다. 그후부터 나의 존재에 대해 곰곰히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것이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될 줄은 그 때는 전혀 몰랐다. 그리고 서서히 불교를 가깝게 접하면서 스님의 ‘말없음’이 무설법문인지도 알게 되었다. 분명 스님은 나를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남루한 모습과 표정을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대신 스스로 생각하게 설한 것이었다. 그 무설법문은 나에게 있어 사자후와 같은 큰 울림이었다. 물론 그때 나름대로 〈천수경〉을 중심으로 한 기도생활을 간단없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였으리라.

그후부터 나는 남은 인생을 부처님을 위해 살기로 했다. 그러나 방법을 몰랐다. 결국 92년 조계사 불교대학 문을 두드렸다. 이때부터 나는 나름대로의 신행활동을 시작했다. 2학년 때에는 군포교라는 이름으로 전방부대와 인연을 맺었고 현재 3곳을 매주 방문한다. 그중에서 강원도 백두산부대 신병교육대 법당을 자주 찾는다. 오지에 위치한 그곳은 훈련병들이 법회를 하는 자그마한 도량이다. 매월 수계식이 있는 날에는 떡을 해가지고 가서 훈련병들을 위로한다. 한달에 적게 가면 두번, 많이 갈 때는 다섯번도 간다.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에 차로 4시간 이상을 달려서 가고 또 돌아오는 먼 거리이다. 꼬박 하루가 걸리는 이날 마치 선재동자를 찾아가는 구도여행이자 수행의 날이다. 군법당에 도착하기 위한 4시간은 발심의 시간이고, 돌아오는 4시간은 회향의 시간인 셈이다. 이처럼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은 자칫하면 다람쥐 쳇바퀴도는 듯한 삶속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다.

〈금강경〉에서는 ‘무주상보시’를 가르쳐 주셨다. 보시행은 분명 불교의 여섯가지 실천덕목중에 하나다. 그러나 덕목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이라서 끊이지 않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다만 받은 것 중의 자그마한 일부분을 환원하고 싶음뿐인 것이다.

수행이든 보살행이든 죽는 날까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걸음을 계속 걷고 싶을 따름이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숭유억불에 묻힌 266칸 대찰

양주 회암사지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경기도 양주 회암사터. 거대한 당간지주가 대가람이었음을 말해준다. 목은 이색은 〈천보산 회암사수조기〉를 통해 가람의 건물들과 배치구조를 상세히 묘사, 당시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

가람의 장면들 11

99 순례문화의 해 THE YEAR OF ARIRETURE

1328년 인도승 지공이 세워
당간지주·부도·초석만 남아

이색 저서에 건물배치 상세
옛건물 모습 되살릴수 있어

경기도 양주군 회암면 회암리, 천보산 밑 넓은 평지에는 한때 조선 최대의 사찰이었던 회암사 터가 남아 있다. 거대한 당간지주, 괘불대, 부도들, 그리고 수십동에 달하는 건물 기단과 초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거대한 절터의 한쪽 끝에 현재의 소박한 회암사가 건립되어 있지만, 원래의 영화와는 전혀 무관한 사찰이다.

지금은 비록 폐허인 채로 남아있지만, 이 절을 세운 이는 그 유명한 인도승려 지공이었다고 하고, 그 제자인 나옹화상이 1376년경 크게 중창하게 된다.

1328년, 지공이 이곳에 절터를 정한 이유는 지형의 생김새가 서인도의 마란다 사원의 환경과 꼭 닮았기 때문이었고, 중국에서 고려로 귀환하는 나옹에게 회암사의 부흥을 명했다.

나옹은 중창불사 도중에 전국적 규모의 문수회를 개최했는데, 남녀 귀천을 막론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당국에서는 집회 금지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 신도들의 불심과 나옹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여, 당국의 제지가 통할 수 없었고, 이에 나옹을 경상도 길양 땅으로 귀양보냄으로써 원천 봉쇄를 의도했다. 노구의 나옹은 귀양 도중에 잠깐 들른 여주 신륵사에서 그만 입적하고 만다.

지공과 나옹에 이어 이 절과 깊은 관련을 맺은 이는 바로 조선 태조 이성계였고, 그의 종교적 대리자인 무학대사가 회암사를 후원함으로써 조선 초까지 그 찬란한 빛을 잃지 않았다. 고려말 조선초의 정국과 교단을 주름했던 지공-나옹-무학의 부도가 아직도 회암사지 뒤편, 천보산 자락에 나란히 남아 있어서 이 절의 유구한 정통성을 말해준다.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도 회암사는 전국적인 지도력을 가진 본산으로서, 한때 승려수가 3000명에 이르렀고, 명종 때 섭정이었던 문정왕후와 보우선사에 의해 다시 한번 중흥기를 맞기도 했었다. 그러나 문정왕후의 섭정이 끝나고, 보우선사는 사대부들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회암사의 스님들도 다 추방당하여, 건물은 있되 주인이 없는 폐찰이 되고 말았고, 어느 순간엔가 지상의 건물들은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오늘 날, 다시 회암사터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이 절의 찬란한 전통 때문은 아니다. 나옹스님이 중창한 지 600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모습을 언제든지 복원해 볼 수 있는 매우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기록을 남긴 이는 바로 고려말 충신이었던 목은 이색이다. 이색은 〈천보산회암사수조기〉라는 기록에서 이 절의 유래나 개인적 감상 뿐 아니라, 가람의 건물들과 배치구조를 상세하게 묘사했다. 예를 들어 "5칸의 보광전은 남향을 하고 있고, 보광전 뒤쪽에는 5칸 설법전이, 그 뒤로는 1칸 사리전이 배열되었다. 또 그 뒤로는 3칸의 정청이 있는데, 좌우로 각 23칸인 동서방장이 있다. 동방장 동쪽에는 3칸 나한전이, 서방장 서쪽에는 3칸 대장전이 있다…" 는 식으로 '대단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기록의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원래의 266칸 복원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다.

이 정도의 기록을 '대단히 자세하게' 라고 수식하는 이유는, 조선조의 사대부들 기록에서는 이처럼 사실적인 묘사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대부들이 경멸했던 불교 사찰은 더더욱 묘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색 역시 뛰어난 사대부였지만, 적어도 고려시대의 문인들은 불교 사찰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건강한 사실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 조선조의 문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보다는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를 더욱 중시 여겼다. 또한,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은 매우 하찮은 것으로 여겨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조선의 선비 가운데 가장 포용력이 컸던 퇴계 이황의 기록마저도 이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이황은 한때 안동의 봉정사에 기거하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봉정사 가람에 대한 묘사는 물론이고, 봉정사라는 사찰 이름마저도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봉정사 바로 앞에 지은 정자와 풍경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무수히 많은 시가를 통해 남기고 있다. 같은 성리학, 같은 문자를 가지고도 이처럼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다.

고려시대는 불교의 시대였다. 단지 종교적으로만 불교였던 것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습관, 사람들의 가치체계, 심지어 지식인들의 성향까지도 불교적이었다. 불교적인 기록은 구체적이며 사실적이다. 불교회화도, 조각도 그러하다. 불교가 지향하고 있는 대중성과 평등성이 그러한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회암사의 건물은 비록 사라져 버렸지만, 이색의 기록에 의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것도 고려시대 문학의 사실적 태도 때문이다.

현대불교 99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보관·팔찌등 장식 화려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상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상

서울 중계본동 학도암은 천보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단아한 암자이다. 전각과 산신각 굴법당이 있는 작은암자 학도암에는 그래서 높이 10m에 이르는 거대한 암석위에 선각된 마애관음보살상이 유난히 눈에 띈다.

고종7년 명성황후 민비의 불심으로 조성됐다는 마애관음보살좌상은 머리에 아미타여래의 화불을 모신 보관을 쓰고 있는데, 각 부분의 높고 낮음과 크기 작기 그리고 굵기 가늘기의 비례가 적정하다. 또 보관 테두리 양편 귓전 위에서부터 한줄식의 구슬달린 마름모 모양의 사슬장식이 양어깨에 얹히도록 드리워진 특징은 매우

균형·세련미 뛰어나
목조전실 흔적 보여
구한말 민비 조성설

세련되었으며 화려함과 위엄도 충분히 갖췄다. 머리의 두광도 감조를 위함인지 신광은 약하게 처리돼 있다.

눈은 가늘고 길며, 코는 두툼하며 입술은 아주 얇고 작다. 목에는 삼도가 그려져 있으며 가슴부분에 피며듭을 한 내의위에 통견의 천의를 걸치고 있다. 연화대좌 위로 걸쳐지는 하늘하늘한 천의 자락은 흐르는 듯 유연함이 자연스럽다.

특히 마애삼존불에는 불상앞에 목조전실을 마련했던 가구흔적이 있다. 수인은 하품중생이며 왼손 손목에는 귀자 무늬의 두꺼운 팔찌가 있어 장식이 화려한 보살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석불문화연구회 김시연회원은 "학도암 마애삼존불은 전체적인 조각기법이 뛰어나 보이지는 않지만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속에서 퇴화한 조각기법속에 유독 균형미를 보여 불교신앙이 깊은 장인의 손길로 만든 듯하다"고 말했다. 정리=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불사의 전당
▶천수천안 관음보살
부처님조성 전통 만불
(주) 불교조각원
서울사무소 (02)738-8447~8
대전사무소 (042)483-8466

송라사 약사불

안정감 갖춘 신라 불상

고증: 정영호 박사



◇강릉 송라사 약사불



강릉 송라사 약사불〈본지 230호 11면 참조〉은 몸체에 비해 하체가 커서 안정감을 보여주는 신라시대 불상이다.

오른손은 항마촉지인이며 왼손은 몸체에 비해 큰 약함을 들고 있는 상현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두상은 유난히 나발과 육계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짧은 목은 상도가 없고 두 어깨는 완만한 각을 이루어 근엄함을 드러내고 있다.

얼굴에는 백호공이 있는데 최근에 박아놓은 듯한 커다란 구슬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흠이다.

주름무늬를 길게 하고 입체감을 주기위해 다리를 울퉁불퉁하게 조각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돌부처 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 주소 : 우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 A X : (02)705-5229

BBS 불교방송 주간방송순서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내일만 바라고 살면 행복할 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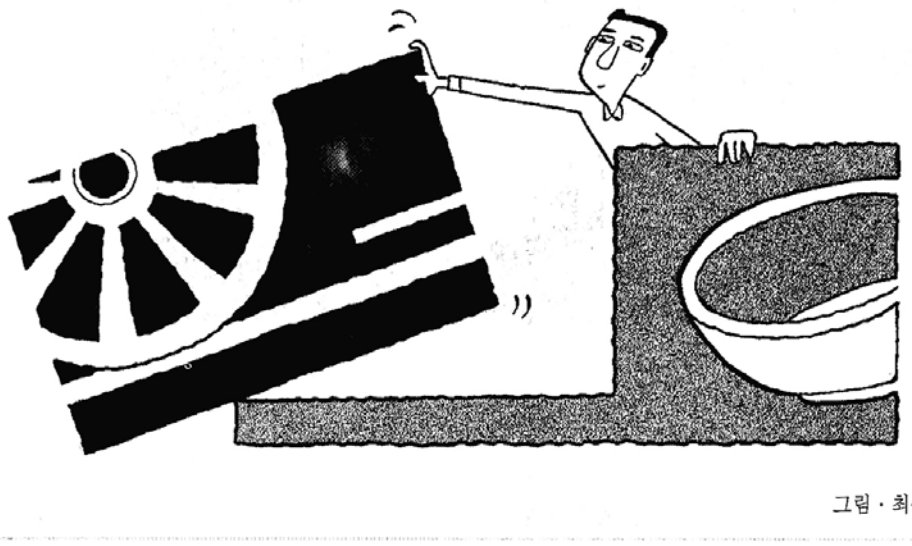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바로 지금 내마음을 통해서 진리 찾아요
무심속 무의세계서 물질세계 나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지요

문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직장생활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 여자 법우입니다. 매일 매일 똑같은 나날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 문득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다보니 매일 매일이 너무 단조롭기도 하고 과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타성에 젖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변화를 시도해야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너무 편하다 보니 배부른 소리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대로 심각하답니다. 남들처럼 가정을 갖고 싶기도 하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잘 안 되는군요. 조개껍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스님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이 바라는 행복이란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요. 현실에 만족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 자비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스님 저에게 시원한 감로법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늠름하고 좀 여유있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이 자랄 때 빼고 늙은 후를 빼고 살면서 얼마나 행복을 느꼈습니까? 이것저것 잘못되고 이것저것 걱정하는 것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행복이란 그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래도 놀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패기가 자기를 즐겁게 행복하게 해줍니다. 마음이란 너무나 광대하고 무변해서 마음이란 이름을 하나 가져보지만 마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마음을 씁니까? 그래서 마음은 없는 게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러고 돈도 안내고 쓰는 마음이라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마음은 항상 나를 말 한마디라도 유익하게 하고 또는 부부지간도 자식지간도 모두 누구나가 대신 살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파주고 깨달아주고 잠자주고 똥눠주고 또는 밥먹는 거 대신 해주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각기 모두 마음을 연구해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가난하게 하면
일체가 가난해지고
생각을 부자같이 하면
일체가 부자인것 입니다

예전에 어떤 시인이 봄을 찾아 밖으로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에는 복숭아꽃이 만발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산너머에는 행복이 있다고 미루어 짐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 일에는, 내달에는, 내년에는… 이렇게 내일과 저곳에다 희망을 걸고 사람들은 고된 현실을 살아나가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거짓 희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어저께에는 내일로 불리었으며, 그때 오늘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워 보였던 그날이 오늘로 된 지금 사람들은 오늘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다시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과 저곳만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저 먼 어느 곳에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결코 진리를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리는 선지식들에게만 있다고 믿고, 진리는 먼먼 훗날에야 있으며, 저 우주 끄트머리의 어떤 신비스런 나라에만 있다고 믿는 이들은 진리를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지 진리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밖에서 봄을 찾던 시인은 자기 집에서 그것을 만났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먼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어떤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위대한 스승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스승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처럼 되기 위해서는 나 또한 나의 마음을 되돌려야만 합니다.

선은 매우 쉬운것 같으면서도 매우 어려운것 같습니다.

禪에 대해 알고싶어요

문 스님 전 지금 혼란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뭔지... 산다는게 무엇입니까? 죽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고민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자연히 종교나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선(zen)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되었고 가장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스님께서도 선을 알고 계시겠지요. 선은 매우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전혀 모르겠어요. 선에서는 알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지 못할 것이라고 또 진리는 단순한 것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항상 변한다고 합니다. 제가 무지한걸까요?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것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도 부질없고... 스님은 라즈니쉬에 대해 아시나요?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은 기독교 신자와 싸웠습니다. 야기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그들은 자유롭습니까? 뭔가 중독된것 같아요. 하나님에 천국에... 주절주절 저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이 아니거든요. 스님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두 가지로 요약해서 표현을 해보죠. 우리들이 걸어다닐 때 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은 없어지고 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 또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 발은 무에서 한 발은 유에서 항상 떼어놓고 가니까 발자국을 뗀 사이가 없죠. 또 전력이 말입니다. 태양계에서 전력을 끌어쓰는데 우리가 그릇을 해놨기 때문에 태양열을 받아서 전력으로 쓸 수 있죠?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마음으로써 주장자를 완벽하게 세워 놓지 않는다면 태양열을 받아 쓸려고 장치를 해놓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태양열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는 말도 없고 들어온 게 보이지도 않지만 태양열은 들어와서 전력으로 흘러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빈 발 빈 손. 이 무심속에 무의 세계 정신 세계가 있기 때문에 유의 세계 물질 세계가 나온 것입니다. 검은 지평선도 역시 지·수·화·풍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주를 폭파시켰고, 우리가 지금 에너지가 보이지 않고,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눈 깜짝할 사이고 우리들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해서 불을 켜고 끄는 것만 알았지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건 못 보는 건데 진짜로 빈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 빈발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 대천세계를 한발로 디뎠고 우리들이 딛고 있는 이 발이 부처님 발 아님이 없기 때문에 한 발입니다. 부처님 손 아님이 없기 때문에 한 손이구요. 그 광대무변하고 묘한 도리는 마음공부를 하셔야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력으로써 말을 했고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못 보니까…, 우리가 불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알 수 있지만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이다 빈발이다 하는 거, 없다고 단정을 짓지 마시고 여러분이 빈 발 빈손이기 때문에 현실에 보이는 손, 보이는 발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 도리를 알게되면 생각이 달라져서 사는 것이 바뀔겁니다.

제삿밥 · 묘지 꼭 필요한지요

문 저는 현대불교 법공양 페이지를 보고 주인공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스님의 마음 찾는 법문은 그 어떤 법문보다 빨리 쉽게 찾을 수 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 펜을 들었습니다.

1. 죽은 다음 제삿밥을 꼭 먹어야 하나요. 안 먹는 방법은 없나요? 자손이 없는 사람은 제삿밥을 얻어먹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2. 죽은 다음 꼭 묘를 만들어야 합니까? 영가도 집이 있어야 합니까?

답 우리가 그 말을 하기 이전에 한번 이런 말을 해봅시다. 어떤분들은 조상님들 천도하는데 어떠한 관계로 스님께서는 우주떡 하나 놓고 하느냐고 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살면서 극난하게 살던 습이 남아서 죽어도 그 습을 떼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식을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죽어도 먹는 거, 살기 위해서 산다는 습이 그냥 두더지처럼 붙어서 자식들한테나 친척들한테나 모두가 자기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헤매고 돕니다. 그러면 그게 유전이 돼서 또 지금 산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끼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백일만 되면은, 돌아가시고 백일 안 되도 위패를 바로 살라버려도 다시금 위패를 해서 또 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딨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때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49일이 돼도 100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듯이…



닥치는 경계가 업보냐 아니냐 하는 문제보다는 거기서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딪혀 오는 모든 것을 나를 일깨워 주기 위한 스승으로 알아 감사하게 생각하며 송두리째 놓으라 하는 것이다. 무엇이 되었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자기가 한 결과이므로 누구를 탓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몰락 놓아 버려라. 그래야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 돌릴 줄 알아야 한다.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괴로움과 장애, 이런 것들이 과거로부터 본래 자기가 지어 내려온 과보라 생각하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욕하지 말고, 그리고 남에게 미루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려서 자기 스스로 나의 공에 놓을 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모든 고통, 과보, 인과, 유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는 것이니 모든 경계를 너그럽게 모두 내 탓으로 돌려서 놓고 간다면 바로 내 속에서도 중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좋아가게 되므로 그대로 천백억 화신으로 나툰다.

〈그 많은 보살들이 용도에 따라서 관세음이 되었다가, 지장이 되었다가, 산신이 되었다가, 지신이 되었다가 의사가 되었다가 하면서 안팎으로 고정되지 않게 다 조절하고, 다 처리하면서 너그럽게 순환을 하게 된다. 그러니 유전성 · 업보 · 지옥고 · 팔자 · 운명 따위가 다 무너지고 만다.〉

내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좋은 것, 나쁜 것이 내 앞에 닥친다. 그러므로 누구를, 무엇을 원망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야 한다. 설사 남이 나를 괴롭힌다 해도 내 탓으로 돌리면서 상대와 나의 주인공이 둘이 아니니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한생각 돌려놓아야 한다. 남이 내게 나쁜 짓을 한다 해도 그것은 나의 부족할 때의 모습인 줄 알아야 한다. 또 남이 나를 못살게 괴롭혔다 해도 나로 인해 그에게 수고를 끼쳤으니 오히려 미안한 일이요, 그로써 내 공부가 익어 가니 감사할 일이다. 그렇지 못하고 상대가 나를 괴롭힐 것이다, 괴롭혔다, 나를 속였다, 내게 해를 가했다는 따위로 생각한다면 설사 공부할 마음을 내었더라도 모두 허사가 된다. 고로 이 공부는 첫째도 나로부터, 둘째도 나로부터, 셋째도 나로부터, 그렇게 귀결지어 나가야 한다.

꿈이 생시요 생시가 꿈이다. '꿈은 꿈이고 생시는 생시다.' 라고만 안다면 깊은 곳을 알지 못한다. 꿈과 생시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도 경계를 둘로 보지 않아 끄달리지 않을 만큼 되어야 한다. 꿈이 꿈인 줄 알면 놀아나지 않듯이 번뇌가 꿈인 줄 밝히 아는 사람은 번뇌에 속지 않는다.

대상을 높게 볼 것도 없고 낮게 볼 것도 없다. 훌륭하다 해서 훌륭한 게 아니고, 높다 해서 높은 게 아니며, 낮다 해서 낮은 게 아니니 평등하게 보라. 대상을 내 몸과 같이 보라. 그것이 불심이다. 부처님이 지금 내앞에 계신다 하더라도 높이 보지도 말 것이며 개미 새끼 한 마리, 풀 한 포기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벌레를 보고 징그럽다 하고, 똥을 보고 더럽다 하지만 그것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상대를 보고 어떻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형상, 그 마음이 둘이 아니니 주인공 자리에 계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높은 산 위에 올라서서 마음을 내려다보라. 그러면 크다 작다의 구별에 앞서서 평평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생활에서도 그 이치를 활용해 보라. 모든 경계의 높고 낮음, 좋고 싫음의 차이가 달라 보일 것이다. 나아가 모든 경계를 텅 빈 마음으로 대해 보라. 빈 배처럼 되어 보라.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내세울 '나'가 없기에 부딪힘도 고도 없게 될 것이다. 빈 배와 같은 자유인이 되라.

수행 중에는 특히 안으로부터 많은 경계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할 때에 그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놓아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게 되면 그 경계가 그대로 마가 되는 것이니 바로 중생심 가운데 미묘하게 숨어 있는 '좋은 것을 좋아하는 마음'의 유혹인 것이다. 그러한 유혹은 아주 은밀한 만족감을 낳게 되는 바, 그 마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나 좋은 경계든 싫은 경계든 집착하는 것은 바로 마에 사로잡힘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기르시기 위해 마구니로 나투시기도 한다. 의심하여 속지 말라. 마구니로 보이고 악인으로 보일 때는 "이것은 부처님의 나투심이다. 부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려고 몸 빌고 손 빌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라. 부처님께서는 법계에 두루하며 찰나에 나고 드심이 쉴 사이 없으니 내게 닥치는 일체의 경계도 부처님의 나고 드심이라 나를 다지려 함이다. 그러기에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어 말없는 풀 한 포기라도 나를 주장자로 내리치는 스승이 라 하는 것이다.

누가 꾸지람을 한다든지 마구 욕을 해댈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로가 다 부처라서 서로 서로 가르치기 위해 부처님이 상대방으로 화하여 하는 일인 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이처럼 한순간에 쉴 사이 없이 나고 드시니 법계에 두루하신 것이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듯이 경계가 있음으로써 진화 발전할 수 있느니 경계는 나를 수행케 하는 힘이다.

일체를 둘로 보지 말라. 꿈이든 생시든 환상이든, 부처가 나오든 귀신이 나오든 일체를 둘로 보지 않아야 어떤 것에도 속지 않고 항복을 받을 수 있다. 일체를 나로 보게 되면 모든 경계에서 놓여 난다. 일체의 움직임, 일체의 모습을 다 나라고 보아 내게 수렴이 될 때에 무심이 되고 물러서지 않게 된다.

협찬 : 주 인 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나'를 내세우기에 걸림이 있어요

☞ 15면에서 계속

일로 채워서 그냥 첨가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모두 교육, 산 사람으로 치면 교육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모두 앉혀놓구 서로가 앉을 자리에 앉혀놓구 듣게끔 하구 브게끔하고 하게끔 하는 겁니다. 영가님들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가난한 집의 부모들은 천차만별로 직책을 줘서 내보냅니다. 다시금 이쪽으로 태어나서 선지식이 되게끔 이끌어주면서 한편으로는 그 자손들을 위해서 보살의 심부름꾼으로, 심부름꾼이라고 해야죠. 직책을 갖게 해놓음으로써 자손들이 그 대에 차원의 종자는 점점점점 커지게 돼있습니다. 보살의 행은 남을 조금이라도 해롭게 해서도 아니되지마는 이익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도가 아니요, 그것은 심부름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주천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권리를 주지 않죠. 보살의 행도 권리가 있어야만이 행을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상들도 모두 문을 열고 귀가 열리고 눈을 뜨게 하구, 지역 지역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 통신이 되고 영령들이 다 깨어나게 하구….

사람도 몸 하나를 건져야 그 몸 속에 들은 중생들이 다 살 수 있는 거지, 몸 하나 건지지 못하면 속에 들은 생명들은 다 죽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을 열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 공부를 해야만이 오고 가면서도 모두 그 영령들은 죽은 영령들은 다 압니다. 누가 자기를 이익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온다 그래서 발로 걸어서 찾아온다 하면은 그건 아니 되죠. 빛보담 더 빠르니깐요. 그러니 제삿밥을 먹고 안먹고의 문제, 묘지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손들이 그만큼 조상님들의 이 세상에 살았던 습을 녹이게 하는 거죠.

우주의 시작과 끝 있습니까

문 큰스님 전에 3배 올리옵고 말씀 여쭈옵니다. 큰스님 옴 마니 반메 훔..... 우주의 법계에서 정말로 처음과 끝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생사불멸이라고 하시는데 생사불멸이 맞습니까? 생불멸이 맞습니까?

답 그거는 정신세계의 문제로써 마음없는 마음 그 세계에서 본다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삼천년전도 아니고, 백년전도 아니죠. 현재하고도 미래하고도, 현재하고도 과거하고도 상통이 되고 일체가 하나로 다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구 펼쳐지구, 자유자재하죠. 이 소리는 깨달은 분들은 실체가 어떠한가? 그 의식이 있나, 없나 그분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도 있나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는 모두가 고정됨이 없이 찰나 생활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어떻게,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할 수도 없이, 그냥 찰나 생활이기 때문에 누구가 어떻게 있다 없다,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찰나생활이기 때문에 삼계가 그냥 돌아가니까.

그리고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하더래도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지금 현실이니까요. 이게 고정된 게 없다. 그렇다면 벌써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 생활이 고정된 게 있습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구가 돌아가듯이 그냥 돌아가는데, 수레바퀴처럼 체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데, 그런데 거기 뭐가 작년이 있구 내년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없구, 또는 죽은 것도 없다. 그대로 여여하게 찰나 생활로 그대로 살아계시다 이런 뜻이죠.

저는 좋은데 도반들이 싫어해

문 저는 도반들이 감사하고 좋고 사랑스럽고 한데 도반들은 저를 싫어해요. 저는 그들이 나 같고 좋은데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반들이 좋아서 저를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지냈습니다

답 어떤 사람이 부잣집 대갓집 집사 노릇을 하는데 마음이 '아, 이런 것만 이렇게 해서 되나.'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내가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집을 잘 지키고, 누구라도 무예를 잘 익힌 사람이 와도 내가 무예를 잘 지키겠다고 하면서 나쁘게 쓰이는 것만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공 세우고 잘한 사람이 오면 잘해줄 생각은 안하고 자기가 그냥 주인에 의해서 세울려고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집사가 죽었는데, 죽어서 뭐이 됐느냐 하면 큰 개로 된 거야. 집사 노릇을 하더래도 마음을 잘 썼으면 그렇지 않을텐데. 마음을 잘못 쓰고, 조금만 누가 기웃거려도 쫓아가서 도둑으로 몰고는 처치해 버리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원성을 많이 받다가 고만 죽었으니깐 개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집의 개로 사는데, 항상 문지기를 잘하다가 하루는 어떠한 집에서 배척할 수 없는 귀한 분이 왔는데 그냥 물어제끼니까는 그 개를 없애버렸어요.

잘되고 잘못되고
내탓 입니다
남을 원망하면
굴레서 못 벗어나

그러나 그 개는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사람은 날 죽여버렸다 이거죠. 죽기 이전에 생각한 것이 그거야, '나는 잘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개가 생각할때, '나는 잘 했는데' 하면서 그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죽어서 또 다시 개로 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도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집 잘 지키고 있는데 자기가 개로 지금 돼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지키고 그러는데 왜 나를 그렇게 매달아 놓고 죽이고 나를 태워서 먹게 했나? 이런 거예요. 그게 화두가 돼서 인간의 모습을 쓰게 됐죠. 그게 화두가 돼서 참 사람으로 또 환생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돼 가지고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참 좋은 일을 하고, 보이는 데서나 안 보이는 데서나, 마음을 착하게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는 전에 있던 그 대갓집으로 태어나서 장군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칼을 함부로 쓰다가 참 그 칼을 좋게 쓰게 됐더랍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순간에 인간이 됐다가, 한순간에 짐승이 됐다가, 한순간에 부자가 됐다가, 한순간에 가난하고, 늘 그 틀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관하면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림 · 최주현

그리고 잘 되는 쪽으로 마음내는 것이 기복이 아닌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답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한다면 풀 한포기 하나도 스승 아닌 게 없어요. 부처님만 스승이 아니예요. 나만 스승인 것이 아니구요. 이 세상을 살아나갈려면 강도짓 하는 사람을 보고도 깨닫는 게 있어요.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풀 한포기도 돌 하나도 물 흘러가는 것도 스승이예요. 그렇게 스승 아닌 게 없으니까 그거를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거죠.

모두 일체 만물만생 또는 삼세, 과거·현재·미래를 한데 합쳐서 삼심·삼세,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한 거니까, 그 주인공 하나만 생각하면 뜻으로다가 그냥 둥글려지죠 그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이것 저것 자꾸 생각하다 보면 골장 들어갈 것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데 모으셔서 그 자리에 맡기고 지켜보는 그런 참선자가 되세요.

진짜로 믿는다면 고구라지든지 가든지 오든지 그런 걸 상관 안하고 거기다 턱 맡기고 그냥 진짜로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돈이 많이 벌려도 걸림이 없구요, 돈이 안 벌려도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기 때문에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도리를 간단히 생각하세요. 돈을 수만 수만억을 번다 하더라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자기 혼자 갖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번 것도 아니고, 혼자 가질 것도 아니고, 혼자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걸려요. 내가 이렇게 많이 버니까 내가 또 많이 번다고 하는 '내가'라는 생각이 나를 내세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지, 한마음이라는 주인공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나가 많은데 일체가 다 나 아님이 없는데 구태여 왜 거기 걸립니까? 그러니까 선지식들은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죽인 사이가 없고, 깨우치지 못한 자는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살생이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증득해야 그게 알려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무조건 믿고 거기 맡겨 놓고 지켜보시고 그러세요. 그러고 거기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몇만냥을 벌더래도 또 욕심을 내서 생각을 내서 저걸 벌어야 할텐데 이런 생각이 나도 당신 혼자 그런 생각이 난 게 아니예요. 수십억의 의식들이 한데 모아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미움을 버릴수가 없어요

문 스님, 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어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스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 부처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신행상담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떡하면은 장님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나, 그렇게 되진 말아야 할 텐데, 귀가 열리고 눈을 떠서 자유스럽게 길을 걸어야 할 텐데, 그리고 영원히 걸어야 할텐데,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버이로서 길잡이가 되어야 할텐데… 이런 마음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속에는 자생중생들이 수북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자생중생들부터 내 마음으로 다스려서 천백억화신으로 출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공부를 게을리하지말고 관하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모든 한 생각을 다스려서 거기 굴려놓는 데에 목적을 두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몸 떨어지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업식만, 자기가 어떻게 살었느냐에 따라서 업식만 그림자처럼 쫓아가서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을 타고난다 하더래도 그 업식만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겁니다.

관하는것 게을리말고
몸속 자생중생들을
내마음으로 다스려서
굴려놓는게 급선무

그러니 우리 좀더 마음을 분발해서, 나는 생활을 하지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라는 사실을 일러드릴 뿐입니다. 그 모든 살림살이를 바로 누구가 하고 있나? 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모든 일체 잘못되고 잘 되고는 내 탓이라고 꼭 정정해야 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남의 미움을 받거나 남을 원망을 하거나 이렇게 하신다면 그거는 백날 해도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이렇게 한마음으로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합니다.

깨달은 후에 전법해야 하나요

문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두 남매와 아내를 둔 37세 된 가장입니다. 현재는 생계를 위해 원주에서 버섯농사를 짓고 있으며, 지난 97년도에는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불교대학을 나와, 법사 품수를 받았습니다. 이렇다할 수행체계는 아직 행하는 바가 없지만, 모든 불교교리에 대한 확신과, 한마음 주인공에 대한 절대적 믿음은 항상 마음 밑바탕에 간직하고 생활속에서 돌려놓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행이 부족해, 순간적인 경계에 부딪혔을 때는 잠시 흔들리기도 하지만, 이내 한마음 주인공에 되돌려 놓곤 합니다. 여쭈올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불교적 교리, 사상 시각과 살아가면서 겪는 작은 깨달음을 이웃과 인연들을 위해 작위적 활동(법사 활동-법회를 이끈다든가, 불교상담을 한다던지, 불교단체를 이끄는 활동들)을 통해 전해야 하는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수동적으로 인연 닿는대로만 포교하고 스스로의 수행에 몰두해 완전한 깨달음이 있은 후에 전법도생 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그전까지의 저의 생각은, 내 수행이 아직 부족한데 어찌 남을 지도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수행을 완전히 이룬 후에야 비로소 남도 바르게 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지만, 요즘은, 이웃과 중생을 위하여 또한 나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라도 불교상담정도는(불교상담한다고 명함이라도 하나 파서, 이웃과 인연들에게 나눠주며 같이 깨달아 나가는 것)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어느 큰스님은 천년의 학이 될지언정 한 철의 앵무새는 되지 않겠다고 하였고, 다른 큰스님은 다함께 배워가며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답 멀리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육신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거는 한 별성이기 이전에 혹성이기도 합니다. 혹성안에 오대양 육대주가 돌아가는 거와 같이 오장 육부가 그러하니까요. 이것을 가까운데 두고 모른다면은 우리 우주의 전체, 무와 유의 세계의 그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다면 남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남을 이끌어줄 수 없고 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생겼고 상대가 생겼고 가정이 생겼고 나라가 생겼고 천태만상으로 생긴 것이 바로 나로 인해서 생겼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종교라는 것이 어떠한 이름이나 찾고 어떠한 허공이나 바라보면서 바깥 경계에 끄달리는 것이 불법이 아니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아닙니다.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있다는 사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움직인다는 사실, 그리고 맛을 본다는 사실, 이것만이 우리가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수억겁 광년을 거쳐오면서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그 쫓기며 쫓으면서, 이렇게 밟히며 또는 밟으면서 인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인간이 된 이 모습으로서 이 모습을 벗기 전에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굳이 인연을 끌어서 내가 가르칠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인연 닿는 대로 오직 내 뿌리를 믿고 모든 것을 그 뿌리에다 믿고 맡겨 놓으라고 가르쳐 주시기만 하신다면 무슨 이름을 가지든 안 가지든 당신의 역할을 다 하고 가시는 겁니다.

팔자운명 바꾸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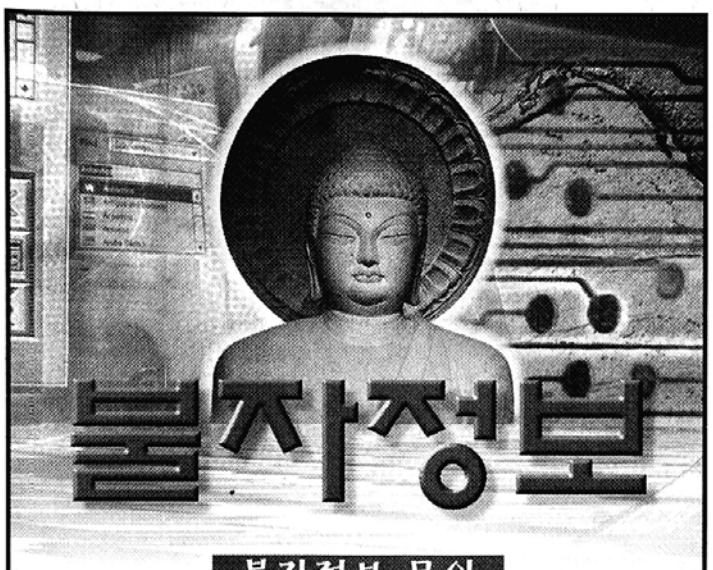
문 많은 사람들이 팔자와 운명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이 팔자나 운명을 마음공부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들이 마치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인과를 벗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답 이 공부를 안 하면요, 과거에 살던 모자라는 거든지 잘하는 거든지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살던대로 그것이 전부 몽땅 숙명통 컴퓨터에 입력이 돼가지고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입력된 것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거를 무어라고 말들을 하느냐면 팔자 운명이라고 그러죠. 나는 잘못도 안했는데 운명이 이렇고 팔자가 이렇고…, 그러죠. 그러나 그건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다시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팔자를 못 면하니까 자기 한대로 못 면하니까, 거기다가 다시 입력을 해놓으면은 지금 우리가 잘못하는 거는 몸뚱이가 있는 걸로다 잘못하지마는, 인과로서 뭉쳐지는 업보는 마음으로서의 잘못된 의식 자체들이 그냥 전부 걸려가지구선, 그러니까는 백지에 글씨 적혀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무심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무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유심으로 나오고 유심 속에서 나오는 것이 현재 행으로 그냥 꽉 뒤집어엎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마음속에서 다시 확연히 그것을 다 벗어버리구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인공 자리서 보면 일체가 다 '나'입니다
풀 한포기 돌 하나 흐르는 물 모두 스승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1166-3858
016)849-3858

갑상선·간질
당뇨완치
한국불교태고종 **세운정사**
주지 한진성
전북 남원시 하정동 226
전화 0671)626-4984
팩스 0671)626-4980

귀 비법을 전수해 귀 드립니다
좌골 신경통
오십견(팔에 모든질병)
관절염 / 허리디스크
주름살제거 (살빼는 법)
※모든통증을 제거하는 법
0342)752-3035 (출가상담)
016)288-3035
향 천 사

강좌

귀 달마사포교원
◆사주: 대운·행운·신수
◆작명: 출세 문자 비법
◆관상: 빈부 귀천 학당
◆풍수: 자손 창성 번영
◆부적: 방원 소원 성취
※남녀 철학특별지도※
▶상담 시간 : 평 일 10:30~17: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10:30~15:00
02)999-5551
02)999-4804
051)418-4804 **달마사**

과학기술을 이용한 견성공부 수험테프 판매!!
①, 학습 집중력기인 릴렉스이즈를 이용하여 관법으로 쉽게 견성할 수 있음
②, 견성: 볼래야 볼 수 없는 성품이 볼래야 볼 수 없는 성품을 보고 그것이 나임을 깨닫는다.
③, 八苦해탈/습관/세균/감정/잡념/불안/만성난치로부터 자유
박민수 참선 교육원 (062)251-2733
http://min soo zen.pe.kr 017)609-9068

사주 명리학 배우실 분
◐개강 : 9월 1일부터 주3회
(월수금) 4개월간
◐강의: 기초부터 간명 실습까지
책임완성
◐수강료 : 월 15만원
(수료후 재청강은 무료)
◐장소: 마포구 망원동 474-15
02)323-4050/4480
선주명리원

禪 기공이 인기좋은 이유는
첫째, 남녀노소가 할 수 있는 건강운동이고
둘째,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등불로서
셋째, 포교의 훌륭한 방편이며 직업으로
선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기공은 2년의 지도자 과정으로서 본교 총장
수료증과 협회의 지도자 자격증이 수여됨
▶교육과 02-2260-3727
▶접수:9월6일까지
▶지도교수: 설적운스님 (골굴사주지)
동국대학교사회교육원
세계선무도 협회(大金剛門)

禪武道 (禪기공) 수련안내
불교의 전통수행법인 선무도는 현대인의 건강과 안심입명을 구하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수련내용: 선호흡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태극권
▶대상:건강과 수행에 관심있는 개인 및 단체 연수
▶접수문의 : 0561-744-1689 1회 10명 수용가능
· 선무도 교본 上·下 우편판매합니다.
· 지도자 과정 입산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 선무도 포교원 지역대표전화
서울 02)763-2980 3486 9001 부산 051)516-3374
대구 053)621-2626(국내외 30여개소 지원지부)
선무도 大金剛門 총본산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육효점
평생사주
02)962-9871
자비원

수맥파 (나쁜기운) 차단
1. 수맥찾기 강좌(신비의 추 L-로드)
2. 건강과 행운의 목걸이
종일 온몸이 나른 하신분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 등
3. 수맥 차단제 판매
4. 활동 공간의 기 균형
02)734-2118/011)239-6817
대붕 氣 살림

구인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11)
9715-4366

탈종공고

탈종공고.
한국불교태고종 귀중
◇사찰명 : **청정사**
◇주 지 : 혜명스님
◇소재지 :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011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9. 9.

탈종공고.
대한불교조동종 귀중
◇사찰명 : **문수사**
◇주 지 : 암철(최순태)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발괴1리 1185번지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9. 8. 31

동양 철학 수강생 모집
◆강 사 : 최봉수박사 직강
◆교 재 : 심명철학 1. 2. 3.
◆교육기간 : 초기과정 8개월
◆개 강 : 9월 1일
◆수 강 료 : ₩100.000
02)763-3525/745-3525
(낙원동)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기도·공부·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대(大)흥(紅)도(道)원(園)
기공 선도법 수련
(진중공, 단전호흡, 활도술)
수양, 수도 및 수련자
※ 숙식가 ※
0446)877-9051
경기 이천 충북 감곡
장 호 원

불교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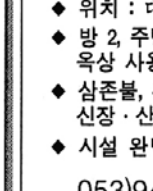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기타

건강에의 신비! 순전玉山家(옥)
고혈압 당뇨, 간경화, 폐암, 관절염,
두통, 정력부족 기타 성인병환자들이 이
옥을 활용하고 효과를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의학적 **자연치유!** 건강상태에 따라 옥제품과 사용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대일광업 서울중앙판매소 玉山家 (02)777-0105

산신각 빌려 드립니다.
064)732-8690

우리 몸에 氣 를 충전시켜 주십시요!!
"피라밋 속에서 신비의 공간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氣功훈련 ◆명상수련
◆학습능력향상 ◆질병치유촉진
"10分내에 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氣를 체크해 드립니다.
KBS-TV자료 氣제품 카다로그 무료수송
고혈압, 당뇨, 간, 비만, 변비
성인병에 대한 최신정보
미국 일본에서 최근 유행하는 면역요법 성인병 상담해 드립니다.
※ 책자 무료 우송 ※
韓國 氣健康 硏究院 02)455-6944/453-5851 FAX(02)454-0646

달·마·보·급·처
0346)575-2323

수맥차단
차량운행
이사,삼재
3회의 불보살님 견불후 불교미술탱화 입문 12년<불사용달마도 보급중>

사찰안내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근교**
◆부지 : 약 1000평
(대지 약 740평, 임야 250평)
◆법당 : 40평
◆요사 : 40평,입석미륵불, 해수관음상
◆특징 : 주차장 및 조경시설이 완비 되어 있고 대작불사에 적합한 포교 및 기도도량입니다.
해동불사 이처사 합장
02)389-7880/ 019)390-6110

사 찰 안 내
◆위치 : **공주 근교 읍소재지**
◆대지 : 200평
◆법당 : 20평 ◆요사 : 30평
◆가액 : 9,500만원
※깨끗한 주거환경과 완벽한 조경시설을 겸비한 포교도량입니다.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 연락 바랍니다.
多寶佛事 02)3545-056
019)234-5506

사 찰 안 내
◇위치: 경기
◇법당: 25평
◇요사: 33평
◇부지: 750평
◇가액: 4억 5천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사찰 양도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당 안내
◆서울포교당 30평
◇가액 : 전세 5천만원
◇시설비 없음
◇아파트 대단지앞(급매)
◇강능고찰터 1천평(4천만원)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02)723-4082/733-0108
광진불사

포교원 (급) 안내
◆위치 : 장안평 사거리 전철역 앞
◆규모 : 총45평, 법당15평,
시설최상급, 거실1, 주방1, 목욕탕,
화장실1, 대중화장실 별도, 살림방
3, 상담실 1-살림편리, 5층건물의 5층
◆가격 : 500만원(월 40만원)
시설비 3천만원(총3,500만원)
011)660-4631

사찰 (전세) 안내
◆위치 : 경남
◆가격 : 전세 2천5백만원
매매 3800만원
0591)758-4895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최고요지
◆평수 40평
◆법당, 청동 삼존불, 공양실,방2개,
에어콘, 후불탱화
◆시설 최고, 옥상40평 사용 가능
◆보증금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51)293-0137
011)825-1662
※꼭 하실 분만 연락바랍니다

사찰(급) 안내
◆위치 : 충남 금산 금산읍
◆대지 75평, 법당 10평,
요사채17평, 욕실, 화장실
◆가격: 1억
◆특징: 천연암반수, 산세수려
0412)751-0771

사찰 안내
◆위치 : **대전 논산 국도 중간지점**
◆산속에 위치하여 기도도량으로 적합
◆법당 : 35평(목조건물 외 5포 내 7포)
◆삼성각 : 5평(목조건물)
◆요사채 : 35평(현대식 건물)
◆대지 : 602평
◆가액 : 답사후 가격절충
0461)733-3048/011)458-3048

포교당 안내
◆위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평수: 35평(포교 최적지)
◆가액: 5천만원(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 ※
02)307-2616
011)416-2782

사찰 안내
◆위치 : 보문산 입구
◆임법당 15평, 기도방 8개
◆가격 : 6천만원
042)255-5063
011)9766-5563

사찰 안내
◆위치 : 영덕과 영해사이
◆규모 : 임법당 총면적 1907평
대지207평, 요사채35평, 밭 1700평
◆특징 : 야산밑 큰 고래산 있음
3층제단 조성
◆가격 : 9천만원
011)653-8375/011)655-3883

사찰 안내
◆위치: **장호원** 경기 이천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만원(스님양수시 대폭 절충가)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

사찰 안내
◆서울 경기지역 사찰 암자터
◆매입 운영하실분이나 양도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사찰 토목공사 불사상담
◆성실책임 비밀보장합니다.
011) 8901-5779

토굴 안내
◆위치 : 함양군 덕유산
◆규모 : 대지 25평, 황토집,
5~6평 1채
임법당 및 요사채 30평
◆경관수려, 식수가 좋으며
종교부지 허가 받음.
◆가격 : 5천 만원
0597)962-3528/011)842-3525
※현재 스님 거주중

사찰 안내
◆위치 : 부산시 중동Apt. 밀집지역
◆규모 : 5층건물의 5층
시설이나 위치는 모두 A급
◆평수 : 약 75평
◆가격 : 보증금 천만원에 80만원
(전세 가능)
◆시설비 절충가능
011)9750-4075

사찰 안내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법륜사**
서울 수색과 경기 화전 10분거리
◆서울 일산 포교에 적합
◆평수 총 26평(법당)
◆시설외 일체 인수
◆가격 : 1억(시설비 없음)절충가능
◆전화상담요망
02)3158-3448/018)382-3448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4동
◆무허가 건물:
임법당 약 45평, 요사 약 20평
◆미륵불, 오백나한조성중, 약수물 2개
◆전철 당고개역서 걸어서 10분거리)
◆가격 : 3억
수락산 범용사
017)401-0188

사찰 안내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시내에서 2분거리)
◆대지 : 100평
◆건평 : 110평(다용도실1,2층 약20-30평 별도)
1층 30평 (방3칸 거실큼) 1동
2층 30평 (방3칸 거실큼)
1층 25평 (방2칸 실평수) 2동
2층 25평 (방2칸 (실평수)
등으로 사용가능
◆ 전망좋음, 전원주택처럼 트트하게 아주 잘지었음.
◆가액:전세 5500만 + 은행융자 8천 = 3억5천
◆받을금액 : 2억1500만(가격절충)
0348)959-1997/011)399-7981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방 2, 주방 1, 법당,
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산신탱화
◆ 시설 완벽
053)942-0700

사찰 안내
비구니스님·보살님 중 운영하실 분
◆위치 : 충주시(충주댐 강변도로변)
◆평수 : 현 사찰150평 부지외 수천평 분할가
◆내용 : 석굴암 및 법당, 요사채, 오층탑,
관세음보살상 아미타불상 산신각 칠성각
제2석굴암지와 미륵보살 성지 300평완성,
도로포장완성, 재력투자 한분에게 사찰
양도가능, 주차장 450평 허가 방생최적지
0441)848-1766/019)485-1766
(야)0441)853-2896

사 찰 (급)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서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35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80평 방8개 주방2개 지하20평, 명부전10평 단청필 주지실 12평
◆ 건물 완공은 3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가액 : 8억 5천만원
◆총 공사비가 12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 011)885-2876

사찰 안내
서울·부산지역
사찰구합니다.
서울·부산 시내 또는 근교
사찰이나 암자를 구합니다.
전화상담시 보안유지합니다.
한국불사 018)273-9390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20분거리
광릉 수목원 근접
◆ 부지 580평, 임법당, 요사채,
방6개, 건평63평
◆특징 : 소나무로 둘러친 산 중턱
소쩍새와 온갖 새가 지저귀며 작은 계곡
물이 흘러 내리는 서울 근교의 명당터 풍
부한 식수와 산 정상까지 살림목과 약수
가 있으며 주차장 연못, 조경완비
◆ 가액: 3억 5천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영천시
은해사 근접
◆부지 약 1천평
법당 15평, 요사 20평
◆산세좋음
◆가액: 6천 5백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산청
◆부지 : 2113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 2동)
◆매매희망기간 : 백중전후
◆가액 : 1억 8천만원
※집은 소박한 한옥이나 산세가 평안하며,
넓고 조용한 수양도량으로 식수가 아주
좋음, 도량까지 차량진입가, 주차장 있음.
053)651-9363/0596)973-0305

암자부지 안내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대지 250평
(즉시 건축 및 등기 가능)
◆가액 : 3천 5백만원
◆호수가 보이는 조용한 곳,
현주택 1동 유실수 다수
◆목조법당 희망할시 최저가 건축
보장(주인이 건축 기능보유자임)
0563)336-4480 박허운 합장

사찰(포교원) 운영하실 분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인구 밀집지역 ◆대지 : 85평
◆건물 : 법당17평, 주지실, 상담실, 거실, 방3개, 주방, 욕실(건평45평)
◆가격 : 일억 팔천만원 (매매가)
◆특징 : ●건축한지 3년 됐으며 사찰로 등기 되어 있어 어떠한 종교 행사도 할 수 있음. ● 건물 전면에는 주택 단지, 뒷면에는 야산에 산책로 조성되어 있음 (2K) ●전철역에서 택시 기본 요금거리 위치 (지하철4호선) ●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탱화 모셔져 있으며 법당 조성되어 있음. ● 단독주택이나 구조는 사찰용도로 건축하였음(현재 운영중) ●융자(오천만원) 할 수 있음
0345)419-3224 / 011)417-1008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근로자 세금 평균 28% 인하

(생활)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4일 근로자 세부담을 평균 28%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세금우대 저축에 중복가입하는 바람에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될 예금자들에 대해서도 구제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3백억 대부

노동부는 9월 추석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300억원을 장기체불 노동자의 생계비와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부해주기로 했다. 이 생계비는 신청일 현재 두달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월평균 임금이 120만원 이하인 1년 이상 근속 노동자에게 대부된다. 신청은 9월4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된다. (02)503-9732

전세자금 대출한도 늘려

(주택) 주택은행은 지난달 2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종전 전세금의 50%까지에서 70%까지로 늘리고 대출신청 시기도 전입후 3개월 이내를 6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단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00% 지원한다.

인터넷으로도 전보가능

(통신) 한국통신은 지난달 24일부터 전화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전보를 칠 수 있는 '인터넷114'(http://www.il15.co.kr)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요금은 축하메시지·전보가 2천원 내외, 생일 케이크를 보내는 서비스가 2만원 정도며 꽃다발을 보내려면 3만원 정도면 된다. 요금은 다음달 전화요금에 합산 청구된다.

농촌 유치원생 교육비 지원

(교육)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농촌지역 저소득 가정의 유치원생 2만3천2백명에게 교육비(1인당 월 평균 8만1천원)를 국고로 지원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중·고교생 40만명의 학비를 전액 면제하며 작은 이자로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학·대학원생을 올해 20만명에서 3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비타민C 스트레스 예방

(건강) 미국 앨라배마-헌츠빌 대학의 새뮤얼 캠벨 교수는 최근 미국화학회에서 비타민C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오렌지 쥬스가 하루의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다고. 단 담석증 환자에게는 비타민C가 결석을 만들 수 있으므로 과도한 섭취는 금물.

■ 도청-몰카등 사생활 침해 '위험수위'

누군가 엿보고 엿듣는다

상반기 감청 작년비해 16.6% 증가
정부 불법 계좌추적 한해 8만건 넘어

누군가가 엿보고 엿듣고 있다. 모든 신상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새나가고 있다. 최근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밝혀지고 있는 갖가지 사례들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임을 실감케 한다. 사생활 침해는 이제 우리사회에서 그만큼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한겨레신문이 지난달 22일 '불법도청'과 관련한 취재보도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사무실에서 반나절동안 모두 26건의 도청 사실이 확인됐는가 하면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1시간만에 무려 42개의 도청기가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만약 하루동안 추적을 한다면 100~200개의 도청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청방지 전문가는 밝히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의 감청현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나 늘어난 데다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불투명해 정부차원의 사생활 침해도 도마위에 오른 상태다.

엿듣기 못지않게 엿보기 실태도 심각하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음란비디오가 몰래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것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지난 7월 경찰조사에서는 서울 세운상가에서 한달 동안 팔리는 몰래카메라가 12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도청기·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사생활을 엿보는 것은 물론 휴대폰 사서함 비밀번호나 전화통화 내용·주민등록등본을 수시로 빼내는 등의 심부름센터 불법행위나 일부 카드사의 고객 신용정보 유출 등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부는 97~98년동안 금융기관 고객계좌추적을 무려 46%나 늘려왔으며, 이 가운데 법원의 영장없이 계좌를 추적한 사례도 40%나 느는 등 사생활 침해를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한해 8만건이 넘는 불법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인터넷도 이미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곳에 입력된 정보는 이를 얻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업체들에게 쉽게 넘어가고 결국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업적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홍준형 교수(서울대 공법학과)는 올해 초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국가가 국민 앞에 국민 개개인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그 실천의지를 담은 헌장 제정 △사생활 보호 수칙을 만들어 학교 및 공무원 교육 등 모든 교육과정에의 반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을 갖춘 '사생활 보호법' 제정 △사생활 보호를 전담하는 의회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었다.

사생활 침해는 강력범죄 못지않은 중대한 인권유린이자 비열한 범죄다. 따라서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제도 등 각종 제도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적극적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생활 침해는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한겨레신문 취재팀이 도청방지업체 직원들과 함께 차량인에서 도청감지장치를 이용해 도청기가 설치된 곳을 추적하는 모습

"부정부패 척결하자"

847개 시민단체 '반부패연대' 창립

시민들이 부패감시에 나섰다. 민주개혁국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총 등 847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반부패국민연대'를 공식출범시켰다.

'반부패국민연대'는 창립선언문에서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부정부패가 하나의 관행이 돼있다"면서 "국민과 각종 단체, 학자, 양심적 공직자, 기업인 등이 합심해 부정부패 척결과 비리추방에 나서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반부패연대는 전국 150개 지역에 지역센터와 순회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부패한 인물들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www.transparency.or.kr)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기별로 각 분야의 부패인물과 청렴인물을 선정 시상도 한다.

"작은 혼례 실천하자"

생활개혁범국민협, 시민운동 전개

최근 호화결혼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혼풍조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작은혼례실천운동'이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이하 '생개협')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생개협 소속의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작은 혼례 9계명'을 선정 발표해 관심을 끈다. 9계명은 △청첩장을 식후 알림장으로 대신한다. △경조비 관행 근절 △피로연은 가족모임으로 △예물은 간단한 증표로, 예복은 예식후 활용가능한 것으로 마련 △예단은 부모님께만 필요한 물품으로 △공공기관이나 무료실비예식장 평일 또는 야간 이용 △개성적이고 검소한 신혼여행 △신혼주택은 알뜰한 생활, 치밀한 계획으로 스스로 장만 △나부터 작은혼례운동에 동참 등이다.

시론

아이 낳을 권리

최근 김홍신의원에 의해서 정신지체장애인 66명이 수용중인 보호시설들에 의해서 강제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다. 63년에서 98년까지 남자 48명, 여자 27명 등 75명이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남자 40명, 여자 26명 등 66명이 강제수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또 며칠 뒤에 광주에서도 100여명의 정신질환자에게 강제 불임수술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에 대한 강제불임수술과정에서 구청과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국에서도 최근까지 유전으로 간주되는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해 강제불임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정신지체장애인 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이 73년에 제정되었다가 98년 2월에 이 법이 개정되었다. 법이 개정됨으로써 강제불임수술은 인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수술이 여러 시설들에서 행해지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게 되었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들을 돕는 것인지 이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장애인강제불임수술에 대해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자기자신의 생활자체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들을 최대한도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기를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다른 입장은 정신지체장애인도 일반의 건강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반되는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조화를 이루느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것이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자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사회의 존속을 위해서 가장 고귀한 희망이고 행위이다.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구성원이 태어나야 하고, 이를 위한 행위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도 안되며,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된다. 그런 점에서 강제불임수술은 마땅히 배격되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 생활을 영위해가지 못하고 사회적 도움(여러 시설들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아기를 가졌을 경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반 사정은 이들을 무리없이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들의 권리를 인위적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권의 문제와 행복의 문제를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진지하고 조심스런 접근은 필요하다.

여러가지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문제도 그 사회가 처해 있는 시대적, 역사적 조건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이 존엄성은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엄성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행복을 동반한 존엄성의 규정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행복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반 사회복지정책의 정비와 시설에 대한 지원이 크게 향상돼야 한다. 그래야만 권리의 보호와 함께 행복도 보장될 수 있다.



이춘기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호시설 수용자 강제 불임수술 명백한 인권침해"

달마도(병풍), 佛字 특별가격보시



⊙달마도가격
소지용(15×15) 15,000원
액자용(70×37) 25,000원
액자용(70×45) 30,000원
액자용(140×37) 70,000원
액자용(140×74) 100,000원
佛字 (140×37)20,000원
⊙8폭병풍완제품(고급비단표구)
(360×182cm)
- 단면 85만 → 76만원
- 양면(뒷면 반야심경) 98만→ 88만원

※10점 이상 구입시 20% 할인
※병풍 홍보기간 중 10% 할인
※작품이 마음에 안드실 경우 반품 가능

권 천만불자 가정에 한점씩 걸기 운동

창혜(滄慧)거사, 김성은 화백이 직접그린 작품을 재료비 및 홍보비에 지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보급코져 전국 어디든지 보내드리니 불자님들과 스님들께서는 좋은 포교방편의 선물용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물용 적합(액자없이 선물 가능)
권24시간 공휴일에도 접수 받음
권입금처(온라인 번호)
농협 148-12-032751 김병구
권연락처 :
TEL 032)656-3089
H.P 011)9043-3089
滄慧 金盛垠 합장

韓國禪畵研究院
·본원에서는 결식아동돕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있는 불교포교의 명문 학당

1999년도 후기
부산불교교육대학
경전연구과정 / 교리반 / 수화반
신입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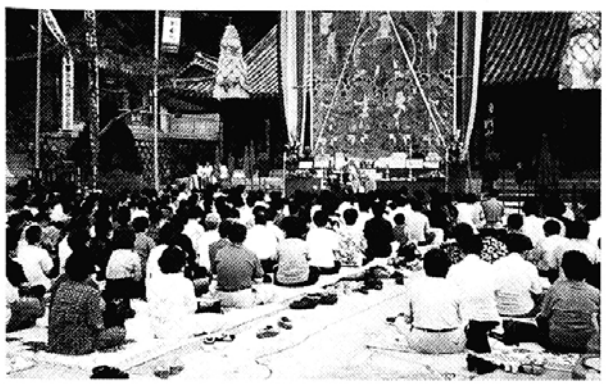
▶ 입학안내 ◀

구 분	제4기 경전연구과정	제14기 교리반	제6기 수화반
1. 입학자격	본대학 포교사과정 수료자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불교를 바르게 알고 싶은 남·여	수화를 바르게 알고 싶은 남·여
2. 교육기간	2년(1999년 9월~2001년 8월)	6개월(1999년 9월~2000년 2월)	3개월(1999년 9월~11월)
3. 교육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매주 목·금요일 오후 2시~4시	매주 수·금요일 오후 7시~9시
4. 교육장소	화엄회관 본 대학 강당(구, 부산진구청 뒤)		
5. 원서접수	1999년 7월 21일 ~ 8월 31일		
6.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부산불교교육대학 교무실 (☎ 051-818-8659, 807-7351)		
8. 전형방법	서 류 전 형		
9. 입 학 식	1999년 9월 1일(수) 오후 7시	1999년 9월 2일(목) 오후 2시	1999년 9월 3일(금) 오후 7시
10. 등 록 금	입학금 5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20,000원	입학금 3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30,000원	입학금 2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10,000원
11. 특 전	본대학 학칙에 따라 자격증 부여	수료자는 포교사 과정에 우선 입학할 수 있음	장애인포교의 기획를 제공하며 수화 통역사 자격시험에 추천됨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8/2
성원서면주차빌딩 2층 화엄회관 (구, 부산진구청 뒤)
☎ 051)818-8659, 807-7351

▨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현대불교 · 생명나눔회 공동캠페인

생명나눔도 孝실천…백중 뜻 되새겨



◇봉원사 캠페인은 영산재가 펼쳐지고 하안거 해제의 의미도 담은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다.



◇수안사 캠페인은 백중의 의미와 함께 생명나눔의 참뜻을 되새기게 했다. 주지 세민스님이 서명하고 있다.

8월25일 서울 봉원사 · 수안사 법회

장기기증 192 · 화장서약 359명

봉원사 영산재 시연 성황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와 본사가 연중 캠페인으로 결치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 대법회가 지난달 25일 서울 봉원사와 수안사에서 각각 거행됐다.

특히 이날 열린 두 법회는 백중을 맞아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를 '장기기증과 화장문화 정착'을 통해 새롭게 조명합으로써 불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백중맞이 대법회 및 하안거 해제와 함께 열린 봉원사 캠페인은 백중을 맞아 펼쳐진 영산재와 함께 이뤄져 성황을 이뤘다. 영산재는 시련 대련 괘불이운 법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법회에 참석한 5백여 불자는 백중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주지 인공스님 등 112명이 장기기증을, 217명이 화장유언을 서약하는 등 모두 329명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봉원사 주지 인공스님은 "백중과 하안거 해제라는 뜻깊은 날에 생명나눔캠페인까지 벌이게 돼 기쁘다"며 "모든 불자들이 삶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꾸는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백중맞이 법회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한 수안사(주지 세민) 법회도 백중과 생명나눔의 참의미를 일깨워주었다.

주지 세민스님은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진정한 효"라고 강조하고 "법회에 참여한 사부대중은 물론 모든 불자들에게도 그 뜻을 알려 널리 캠페인이 전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안사 캠페인에서는 80명이 장기기증을, 세민스님을 비롯한 142명이 화장유언에 서약하는 등 모두 222명이 참여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주제 법문

육신공양은 숭고한 보시

봉원사 주지 인공스님



불교에서는 보시의 공덕을 으뜸 공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조건없이 남을 돕는다는 것은 자비심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시에는 재시 법시 무외시가 있습니다. 재시는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요, 법시는 좋은 법문을 듣게 해주는 것이요, 무외시는 자신의 육신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보시는 모두가 숭고하지만 그중에서도 무외시는 가장 힘들고도 그 뜻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특히 생명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입니다. 불자들은 전통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성향을 띠어 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무슨 캠페인이 벌어지면 타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비해 불자들은 뒤에서 은근하게 참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자들도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캠페인이 열리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웃에게도 권해야 합니다. 더구나 딱한 처지의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자는데 주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한가지 있습니다. 불교는 전통적으로 화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불교의 전통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장묘문화를 개선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여의도 면적의 3배나 되는 땅이 묘지로 잠식된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젠 불자들이 생명을 나누고 화장문화를 선도하는데 적극 나서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합니다

고통 나누는 것 '동체대비'

수안사 주지 세민스님



백중은 불교의 고유명절로 목련존자의 효행을 기리는 날입니다. 목련존자의 효행은 자신을 버림으로써 어머니를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보살행 그 자체였습니다. 효의 의미가 이렇듯이 생명을 나누는 것도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통을 나누는 것은 보살의 근본사상으로, 나를 버림으로써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한 것일 뿐 그 밖에 아무 것도 바라는 것이 없으니 동체대비원이라 했습니다. 즉 이를 일러 사신공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생명나눔이란 바로 이와 같아서 향이 향체를 불태워 모든 이에게 향기로움을 주는 것처럼 보살행은 동체대비의 마음가짐일 때만 그 실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염불하며 정진하더라도 과연 우리는 보살행을 하고 있으며,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같이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나를 버려 고통받는 중생을 구해야겠다는 원행은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부모 아닌 이가 없고 내 형제 아닌 이가 없으니 생명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요, 형제를 살리는 숭고한 보시행인 것입니다.

또 화장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죽으면 썩을 육신에 왜 집착을 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것이 아무 부질없는 집착임을 알게 된다면 화장을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눔과 화장은 따지고 보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실천에 옮기는 불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모저모

기독교 신자도 동참

O…교회에 다닌다는 한 개신교 신도가 봉원사 백중법회에 참석했다가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에 서약해 눈길. 전재현씨(68, 서울 성북구 정릉동)는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봉원사에 모셔놓고 20년째 매년 백중 때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는다고. 서약을 마친 전씨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내종교 네종교를 따질 필요가 있느냐"는 말과 함께 즉석에서 후원금을 내기도.

순찰 경관이 장기기증

O…서대문 경찰서에 근무한다는 황세영 순경(22)은 봉은사 순찰을 나왔다가 생명나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단숨에 장기기증에 서약. 황순경은 서약을 마치고는 곧바로 돌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시느라 애쓰신다"며 인사말을 건네기도.

가족동반 많아 눈길

O…봉원사 캠페인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로 사찰을 찾은 불자들이 많아 가족축제같은 분위기를 연출. 이중 5살짜리 조카를 데리고 인천에서 왔다는 강병수씨(20)는 서약을 마치고 난 후 조카에게 장기기증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후원회 부회장 동참독려

O…수안사 캠페인에서는 이사찰 신도이자 생명나눔실천회 후원회 부회장인 이원기 보살이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독려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 신도들은 바쁜 걸음을 재촉하다가도 이거사의 얼굴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지 서명대로 발걸음을 돌리기도.

법회 막바지 세보살 신청

O…수안사 캠페인이 끝날무렵 가쁜 숨을 몰아쉬며 50대 보살이 뛰어와서는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에 서약. 이어 대학생으로 보이는 두 명의 보살이 뒤따라 서약했는데…. 서약을 마친 50대 보살은 "딸들과 함께 서약하려다 못할뻔 했다"며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동참자 명단

봉원사

▲장기기증(112명)=인공스님 일운스님 강희남 고희경 곽경희 김경수 김경화 김길숙 김득선 김명옥 김명환 김병찬 김상일 김선희 김영숙 김영숙 김영자 김옥자 김옥주 김재웅 김종남 김준기 김희경 남정희 목정순 박건실 박근성 박서형 박선영 박익훈 박정은 박종근 박종명 박한본 박향란 박현일 배미옥 배현주 변혜숙 서선덕 서승정 서형란 성숙제 손홍인 송기창 송시원 송준업 송혜선 신영채 안순녀 안웅렬 양재혁 여순자 오현숙 윤명선 윤상언 윤선영 윤태일 윤희재 이경화 이금숙 이길자 이난규 이남수 이대영 이동관 이말선 이명숙 이명주 이사식 이수영 이영숙 이우대 이원희 이임선 이재근 이재웅 이정화 이준화 이춘희 이칠복 이한우 이희천 임미화 임병희 임수진 장 혁 장만수 장용환 장재옥 장정동 장지원 정경애 정옥분 정은정 정진성 정차남 조경훈 조순희 조일금 조정옥 조진분 조희옥 최승권 최윤정 최헌수 태선주 현재옥 홍성식 황성철 황숙자 황용근

▲화장서약(217명)=선암스님 진현스님 일운스님 강병수 강현심 강희남 고진규 고현숙 고희경 곽경희 권오선 김경란 김경수 김경화 김기순 김길숙 김동수 김동순 김득선 김명옥 김명환 김문수 김병찬 김상일 김선곤 김선순 김선희 김성화 김소영 김소혜 김순희 김양선 김영숙 김영자 김옥자 김옥주 김은실 김은자 김인자 김인호 김재웅 김정규 김정자 김종남 김종훈 김준기 김춘재 김혜련 김화자 김희경 김희순 나성근 나인숙 남무애 남옥현 남정희 노맹대 목정순 박건실 박근성 박미순 박미원 박서형 박선부 박선영 박소연 박수자 박영래 박익훈 박일동 박정숙 박정은 박종근 박종명 박종업 박지서 박진호 박한본 박향란 박향순 박희동 배금옥 배기옥 배미옥 배현주 변혜숙 서명옥 서선덕 서승정 서형란 석순회 성선제 성숙제 성영순 손건영 손순임 손흥인 송경순 송기창 송나영 송분헌 송시원 송영인 송준업 송혜선 신순자 신영채 신지현 신현두 심순택 안소민 안순녀 안웅렬 양재혁 엄대석 여민숙 여순자 오미자 오정자 오현숙 위명순 윤명선 윤명희 윤무순 윤상언 윤선영 윤여운 윤임구 윤태일 윤희재 이경화 이구품행 이금숙 이금희 이길자 이난규 이남수 이다길 이대영 이동관 이말선 이명숙 이명주 이명철 이미숙 이사식 이선민 이성애 이수영 이영숙 이영숙 이옥기 이우대 이원희 이임선 이재근 이재웅 이정자 이정화 이종열 이준화 이춘희 이칠복 이한우 이호형 이희창 이희천 임미화 임병희 임선형 임수진 임옥희 장 혁 장만수 장영자 장용환 장재옥 장정동 장지원 전재현 정경애 정계운 정명자 정옥분 정은정 정진성 정차남 조경훈 조상호 조성원 조순희 조일금 조정옥 조진분 조혜숙 조희옥 지소순 지이쁜 최명식 최선옥 최승권 최윤선 최윤정 최지윤 최헌수 태선주 한종애 허성자 현경민 현재옥 홍성식 황성철 황세영 황숙자 황순금 황용근 황유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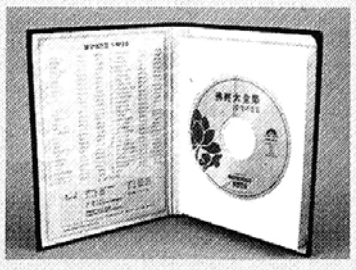
수안사

▲장기기증(80명)=강금례 고광진 고영삼 곽보선 곽정표 곽주연 권인숙 김금순 김도연 김명숙 김명실 김명자 김선기 김옥란 김외자 김정미 김택곤 김한일 김현숙 김형민 남배현 민현주 박기자 박순점 박종구 박지연 박효정 배정화 상순님 서만숙 성광모 송필영 신경숙 신미희 신창범 신태순 신태한 안명숙 양성석 양수옥 양현모 오옥순 오정옥 유병길 유옥희 유재설 윤계순 윤명수 윤상철 이가연 이경자 이근옥 이 숙 이순녀 이영란 이영애 이예순 이용석 이용택 이월순 이윤우 이재숙 이종귀 이주영 이진호 이태순 이효근 임영식 전계운 전금자 전영자 전원자 정만순 정우근 정옥자 정유진 정정순 정정현 정한용 조경자 조금학 조문자 조수호 조숙자 조양옥 조측연 채민석 채희순 최광연 최선자 최수자 최윤정 최은선 최정희 하연희 한경림 한경화 한국정 한근자 한승혜 한종순 현인숙 홍남현 홍순자 홍천표 황동철 황연희 황정옥

(사)생명나눔실천회는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 서약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02)734-8050

하루에 한번만 켜주시면 경내에(가정에) 온종일 부처님의 경전말씀이 은은하게 울려퍼집니다.

인켈 inkel 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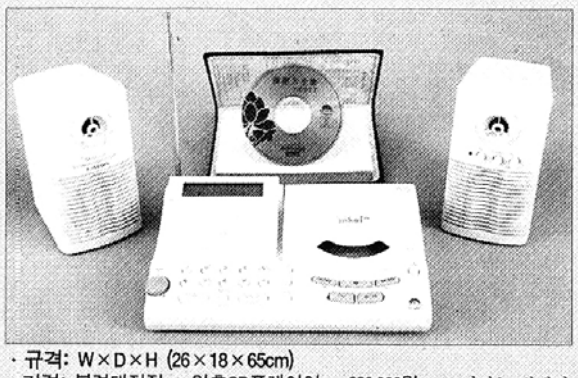


이 불경대전집CD는 인켈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데이터압축기술로 제작되어 일반 CD 30~40장 분량이 한장에 수록되므로 인켈 압축 CD플레이에서만 재생됩니다.

▶ 이 한 장에 56가지 경전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총27시간 07분)
1. 천수경(14분 05초) 2. 장엄염불(20분24초) 3. 아미타경(13분38초)
4. 화엄경 약찬게(16분 18초) 5. 반야심경(2분 49초) 6. 고왕경(5분41초)
7. 목탁성(5분 19초) 8. 법성게(2분 49초) 9. 무상게(4분 51초)
10. 관음정진(10분02초) 11. 금강경(33분15초) 12. 반회심곡(13분07초)
13. 천수경(18분24초) … 35. 우리말아미타경(27분51초)
36. 우리말 반야심경(4분00초) … 55. 회심곡(9분05초)
56. 탑돌이(8분05초)까지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가지 경전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예)반야심경 5번 천수경13번
① 번천수경부터 56. 번 탑돌이까지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켈 압축CD플레이어
GOOD DESIGN 통상산업부선정



· 규격: W×D×H (26×18×65cm)
· 가격: 불경대전집 + 압축CD플레이어 = 280,000원 ※스피커는 별매입니다.

인켈에서 세계특허를 획득한 첨단오디오로
일반 CD와 FM방송도 들을 수 있습니다.

♣ 듣고싶은 경전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56가지 경전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 경내나 가정에 있는 오디오에 연결하시면 더욱 웅장한 소리로 경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

CD 한장을 비워 두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스님들의 포교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스님들의 높은 법력이 담긴 좋은 법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CD에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찰을 찾는 신도님들에게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간: 1999. 8. 16 ~ 8. 21
(기간안에 주문한 분에 한함)

구입문의 080-900-0101 / 032-343-2267

■주문방법 :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 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가능)
■배달방법 :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이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입금계좌번호 : 서울은행 51304-6100001 (예금주 이희숙)

■보급처 : 법운 홍법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32번지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마하 쇼핑몰 신청 기획 상품 특판전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몰. 부다피아가 8월 12일부터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빠른 서비스 고급화된 매장, 부담 없는 가격을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에서 만나십시오.
아울러 고객 여러분들의 보다 쉽고 빠른 접속을 위해
새로운 도메인 주소인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로도
동시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정보 서비스, 고객중심 매장 서비스 및
저렴한 가격의 마하몰은 생활불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갈 것입니다.

(마하(摩訶)는 범어 maha의 음역으로서 일반적으로 크다는 뜻과 많다, 초월한다, 신묘하다는 뜻으로 경전의 이름이나 불교용어의 앞에 붙어서 그 의미를 확대 해주는, 불자들에게 친숙한 불교용어 입니다.)

경상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들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사찰의 강원 · 스님 요사채 · 불자들의 경전읽기 · 자녀들의 학습

- 크기 :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 재질 : ASH(느릅나무)완전원목
- 가격 : ₩85,000

옥베개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동의보감 신침(神枕) 비방 한방 베개란?
東醫寶鑑 神枕法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황제에게만 비밀 전승되어 온 신침은 여러 가지 한방 생약을 잣나무 함에 넣은 베개로서 "100일을 베면 얼굴에 광택이 나고 1년이면 체내에 모든 병이 개선되어 몸에서 향기가 나며, 백발이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나며 이목(耳目)이 청명해진다." 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런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잠자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짜증스럽거나 피곤한 당신에게 잠을 지도 진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당신에게 · 땀은 수면을 허더리도 최고의 쾌면을 하고 싶은 수험생 안성두통,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목부위에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당신에게 · 베개 높이는 수영과 직결 - 최적의 높이를 찾으시는 당신에게 · 피곤하거나, 결리는 신체부위를 시원하게 풀어줄 안마사기 필요하신분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분 코걸이는 코고는 본인에게 더 위험합니다.

■ 가격 : ₩30,000(1개),₩56,000(2개 한세트)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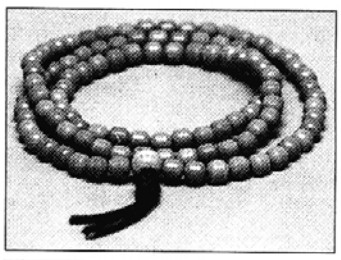


원산지 중국 ■ 가격:₩98,000

•수암옥의 특징

- 세계적 유명옥은 곤산옥(신강성),초산옥(호북,삼양),수암옥(요령성)이 대표적인데 그중 수암옥은 2300여년전 부터 내려와 그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한나라 이전부터 그 진가가 알려져 세계 최고의 옥으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 현재 북경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벽옥구패'가 수암옥으로 판명되고있다.
- 고려사 보우스님편을 참조하면 명나라 황제가 딸 노국공주를 고려 공민왕에게 시집보낼때 제일 귀중한 예물로 수암연옥으로 만든 옥대를 만들어 보내며 공민왕의 장수를 빌었다는 기록이있다.

생광석 108염주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여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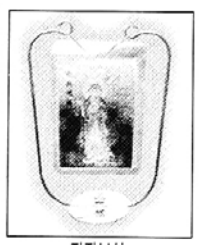
■ 가격:₩35,000

순금 차량용 악세서리

신상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자동차에 놓으시면 (부착시) 인테리어 효과와 더불어 안전 운행을 도와 드립니다.

■ 가격:₩5,000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달마도 순금판 액자

신상품



상반신



전신

달마도의 대가 매헌 윤종우 선생의 그림을 순금카드(99.9%) 위에서 느껴보세요 개인소지 벽걸이용. 선물용으로 최상의 제품입니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액자 크기 27cm X 32cm
순금판크기 : 10cm X 15cm
실용신안등록 No 24266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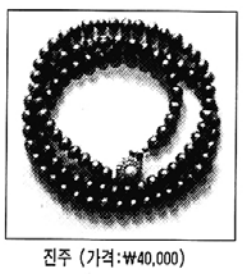
■ 가격:₩120,000

108진주 목걸이

신상품



흑진주 (가격:₩40,000)



진주 (가격:₩40,000)

천연 담소진주를 이용하여 만든 목걸이

바라밀 건강 칫솔 (어린이 선물용)

신상품



■ 가격:₩3,900

치약을 내장 시킬수 있는 칫솔로써 칫솔과 치약이 분리되는 데서 오는 불편함(치약을 떨어 뜨리거나, 과다사용)을 말끔히 해소시킨 아이디어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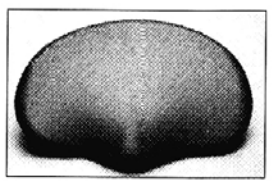
제품의 특징
1.미국 듀폰 타이넥스사의 부드러운 왕짚의 모를 사용하여 치아와 잇몸을 보호
2.치약 1회 주입으로 12~15회 사용
3.치약 떨어 뜨림, 과다사용 방지
4.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양치 습관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줌

사용방법
· 피스톤을 분리 후 칫솔 몸통을 쥐고 치약을 짜 넣습니다.
· 필요에 따라 적정양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신들음으로 다림 주문시 확인하여 드립니다

실용신안 제18263호 / 의장 제16339호 / 상표 제28424호

참선 명상 방석



국내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참선 · 명상 · 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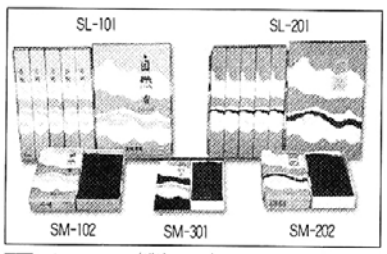
제품의 특징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한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지연스럽게 펴진다.

크기가 작아 휴대 · 보관이 용이하며 기존의 좌복 · 방석 위에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준다. 사용처는 사찰, 신행단체, 선방, 삼신 수련 단체 등에서 필요한 제품.

■ 크기 39×43(cm) ■ 가격 : ₩27,000

머리가 맑아지는 순수 자연향(참나무 숯탄가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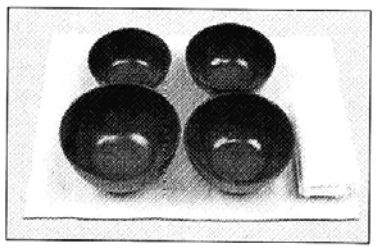
본제품(향)은 국내최고 양질의 참소생탄과 세계적인 최고급 천연 향료만을 사용, 오랜 전통의 비법으로 만들어진 향제품으로, 특무연향등을 개발 청정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본제품을 사용하는 지역은 전위가 높아지고 동시에 지기(磁氣)도 강해지며 전자장이 높은 환경지역으로 된다는 과학적 근거도 학계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 규격 : (가로×세로×높이)

- SL-101 26.5×16.5×5㎝
- SL-201 26.5×16.5×3㎝
- SM-102 15.5×8.5×3㎝
- SM-202 15.5×8.5×3㎝
- SM-301 15 × 15×2.5㎝

가격 · SL-101 ₩10,000(개당 ₩2,000) · SM-201 ₩12,000(개당 ₩2,400) · SL-102 ₩4,200 · SM-301 ₩3,000 · SM-202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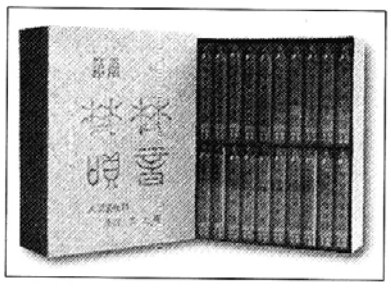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 와발우



발우는 스님들이 항상 지녀야 할 도구의 하나로 밥그릇을 말한다. 원어는 발다리(鉢多羅-patra)인데 재료나 색깔, 양은 규정된 법에 따라야 하므로 '양에 맞는 그릇(應量器)' 이라 해석한다.
〈율장〉에서 본래 규정은 나무로 만든 발우를 사용하지 못하게하였고 철발(鐵鉢)이나 와발(瓦鉢)을 사용하게 하였다.
본 제품은 해인사 율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외발우(瓦鉢盂)이다.

■ 외발우(4합) - 가 격 60,000원 무게 2.7Kg
■ 외발우(2합) - 가 격 30,000원 무게 : 1 Kg
(2합은 제가 불자들위한 발우 입니다)

문구암스님 법음 · 법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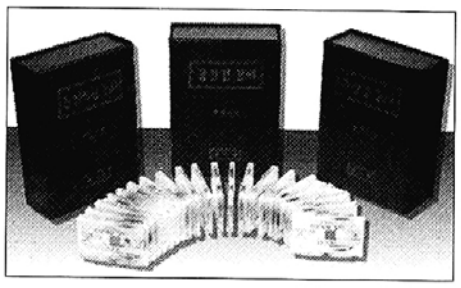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테이프 1질

· 불공의식, 심신이운, 영산작법,, 관욕의식 등 분야별로 녹음되어습니다.

1.불공의식 2.심신이운 3.신장청 · 손증권공 4.상단청 5.상단권공 · 거목 6.대령 · 관욕의식 7.대령 · 관욕의식 II 8.대령 · 관욕의식 III 9.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영산작법 I 11.영산작법 II 12.영산작법 III 13.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14.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지장권공 II 16.전시식 17.배송 18.운신게 19.법사이운 · 명전점안 20.종성 · 천수작법 · 오집

■ 가격 : ₩60,000

무비스님 특강 녹음 테잎



무비스님의 경전 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환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금강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지장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진심직설 강의
  - 테잎 20개 ₩45,000

바위속에 숨은 부처



바위속에 숨은 부처. 대자대비 바위속에 숨은 영겁의 미소를 영상으로 보며 더위를 식힌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믿음의 대상인 부처님상을 많이 조성하였고, 이름있고 성스러운 산, 특히, 경주 남산은 불보살이 머물러 있는 신령스런 영산으로 믿어 수 없이 많은 마애불과 석불 석탑이 조성되었다. 국보급 유물과 지방유형문화재 등 빼어난 유물들이 불국정토 화엄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려던 선인의 혼이 서린 성역임을 실감케 한다.

〈제작〉 대정프로덕션
문화관광부 등록 제1호/구성 감독-황기태
상영시간 : 바위속에 숨은 부처 - 40분
반야용선 - 30분

■가격:₩13,000

달마 양면 손 자수(소장용 작품)



머리카락 굵기의 실을 이용하여 오랜시간 불자님 손안에서 수만 수십만번의 섬세한 자수 작업으로 한올 한올 수놓아져 세겨진 놀라운 작품
신심이 바탕이 된 기술로 심혈을 기울여 세겨놓은 불교 예술품에서 자수 미술의 극치를 경험하십시오. 수 놓은 면 앞 뒤를 유리로 투명화하여 전등 빛이나 촛불이 어우러질때는 경이로움과 신비로운 감동이 함께 할 것입니다. 흔치않은 답미도 명품의 소장자가 되십시오. 작업시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므로 공급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양면수림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세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수 기법 (앞뒤를 보아도 똑같은 형제가 나타남)
■ 액자크기 : 25 × 25cm(받침대 포함)

■가격:₩500,000

불교전통 창살문양 손수건

한국의 대표적 사찰의 전통창살문양을 손수건에 그대로 재현한 고급 면 손수건입니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시면 불심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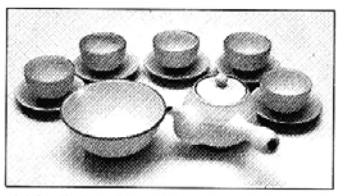


신흥사 극락보전 · 대승사 대웅전 · 봉은사 대웅전 · 법계사 대웅전 · 봉국사 대웅전
용문사 대웅전 · 은해사 대웅전 · 금산사 대장전 · 중심사 대웅전 · 신흥사 극락보전

- 재질 순면 100%
- 인쇄 나염인쇄 (칼리)
- 가격 ₩5,000

다량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고산다기



고산 이규탁 선생은 임진란때 일본으로 강제납치 되었던 조선도공 팔선의 혼을 사백여년만에 한국에 되돌려온 도예가이다. 팔선의 십일대손인 고취정산선생이 그 조선전래 비장의 도예술인 그 불꽃을 조국에 되돌리고자 한국의 도예특기자를 전국의 수많은 지망생 중에서 선발하여 일본으로 데려가 그 문하에서 5년간 기법을 연마시켰던바 그 수제자가 이규초 선생이다.
이리하여 이규초 선생은 그 도예진수를 발휘하여 국내외 전시회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내고 있으며 따라서 고산 이규초선생은 일본살산기의 예술혼의 불꽃을 현해탄을 건너 고국에 옮겨놓은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제품은 이러한 역사를 지닌 고산요(高山窯)에서 만들어 진 다기이다.

■가격:₩120,000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



대 ₩63,000(11×25cm)
중 ₩47,000(8×16cm)
소 ₩31,000(6×13cm)



대 ₩219,000(15.5×25cm)
중 ₩89,000(10.5×16cm)
소 ₩69,000(9×13cm)



대 ₩37,000(11.5×18.5cm)
중 ₩25,000(8.5×14.5cm)
소 ₩17,000(6×10cm)

신라의 이 히면 가장 먼저 성덕대왕신종. 속명은 에밀레종을 연상하게된다. 봉덕사 선덕대왕신종 은 구경(口徑) 2.227mm, 전고(全高) 3.663mm, 두께 203mm, 음통고(音筒高)648mm의 거종으로서 종체의 규모에 있어서나, 성실공히 한국의 대표적인 최상 최우수 걸작품이며 등왕의 청동문화의 정수를 나타내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세기의 명종이다. 이외 같은 문화의 유산을 재현하여 100% 청동과 100% 수공작업으로 만들었다.

반야 불교반지



불자의 자긍심을 세겼습니다.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태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정견(定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득력(十六大力)
지력(志力), 의력(意力), 행력(行力), 참력(堅力)
강력(强力), 지력(持力), 혜력(慧力), 덕력(德力)
변력(辯力), 색력(色力), 신력(身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용법력(說法力)
항마력(降魔力)

■ 재질 금큐빅(18k,14k-1.5돈) ■ 가격 : ₩130,000(18k), ₩120,000(14k) ■size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쑥환



■ 가격 : ₩55,000
(1달분 1통 (1500정))
■ 가격 : ₩80,000
(2달분 2통 (3000정))

3년 숙성시킨 강화사자발쑥 쑥 환 으로 드십시오 !

사지발 쑥 환이 좋은 3가지 이유
1. 복용과 휴대가 매우 편리합니다
강화사자발쑥 환은 기존의 환제품과는 달리 쑥 특유의 쓴 맛을 꺼려하는 남녀, 노소 특히 어린이도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휴대나 보관도 매우 편리합니다
2. 효과가 빠릅니다
쑥 환이 효과가 빠르다는 것은 누구나가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저녁 과식후 속이 더부룩 할 때 20환 저도를 드시면 다음날 아침 속이 편안하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쑥 100%입니다.
사자발쑥 환은 순수 강화사자발쑥 100%로 고품질의 강화도 특산품입니다.(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쑥 환 제품중에는 쑥을 말이지도 않고 분쇄후 풀하고 섞어서 환으로 만든 제품도 있는데 주의 바랍니다.)

향적원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로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찌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풋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갈 장아찌	12,000원	· 율희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법성게 걸망



법성게는 화엄경의 방대한 내용을 7언 30구(210자)로 압축 요약하면서도 그 심오한 진리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으며 의상스님이 저술 하였다.
이러한 법성게를 걸망에 디자인 하여 만든 제품이다. 스님 및 일반신도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걸망 옆에 지퍼를 이용 사용 자가 편리하게 물건을 넣고 뺄 수 있게 하였다.

■ 크기 : 500×460(mm)
■ 색상 : 회색, 빔색, 진베이지색

■ 가격 : ₩15,000

법회안내

보현 불교대 수계설법

고산스님(조계종 총무원장) 4일 오후 7시 대전 보현불교대학 보살계수계법회. (042)624-6555

광주 관음사서 초청



백운(미륵사 주지·사진)·정락(미륵사 주지)·암도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 2일, 3일, 4일 오후 7시 광주 관음사 큰스님초청법회.(062)223-7666

자비정사 화엄경법회



부동스님(자비원 이사장)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자비정사 〈화엄경〉법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육조단경〉〈중용〉법회.(0391)647-9292

강남포교원 금강경 강의

이제열법사(유마선원 원장) 9월~12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강남포교원 유니텔부처님나라 〈금강경〉법회. 011-226-9477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9월2일 (목)



◇만해스님의 온기가 묻어나는 백담사에서 수행의 의지를 다지자.

■백담사·오세암·봉정암 철야기도=용진신행회는 4일까지 설악산 백담사 오세암 봉정암에서 2박3일간 철야기도법회를 갖는다.(02)2279-1191

9월4일 (토)

■금강경독송회 철야통합법회=금강경독송회는 5일까지 경주 두대마을에서 전국 금강경 수지독송회원을 대상으로 철야 통합법회를 갖는다. (02)742-0172

■청소년 참선교실=부산불교교육원은 청소년 참선교실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와 7시에 연다. 호흡법과 마음다스리는 법을 지도한다. (051)466-4080

■도갑사·무위사·회산연꽃방죽 답사기행=옛풀은 5일까지 영암 도갑사와 무위사 무안 회산연꽃방죽을 둘러보는 답사기행을 떠난다.(02)2266-1233

9월5일 (일)

■내소사·개암사 순례=터사랑은 꽃창살이 아름답다는 부안 내소사와 개암사 등 전남 부안 변산반도 일대 순례를 떠난다.(02)725-1284

■대부도 둥지청소년의 집 방문=서울불교청년회는 오전 8시 대부도 자현사 둥지청소년의 집을 방문,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한다.(02)730-9108

9월7일 (화)

■동화사 갓바위 참배=국토문화연구회는 오전 8시 대구 팔공산 갓바위와 동화사로 참배법회를 떠난다.(02)2275-4333

'선체험' 어떻게 할것인가

무불선원 가을강좌…참선·농사체험·교리강좌도

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이 가을을 맞아 특색있는 강좌를 마련하고 불자들을 기다린다.

눈길을 끄는 강좌는 화두공부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에 실시하는 이 강좌는 한국불교선학연구원 이은윤원장이 화두에 대한 이해와 선사들의 수행법을 알기쉽게 지도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참선수행반은 무불선원 선원장 상묵스님이 지도한다.

또 농사체험을 통한 선농일치의 가르침을 체험하기 위한 선과생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수덕사 농장을 가족단위 또는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 단체로 현장체험을 하게된다. 이들 강좌는 모두 무료다.

이밖에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주경스님의 붓다의 근본사상 강좌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이은윤 원장의 중국선종사 강좌, 월 1회 실시하는 교수특강, 자율정진프로그램 등도 진행된다.(02)541-0002 이은자 기자



◇무불선원에서는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와 수행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게 시 판

강좌

▲봉선사불교교양대학=봉선사가 제19기 광릉숲속 봉선사 불교교양대학을 연다. 초심자를 대상으로 5개월간 불교기본교학과 참선요가, 불교와 사회, 반야심경 강의 등을 진행한다.(0346)527-1951

▲금강정사 불교기본교육=금강정사는 제23기 불교기본교육 강좌를 실시한다.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수행법, 불교교리, 부처님생애 등을 지도한다.(02)893-2700

▲청소년 교육문화강좌=목동청소년회관은 9월부터 한자와 예절, 토론과 논술, 서예, 컴퓨터홈페이지제작, 영어연극, 영어신문교실 등의 교육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과정=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과정을 개설한다. 강의는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한다.(02)738-7860

▲불교입문자교육=부산불교교육원은 제28기 불교 입문자교육을 실시한다. 6개월 과정으로 사찰구조, 기초교리, 부처님생애, 수행방법 등을 지도한다.(051)466-4080

▲간병인양성과정=불교보건복지대학은 전문 간병인 양성과정인 제2기 복지자비간병봉사자 과정을 개설한다. 9월 7일 개강.(051)647-6556

▲사찰예절·불교철학=혜원불교교양대학이 제8기 강좌를 개설한다. 불교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사찰예절, 불교철학 등을 강의한다.(051)866-7771

▲도예교실=대흥사부산포교원 부설 가빈문화원은 도예교실을 연다.(051)636-5114

▲청소년 문화강좌=양정청소년회관은 9월부터 영어, 일본어, 서예, 가야금, 장구, 노래교실 등의 문화강좌를 개설한다.(051)868-0750

▲전통찻집 창업반 특강=초의학회는 전통찻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제1기 한국차문화특강 창업반 강좌를 실시한다. 10월 1일~12월 1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강의한다.732-2317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설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에서 가을 강좌를 시작한다. 삼장을 체계적으로 연찬하고자 하는 스님과 불자로서 강원·중앙승가대·동국대 졸업등의 학력을 갖추어야 동참 가능하다. (02)765-9602

▲원효불고대학 문화강좌=선체조와 사찰요리, 민요교실 등의 문화강좌를 실시한다. 선체조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사찰요리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민요교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다.(053)563-9154

▲선재스님의 푸른요리=능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선재스님의 푸른요리 강좌를 실시한다. 3개월 과정에 6만원. (02)571-2988

▲추석 교잣상 특별강좌=욕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 금요일 오후 1시 30분 가을맞이 추석 교잣상 특별강좌를 실시한다. 1개월 과정에 2만원.

모집

▲청소년복지 전담간사=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는 청소년복지를 전담할 간사를 구한다.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교육학, 철학 전공자로 운전과 pc사용이 가능해야 한다.(032)577-0266

▲소년가장·독거노인후원자=낙동종합복지관은 아동도서관, 청소년등아리지도, 노인한글교실 등의 자원봉사자와 소년소녀가장세대, 독거노인 등의 후원자를 모집한다.(051)271-0560

▲실직가정 한가위 지원사업=두송종합복지관은 실직가정 한가위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수혜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부산 사하구 거주 실직가정세대주.(051)265-9471

▲학습지도자원봉사자=개금사회복지관은 저소득 가정 아동 학습지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051)893-5034

▲치매노인 자원봉사자=청담노인주간보호센터는 치매, 중풍노인 및 독거노인들의 말벗봉사를 해줄 성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월~금요일 2시간 정도 봉사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02)806-1375

▲세탁서비스대상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내 저소득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심으로 실시하는 세탁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한다.(02)385-1351

▲환경-이웃 주부봉사단=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구로구내의 환경과 이웃을 위하는 일에 동참할 주부 봉사단을 모집한다.(02)852-0525

부음

▲조병활기자(불교신문 편집국)의 부친 조시원씨가 8월 24일 오전 9시 79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경북 청통면 신덕1리에 안장됐다.

종단소식

조계종

용주사 교양대 학생 모집

화성 용주사(주지 정락)는 불교교리를 중심으로 신행활동과 전통불교문화의 이해를 통해 쉽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제4기 불교교양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16일 개강하는 용주사 불교교양대학은 3개월과정이며 교양대학 기초반과 불교문화연구반 과정이 개설된다. 특히 불교문화연구반은 참선수행반, 경전연구반, 문화탐사반, 불교음악반, 서예반, 도예반으로 편성,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0331) 234~0040.

동화사 신도기초교육

갓 입교한 초심불자나 기존 신도를 대상으로 4일부터 신도기초교육을 실시한다. 동화사 포교당 보현사에서 매주 토 오후 3시 실시되는 신도교육의 내용은 '불교개론' '연기론' '신도조직', 암자순례 등이다. (053)985-4404

태고종

화경스님 전산 종무위원에



전산담당 종무위원에 이화경스님〈사진〉이 임명됐다. 화경스님은 1948년 인천生으로 75년 청주보살사에서 동룡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선암사 강원과 동방불교대,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수료하고 현재 화성 원광사 주지로 있다.

진각종

'포교활성화' 간담회

통리원(원장 성초)은 8월 26일 오후 1시 통리원 회의실에서 포교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성초통리원장, 일정 교육원장, 휴명 종의회의장, 진산 사감원장, 6개 교구청장과 통리원 및 교육원 간부 스승들, 그리고 총림강회(전국 신교도조직) 회장단을 비롯 모두 30여명이 참석했다.

종암 경찰서 의경법회

종암경찰서 전 의경을 대상으로 정훈교육 및 법회를 8월 24일 성북구 종암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혜정종학연구실장이 특별설법한 이날 법회에는 의경 2백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법화종

경기남부 종무원 개원



경기남부 종무원 개원식이 31일 오전 11시 성남시 석황사에서 거행됐다. 총무원장 운경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신도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종무원장으로 박보광스님〈사진〉이 취임했다. (0342)741-1960

대승종

종단스님 하계수련

교육원(원장 법정)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2박3일간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종단스님들을 대상으로 하계수련 교육을 실시한다. (0347)762-5180

삼론종

청주서 관정수기 법회

총무원(원장 혜공)은 불국정토구현기원 제2회 관정수기대법회를 7일 오전 11시 청주 시민회관에서 봉행한다.

정토종

한국인 희생자 위령재



총무원(원장 지산·사진)은 일본 관동대지진 76주년을 맞아 한 일 양국대표단 및 재일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11시 일본 지바현 관음사에서 한국인희생자 위령대재를 봉행한다.

적멸종

대한불교 적멸종 창종

대한불교 적멸종이 8월 24일 창종됐다.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을 종지로 하는 적멸종의 종조는 월공스님, 원로위원은 혜초 혜명 혜능 혜철 혜원 혜인 현능 지오 스님, 종무국장은 혜인스님이다.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47-1 성문사. (032)442-1008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初發心의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전국의 佛子님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20일 대의원 총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으로 선출된 백 창기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불교에 절실한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되찾는 것이라고 저는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경전에서도 初發心時 便正覺이라고 했듯이 부처님을 처음 만나던 날의 그 마음, 바로 初發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중앙신도회가 체계적인 기틀을 잡아 불자님 모두의 염원과 같이 활발한 대내외적 활동을 전개하여 불교의 발전과 아울러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精進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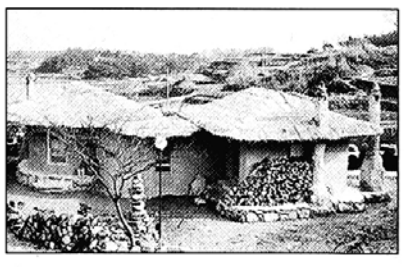
불기 2543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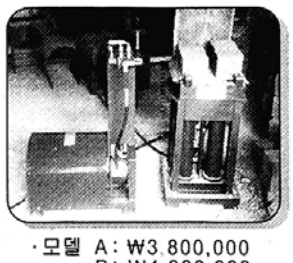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백창기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3,800,000
B: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학제의 신간
해서 명리진평

혜서 신명리진평은 자평서(子平書), 적천수(適天殊), 궁통보감(窮通寶鑑), 명리정종(命理正宗), 잡론구결(雜論口訣), 추명가(推命歌)등 고서(古書) 전부를 하나로 묶어 알기쉽게 완성시켰습니다.

▸▸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이책을 출간하기 위해 필자는 오랜 연구노력끝에 5년간에 걸쳐 완성시켰습니다. 우리의 역학발전에 꼭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혜서 조 영 수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사주학핵심비결

우리말 21C 최신판 대운만세력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 전국 서점 판매중 ※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여는 사람은 세월(철)을 알고 행해야 한다.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쓰기와 한글표기를 중심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새로 만들었습니다.



혜서 조 영 수 지음
4×6배판/ 값 15,000원
신국판/ 값 3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9000원(大)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택민 편저/정가 12,000원(大)
4. 명리학과 오운육기론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택민 편저/정가 25,000원(大)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 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大)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舁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컴퓨터본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컴퓨터본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택광 지음 /정가 17,000원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관음출판사

염주 사기판매 피해 확산

불사금 마련 빙자 개당 20만원 넘게 팔아
불법단체 전국서 활개…스님 · 명사이름 도용

장학기금마련이나 팔만대장경 불사, 교도소 교화 후원법회를 빙자한 고가(高價)염주판매 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불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8월 24일 부산에서는 '만공스님 초청 소원성취법회'라는 제목의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만공스님 법문, 2부 법성스님의 축원, 3부 연비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2부에서는 '축원에 대한 정성금으로 하루 1천원씩 모아 7개월에 걸쳐 지로로 입금해야 한다'는 내용의 축원카드를 작성케 했다. 염주는 법회참석 기념품으로 화가 중광스님의 인쇄본 그림과 함께 모든 참석자들에게 증정됐다. 사실상 염주를 21만원에 판매하는 행사였다.

이 행사를 진행한 '대한민국 제2건국 팔만대장경불사회'와 '자비실천불자연합회'는 염주판매를 위해 급조된 단체로 밝혀졌다. 팔만대장경불사회 운영위원이라는 명함을 건넨 주최측 하쾌봉씨는 "만공스님의 의미있는 불사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염주판매를 극구 부인하다 "두 단체가 염주판매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라고 시인하고 "염주판매 수익금을 자신과 스님이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행사는 8월 13일부터 24일까지 10차례나 열렸으나 팔만대장경불사회 회장으로 안내장에 기재된 중광스님은 한차례도 참석치 않았다. 중광스님은 법회가 열리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또한 서울 용봉사 주지인 만공스님이 주지로 있었다는 신흥사와 조계사는 조계종 교구본사가 아닌 사설사암인 것으로 밝혀졌다.

8월 19일 인천의 모예식장에서도 'S스님의 교화사업 기금마련 및 범룡스님 초청법회'라는 타이틀로 법회가 열렸지만 S스님은 나타나지 않은채 부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축원카드를 작성케하고 18만원짜리 염주세트를 판매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는 불자 김춘환씨(인천시 도화 2동)는 "조계종 원로 범룡스님이 오시는 줄 알고 왔는데 노스님과 이름이 똑같은 스님이 마치 약장사처럼 염주장사를 해 기분도 나빴고 마치 불교를 팔아 장사판을 벌이는 분위기라 불쾌했다"고 본사에 제보했다. 한편 이같은 염주판매 법회는 7월에도 한 유명불자가수가 회장으로 있는 장학회의 기금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불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염주는 한 회사에서 공급받으며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털어놓은 하씨의 말에 따라 종단이나 종단협의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조계종 호법부는 이와 관련 "불자들의 순수한 자비심을 이용해 염주 건강기구를 배포하고 고액의 약정시주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자들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정성운 · 천미희 기자
(swjung@buddhapia.com)



◇불사금 및 장학기금마련을 빙자한 염주판매 기짜법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7월 부산에서 10일간 열린 염주 사기판매.



◇천태종 법회산림법회에 참가한 불자들은 사경집을 머리에 이고 해탈을 발원했다.

천태종 구인사서 첫 법화산림

3일간 사경…오종법사 되길 발원
3만신도 운집…기념탑 조성키로

"법화경 사경공덕이 헛되지 않게 일상에서 열심히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일체중생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설한 〈법화경〉을 5개월간 빼곡히 노트에 사경한 불자들은 천태종(총무원장 운덕) 본산 구인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법화산림법회에 참가하여 부처님전에 간절히 발원했다.

지난 3월부터 접수를 받아 영산불공과 함께 사경불사에 동참한 3만여명의 불자들은 이날 대학노트 2권분량의 법화경사경집을 곱게 보자기로 싸 머리에 이고 부처님전에 봉헌했다. 동참불자들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구인사에서 천태종 종회의장 덕산스님으로부터 법화경 법문을 듣고 관음정근을 해왔다.

천태종은 이번 사경불사를 기념하기 위해 전국 본말사에 사경불자들의 공덕을 기리는 불탑을 세운다. 또 소의경전인 법화경의 수지(受持) 독(讀) 송(誦) 해설(解說) 서사(書寫)를 통해 참다운 오종법사(五種法師)가 되어 수행정진함으로써 해탈에 이르게 하는 사경법회를 매년 개최키로 했다.

김원우기자

독거노인돕기 대회
고산스님 부산서 법어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부산 시민회관에서 독거노인돕기 대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불교신문사 주최, 성재문화원 주관으로 사부대중 3천여명이 동참한 법회에서 고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마음을 바르게 닦아 어느 한곳에 고정됨이 없이 지혜롭게 써야 한다"며 불자들의 바른 정진과 신행생활을 당부했다.

동화사 포교활동 강화

상임포교사 · 통역인배치…홍보책자 보급

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산 동화사(주지 성덕)가 포교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

동화사는 자체적으로 선발한 상임포교사 10명과 대구관광협회(회장 김종수)에서 파견한 전문통역가이드 6명을 8월 25일부터 경내에 배치, 사찰안내 및 외국인 통역을 맡기고 있다. 이를 위해 동화사는 경내에 안내부스를 설치하여 영어일어 중국어 통역가이드 각1명씩을 매일 상주시키고 토 · 일요일에는 상임포교사들이 교대로 사찰안내를 하도록 했다.

동화사는 또 격월간으로 발행하던 동화사보를 9월호부터 월간으로 바꾸고 규격을 타블로이드판으로 확대하는등 격(格)을 한단계 높였다. 뿐만아니라 동화사 안내책자를 기존의 한글판외에 영어와 일어판을 발간하고 총50쪽분량으로 늘려 과계사, 부인사, 부도암등 팔공산에 소재한 사암을 포함시켜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中 강서성 답사 마친 조영록 교수
"보화사, 구선선문과 인연깊다"



중국 강서성을 답사하고 돌아온 조영록 교수(동국대)가 학계에서는 처음으로 중국내 한국 선종사찰 답사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겨울 호남성 답사를 준비하고 있는 조 교수는 "복건성 강서성 호남성 등에 산재해 있는 선종사찰들은 우리나라 선종과 관련이 깊다"며 "중국내 한국관련 선종사찰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은채 의면 받아왔다"고 밝혔다.

조 교수가 이번에 답사한 강서성의 많은 사찰들 가운데 구산선문 관련 여러 스님들이 구법여행을 한 곳으로 공공산 보화사(寶華寺)를 꼽는다. 9세기 전반 보화사에 서당 지장스님이 주석하고 있을 때 구산선문 가운데서도 가지산파의 도의선사, 실상산파의 홍직선사, 동리산파의 혜철선사 등이 구법행각을 결쳤음을 알려주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이처럼 우리나라 구산선문 가운데 3곳의 산문이 보화사에서 법을 이어갔는데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진안군 관람료 지급 판결
마이산탑사 분쟁 해결

진안 마이산 탑사와 진안군이 사찰관람료 예치금 사용과 관련하여 97년부터 3년간 진행된 분쟁이 탑사의 법정승소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이보현)는 8월24일 탑사가 진안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탑사예치금 사용승인요구 재판에서 "양측이 공동으로 예치한 탑사 관람료 4억7천6백만원에 대한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탑사의 도지정문화재인 석탑주변 정비사업은 문화재 환경사업과 직 ·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만큼 진안군이 관람료 사용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며 "문화재예치금을 탑사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87년 대웅전 신축공사당시 진안군이 관람료 예치금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며 "96년 탑사가 주변환경정리사업과 관련 관람료 예치금 사용신청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동련불교교사대 졸업식
어린이 지도자 45명 수료

어린이 법회지도자 양성을 위해 개교한 동련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은 21일 보현선원 법당에서 제1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 정관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 졸업생 45명등 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법흥사 흥녕선원
21세기 선불교 중흥도량 건립

삼천불전 · 일주문 복원
문화재 반환운동 벌여

신라 구산선문중 사자산문의 근본도량이며 5대 적멸보궁중 하나인 강원도 영월 사자산 법흥사(주지 도완)가 21세기 인류의 정신이 될 선불교 중흥도량으로 거듭난다.

법흥사는 2천여명의 스님들이 참선수행에 정진하는등 선수행납자들의 보금자리였던 흥녕선원 복원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선센터를 개설한다.

또 천년가람의 위용을 되찾는 삼천불전등 각 당우를 복원하고 사자산문의 제2 개창 의미를 담은 일주문을 건립한다.

법흥사는 8월 25일 적멸보궁을 찾는 참배객과 기도객들의 편의를 위한 식당및 요사채 건립 기공식을 갖고 중창복원을 위한 첫 삽을 떴다.

현해(월정사주지) 원행(삼화사주지)스님을 비롯하여 김태호의원(한나라당) 김태수 영월군수, 박순욱 영월경찰서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공식에서 주지 도완스님은 "법흥사 중창을 위해 1차로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식당과 요사채 2동을 경내와 중대에 내년말까지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법흥사는 중창복원과 함께 문화재반환운동과 주변경관 조림및 환경보호활동과 사유지매입등도 올해말까지 전개키로 했다.

도완스님은 "현재 단국대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법흥사 출토 금동불상의 반환을 요구하고 사찰입구에서 경내까지 한국의 토종 야생화를 심는 것은 물론 열목어 치어를 법흥사 계곡에 방생하겠다"며 "절을 찾은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생태환경도 공부할 수 있는 친환경적 사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왜란과 6 · 25전쟁, 실화등으로 인해 폐허가 된 채 초라하게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던 법흥사는 도완스님이 97년 주지소임을 맡으면서 중창복원을 발원하고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올해도 6 · 25당시 암매장된 법흥결사대의 시신을 발굴하여 이장하고 산신각 건립과 징효대사 탑비보수와 주변터를 정비한바 있다.

0373) 374~9177.

김원우기자



◇구산선문중 하나인 사자산문 법흥사가 21세기 선불교도량으로의 복원을 염원하여 25일 중창불사 기공식을 거행했다. 원내는 주지 도완스님.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봐타센터
아봐타코스
◐아봐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보죠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참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진달래
누구에게 보이려
꽃망울 꽃을 피웠나
곱디고운 모습으로
함박 웃음 머금고
분홍빛 드리운
솜털 구름위로
그대 그리워 바라보며
분홍빛 가슴으로
얼굴 묻는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게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6호 탑골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뒷편 효원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2275-5592~3
핸 드 폰 : 018-277-5592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한국신기록을 획득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용린 佛字체」 최초로 공개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신기 · 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주문이 많으므로 단체주문은 사양합니다. (1가정 1부씩)
◀용린 佛字체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6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철야용맹정진 수련회
기본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완벽하게 절하는 비법
◈염불 금강경 독경하는 법 : 수행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몸에 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립고 지겹고 침은 마르며 목이 아프고 번뇌망상은 들끓어 삼매에서 멀어진다. 자성의 운율대로 해야 단전호흡이 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에 한맺힌게 풀려 큰 소리로 염불해도 목 아프거나 쉬지 않고 힘차게 박력있게 신명나고 자신있게 업장을 조복받는 상근기 되는 수행업.
◆ 장궤합장자세, 좌선자세, 행선, 와선 수행시 자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 정진 (토요일 10시- 일요일 오전 10시)
한글금강경 봉독2회, 석가모니불 염불 정근, 도인체조건강법, 108배2회, 와선호흡법, 수행상담 점검, 축원 기도 7회
◆ 넉넉한 복장, 세면도구, 예약수련 30명, 수련비 무료
출가예정자 수행체험, 특별소원성취기도 수행자
업장소멸용맹정진 수행자를 모십니다.
◆철저한 수행교육후 수시 수행점검,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식, 식후 30분 행선, 운력1시간 (일주일 3만원, 보름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올곧게 잘하시는 고학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넘고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차돌 암벽에서 다량의 약수가 나옴 (일년 두어도 이끼가 끼지 않는 특급수)
아롱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사회복지법원 〈열린가람〉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복지활동에 참여하실
불자 직원을 모집합니다.
다 음
모집기관 :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포항자활지원센타 / 장애아조기치료실 특수교사 / 무료노인요양시설 '정애원'
모집인원 : 5명 / 1명 / 3명
모집내용 : 경력사원 신입사원 / 치료사 / 간호사 생활보조원 취사원
응시자격 : 4년제대학 사회복지학과 및 경상계열 졸업자, 졸업예정자 / 특수교육학과 및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고졸이상 간호사자격증소지자 및 간호조무사 포함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 대학원졸업자 관련기관경력자우대 / 침식가능자 우대
1. 제출서류 : 이력서1부, 자기소개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격증사본
2. 제출기간 : 1999년 9월15일까지(우편접수가능)
3. 문의처 : 학산중합사회복지관 0562)248-6165, 6166

사찰들 '산 지킴이' 나섰다

시민·환경단체와 연대 환경보존운동 전개

"지리산·오대산·가야산등 무분별개발 막자"

8월 23일 오후 2시 지리산 화엄사 연화당.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 쌍계사 총무 법광스님 등 지리산의 대표 사찰 5곳의 스님들과 진주·순천·남원·대구 YMCA와 서남대, 순천대 총학생회 등 지역 20여개 단체 50여명이 모여 '지리산살리기 시민연대(공동대표 도법스님)' 출범식을 가졌다. 지리산일대 사찰을 비롯 시민단체와 학계가 연대한 '지리산 살리기 시민연대'는 지리산의 환경브존을 위해 식수댐 백지화 운동을 벌이고 환경파괴의 주범인 성삼재 도로에 대한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지리산지역 폐교를 활용하여 지리산 역사·생태 박물관으로 만드는 등 지리산의 역사발굴 활동도 활발하게 벌일 예정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개발위주 정책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산들이 오염과 환경파괴로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사찰들이 '지리산 살리기 연대'와 같은 '큰 산 지킴이'로 앞장서고 있다. 지리산일대 화엄사 실상사 등 5개 사찰과 오대산 월정사, 가야산 해인사, 가지산 석남사, 희방산 봉암사 등.

울산 석남사(주지 영운)는 12일 가지산지키기 시민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울산시불교신도회, 태화강보존회, 환경운동연합 등 3천~4천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이날 걷기대회는 지역단체들과 시민이 참여하여 울산시가 추진중인 가지산일대 상업지구건설 개발계획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생태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석남사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가지산일대를 생태환경보존지구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가지산일대는 천연기념물인 붉은배새매 등 희귀 동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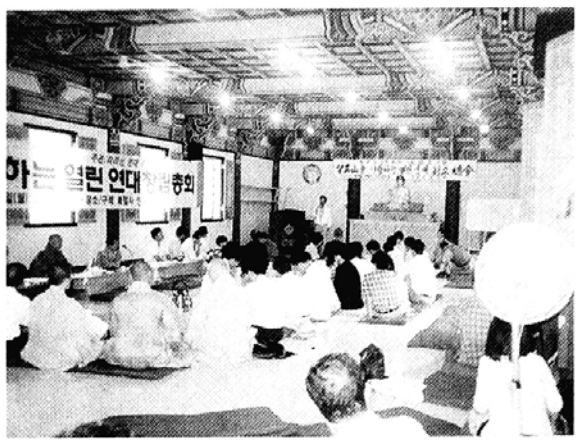
가야산 지키기운동을 펼치고 있는 해인사(주지 보광)는 가야산을 관통하는 59번 도로건설 저지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다. 해인사는 지역민및 환경단체들과 연대해 실질책임자인 경남도지사에게 질의서를 보내는 등 가야산의 훼손을 막기위해 법적 대응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불교 최대선원인 문경 봉암사(주지 효광)도 현재 희방산의 생태환경조사를 실시중이다. 리조트 온천 광산 등 56개 사업이 예정돼 있는 희방산을 지키기 위해 봉암사 역시 생태환경보존지구 지정을 요청, 개발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월정사(주지 현해)는 8월 13일 열목어가 사는 청정 오대산 가꾸기 캠페인을 실시(본지 234호 22면기사 참조)하는 등 오대산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월정사가 주도해 군과 경찰, 지역민과 사회단체가 연대하는 오대산 지키기는 정기적인 환경정화활동외에 열목어 치어 방생, 산중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불교성지 오대산을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

이같이 사찰들이 지역의 시민·환경 단체와 연대하여 벌이는 '큰 산 지키기운동'은 자연정화에 나서는 소극적 활동에서 나아가 환경보존지구신청 등 환경파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역사적 문화적인 활동까지 포괄하고 있어 사찰의 수행환경 보호에 적극적인 대안으로써 있어 점차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8월23일 지리산 화엄사 연화당에서 열린 '지리산 살리기 시민연대' 창립대회. 쌍계사 화엄사 실상사 대원사 법화사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리산뿐 아니라 오대산 가야산 가지산 희방산의 사찰들도 우리산 지킴이로 나섰다.

"일본인들에 한국불교 알린다"

해인사 · 합천군, 내년 사찰수련회 마련

오부치총리의 해인사 참배를 계기로 부쩍 늘어난 일본인 관광객들이 늘어난 사찰에 머무르며 한국불교를 체험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보광)와 합천군은 내년 봄부터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수련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일정등에 관해 협의중이다. 오는2002년이 팔만대장경이운 6백주년이 되는 해이자 월드컵 한일공동개최 연도인 점을 기념해 열리는 수련회는 한국불고를 체험하기 위한 발우공양 법문 좌선 암자순례 등이 마련될 예정.

해인사 포교국장 경성스님은 "해인사가 법보종찰인점을 감안해 사경에 비중을 둘 방침"이라며 "한국사찰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인만큼 해인사를 소개하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수련기간은 1박2일 내지 2박3일 정도로 매년 봄·가을 각3개월간 월1~2회 정도로 수련회를 개최하여 반응이 좋으면 기간과 횟수를 차츰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지하철게시판서 읽는 '부처님 가르침'

"어려운 문제를 만나 고뇌하고 있다면 자신의 발밑을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해법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특히 자기에게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서울 종합운동장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지하철역 벽에서 이같은 법구를 볼 수 있다.

8월 31일부터 서울 지하철 115개역사에 각 4개씩 총 460개의 '자비의 말씀' 게시판이 부착돼 하루지하철이용객 3백50만명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하철법우회(회장 민병훈)는 8월 24일 종합운동장 역사에 '자비의 말씀' 게시판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자비의 말씀' 게시판 운영위원장 원혜스님(봉은사 주지), 서울지하철법우회 지도법사 화암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을 비롯해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관계자, 법우회원, 봉은사 신도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대불청 서울지구 화장유언 10만서명운동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회장 박찬웅)가 서울시 시정참여 사업공모 대상사업중의 하나인 장묘문화개선사업에 입장선다.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는 1일 전국 16개 지회별로 '화장유언 남기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11월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역과 탑골공원, 봉은사 등지에서 화장유언 동참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박찬웅 회장은 "일반시민들에게 화장의 중요성과 이점을 알려 장묘문화의 새로운 틀을 형성하는데 불교계가 일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건축법개정 피해조사 조성준의원 석남사방문

새정치국민회의 연등회 상임부회장 조성준의원은 8월20일 새연등회 대표로 울산 석남사를 방문,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전통사찰의 피해실태를 확인하고 교계에서 추진중인 전사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조성준의원은 "문화적 환경적 차원에서 가지산 개발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회기에 전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관스님 석방촉구 고산스님, 청와대에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8월26일 청와대와 국민회의, 검찰청에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와함께 재가연대 평불협 실천불교승가회등 불교계와 사회 9개단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안경찰의 대대적인 혁신과 인적청산작업을 강력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불교계 제단체는 진관스님 석방대책위를 구성하고 사회단체와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관스님은 8월 2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원우 기자

"3300만원 뇌물아닌 보시금"

김태복소장 변호인단 공판서 증거제시

전 101여단장 김태복 소장이 인사청탁의 대가로 3300만원을 받았다는 군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군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공소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8월26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김태복 소장 관련 2심 2차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인사청탁의 대가로 김태복 소장에게 A 불자의 보시금 3300만원을 받도록 소개했다는 당시 B 중령은 진급과 보직에 전혀 이익을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인사평점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3300만원은 인사청탁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조건없이 익명으로 기부한 불사 보시금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변론했다. 변호인단은 또 "C 사업가가 건축허가 협의조건으로 김태복 소장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2천만원중 수표 2백만원에 대한 계좌추적이 실시돼야 한다"면서 계좌추적을 실시하면 김 소장의 무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현진스님(종교편향대책위원장) 등 '김태복소장 군법당 건립 시주금 뇌물작용 재판 범불교도 대책위' 관계자들이 공식방청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영축총림 해제 효력정지 판결

조계종 총무원 이의신청

조계종 중앙종회의 영축총림 해제 및 통도사 3개 말사 직영사찰 지정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강현안)는 8월 25일 월하스님이 제기한 '총림해제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영축총림 해제결의 및 관룡사, 해남사, 문수사의 직영사찰 지정은 영축총림 해제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은 26일 "신청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뉴스 & 뉴스

직능직 선출기준제정 요청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덕운)는 8월 23일 49차 회의를 열고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 기준을 제정할 것을 중앙종회에 요청키로 했다.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결의는 직능직 종회의원을 선출할때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법주사 범어사 등 종회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교구에 대해 조속한 보궐선거 시행을 촉구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불교여성교육원 실행팀 선임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8월 21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칭 불교여성교육원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실행팀을 선임했다. 실행팀은 이인자(경기대 교수), 한길수(우리는선우 이사), 임효정(경불련 대외협력부장), 박완순(생명나눔실천회 실장), 조최혜란(정신대연구소 편집장), 이미현(조계종출판사 편집장), 이미경(청소년불교교화연합회 인천지부 사무국장), 김인숙(금강정사 청년회), 박상희(조계종봉축위 간사), 김남선(교사)등.

포교원은 이 실행팀을 중심으로 (가)불교여성교육원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계획해 빠르면 연말쯤, 늦으면 내년 초 불교여성교육원을 정식 발족한다. 이은자 기자

경승단 소식지 '등불' 창간

대한불교경승단은 소식지인 〈등불〉 창간호를 15일 펴낸다. 30쪽 내외의 소책자로 발행될 이 소식지는 경찰불자의 불교교양과 소속감을 확대하고 경찰불교회의 활동연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승활동 및 포교 매체로서 역할하게 된다. △이달의 법문(전국 경승실장 순) △초대석-경찰 관계 명사들의 수필 △절을 찾아서 △불교절기 (불교 명절 및 절기별 신행안내) △슬기방(경찰의 생활단상) △청소년 엿보기(청소년 지도방법 안내) △불자생활 지침(포교연구실 사무국장 법성스님 연재) △기도의 시간(백팔배, 참선, 보시행 등 신행안내) △어울림마당(모범불자, 선행경찰 소개 및 경찰가족 소식) 등이 실린다.

김재경 기자

법타스님 공권정지 4년6월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월서)은 8월 27일 제18차 심판부를 열어 법타스님(은해사 주지)에 대해 공권정지 4년6월, 월파스님(전 통도사 주지) 문서견책, 혜인스님(제주 약천사 회주) 공권정지 1년6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해 조계종사태와 관련한 징계가 마무리됐다.

법타스님의 징계 확정으로 은해사는 1개월 이내에 산중총회를 열어 새 주지 후보를 선출, 총무원에 주지임명을 품신해야 한다.

정성운 기자

수 맥 탐 사

건강하고 복을 받으려면
수맥을 피해 잠을 자십시오.

아래의 경우에는 **수맥파에 의해 나타나는 피해 증상**입니다.

1. 장기간 수행으로 인하여 관절염, 근육통, 요통, 우울증, 탈진 상태로 심히 고생하시는 수행자.
2. 잠을 자고 나도 피로 회복이 안되고 몸이 무겁고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흉몽을 자주 꾼다)
3. 우울증이 생기며 대인 공포증이 생길 때.
4. 질병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 하여도 효과가 없을 때.
5. 노력해도 수업능률이 오르지 않고 주위가 산만해지며 정신집중을 못하고 쉬 피로를 느끼며 신경질 적인 학생에게.
6. 오십견, 관절염, 신경통, 편두통, 요통등 증세가 생길 때.

수맥을 정확하게 탐사하여
수맥 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수맥을 진단하여 수맥 파 차단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2. 수맥 파를 차단하고 중화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드립니다.
3. 수맥 파로 인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원기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금 강 수 맥 원
송파구 거여1동 135-67(201호)
(02)400-6190
017)332-5019, 011)711-6190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강의



설법방법 · 교수기법 · 실기훈련

說法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성격 좋고 화술이 능해야 합니다.
○이론과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격, 가치관의 체계확립
○자료의 재구성 능력확보
○설법, 강의, 강연, 화술, 사회, 회의진행
○음성, 태도, 수사(修辭) 원고작성, 상담기법등

■ 연 수 안 내 ■
▶ 기 간 : 2개월 과정
▶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수시접수
▶ 사후관리 : 정회원 대우(매달 1회 모임)
▶ 장 소 : 본연수원 강의실
▶ 지도교수 : 金 哲 會 박사

♣문의 및 신청♣
☎ 02)737-1567 / 725-1357
FAX (02)737-8725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오봉빌딩 별관 3층)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거든 하물며 정식을 가진 사람이겠는가?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다라니와 더불어
무농약 유기농 재배로 깨끗하고 약성이 뛰어 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법
차나 숭늉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점이 황토삼백초 만의
다른 점입니다.
손님 접대, 선물용으로 제격입니다.





참고서적 :
조규형 편저 [삼백초 건강법]
97.11.6 MBC-TV '고향은 지금'
98.9.24 KBS-TV '6시 내 고향'
99.7.10 SBS-TV '모닝 와이드' 등 방영
http://WWW.teafarm.com

SAM BU FARM
삼부농산
전통식품지정업체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3
0598-945-0075 ~ 7

대구BBS 제1회 신행일기 공모 대상작

신행담

장애를 화두삼아

삶의 가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있지 않아 장애를 인욕바라밀 실천기회로 삼아

화가 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때면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염송을 하니 놀라운 변화가 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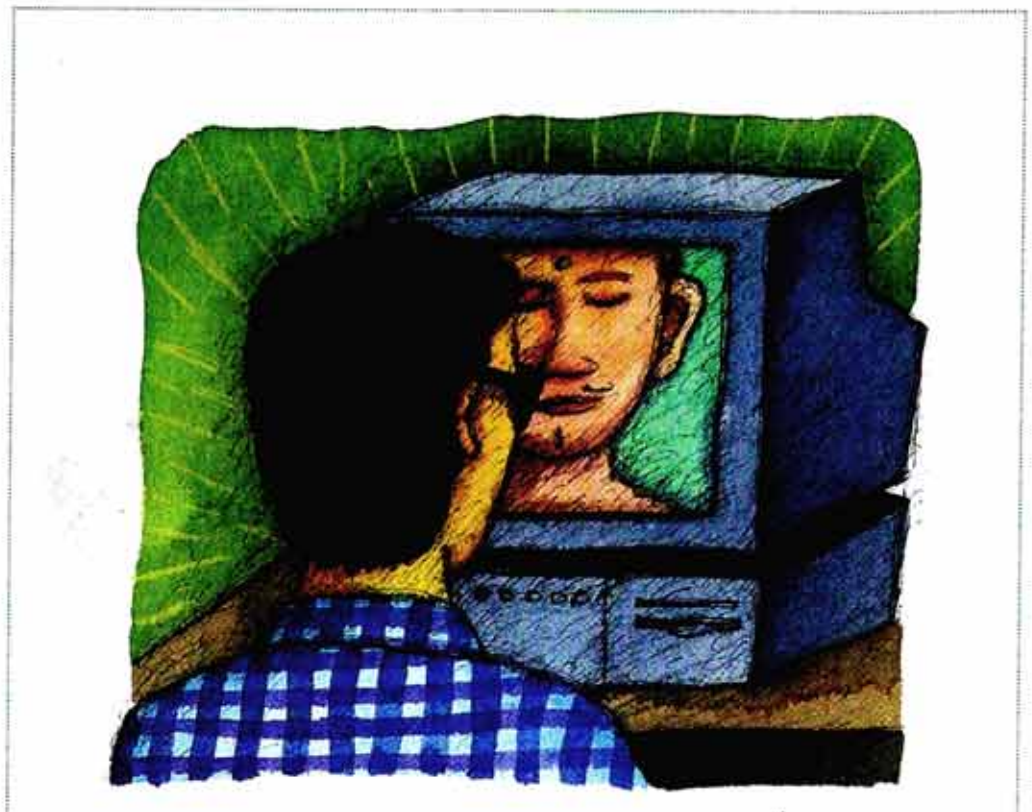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불법과 나는 어떤 인연일까?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이다.

대처승의 아들로 태어나 '까까머리 중놈 아들'이란 놀림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난 나는 불교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6남매를 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반항심이 깊어만 갔다.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불교를 무작정 싫어하며 부정하던 어느날 난 실명(失明)이란 엄청난 충격에 부딪치게 되었다. 맹아학교에 가기 전까지 나의 하루하루는 어두운 방안에서 꼼짝도 않고 실의에 빠져 살았다. 한 줄기 햇살조차 내 방안에 들어오기 힘들었던 그때 닫힌 방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 바로 아버지였다. 평상시 신도들에게 법담을 해주실 때 재미있어 귀동냥으로 듣던 법담을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내게 해 주셨다.

아버지는 내게 여러 선사들의 일화를 들려주셨다. 그리고 참선을 하라고 권하셨다. 참선을 통해 혜안이 트이면 모든 게 다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땐 그것이 아버지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간절한 음성이란 걸 몰랐다. 당시 무명과 좌절 속에 있던 내게 그런 말이 들려올 리 없었고 오히려 반항심으로 타종교 방송을 크게 틀어 놓기도 하고 타종교를 믿어 보려고도 했다.

그런데 종교란 것이 단순히 믿어야지 하고 마음먹는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좌절의 시간이 이어지던 중 어느 날 불교방송 개국 소식이 들렸다. 당시 난 서울에 살았기에 일찍이 불교 방송을 접할 수 있었는데 '석가모니의 생애'라는 드라마는 단순히 재미의 수준이 아니라 내 영혼을 새로 눈뜨게 한 프로그램이었다. 왕이라는 세속의 부귀영화를 다 저버리고 고행의 수도생활을 선택한, 한 인간의 절실하고도 진지한 삶과 가르침은 차라리 눈물겨운 감동이었다. 그리고 삶의 가치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자비의 실천에 의해 얻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후 '고승열전'을 통해 효봉 선사의 높깎이 고행,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했던 만공 선사의 일갈, 한암 스님의 고고하면서도 거룩한 법력은 나의 신앙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대학에 들어가 컴퓨터를 배웠고 음성 합성기에 의해 모니터링 되는 컴퓨터 덕분에 화면을 쳐다보는 대신 소리를 들어가며 내 서툰 타이핑 실력은 점차 속도를 높여 나갔고 컴퓨터 통신도 가능하게 되었다. 통신 생활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 동호회 활동을 통한 불교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 특히 경전이 거의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 점자로 옮기는 것이 아려운데다가 시각장애인 대다수가 개신교나 카톨릭을 신앙하고 있는 터라 점자 도서나 녹음 도서가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통신인들에 의해 제작된 불교관련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한글 경전이나 스님들의 설법 관련 자료는 내 공부에 박차를 가하는 고마운 계기였다.

나는 자랑할 만한 수행자는 못되어도 나름대로 참선과 석가모니불 염송을 해오고 있다. 석가모니불 염송은 시작한 지 넉달 정도됐다.

또 지금은 대학 전공을 살려 학교에서 3년째 교편을 잡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그 나름의 고충과 갈등은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그랬다. 그러나 요즘은 그것이 차츰 개선되어 가고 있다.

어느 책에선가 읽은 내용인데 싸움이 심한 부부에게 스님이 권한 방법으로 스님을 찾아 온 부인에게 무조건 남편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모시란 권유를 들은 아내가 그걸 실천하면서 변해 가는 자신의 상황들을 소개한 내용이었다. 이에 감동하여 나 자신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화가 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위의 방편을 응용하여 그들을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염송하는 습관을 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안 보인다는 걸 적당히 이용하여 나를 속이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에 대해 호의를 갖는 척하며 접근하여 필요한 만큼 이용하다가 저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부처님이라 염송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자기 기만 같아서 잘 안되었으나 최근에는 화가 나거나 살망스러운 상황에서 무조건 상대방을 부처님이라 믿고 "모자란 저 자신의 얇음을 잠시의 혼란으로 지적해 주시는 부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식으로 고마움의 염송을 되뇌이곤 한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속이는 수행인 듯도 싶었지만 하루 이틀을 거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이 길 위에 새겨진 부처님의 발길들이 그 얼마며, 이 대기 중에 흩어진 부처님의 숨결이 그 얼마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 내 주위가 축복감으로 밝아오고 미웠던 사람들도 나를 깨우쳐 주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혼란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니 그 싫기만 하던 사람들이 차츰 이해도 가고 고맙기도 한 것이다. 내가 아직 무경속에 헤매면서 억지로 믿어 이 정도이지 진정으로 그들의 참된 성품을 알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감격스러운 환희가 될까? 그리고 그냥 마음속으로 부처님이란 말만 새겨도 이렇게 가슴 뛰고 밝아지는 세상인데 나 자신이 불도를 닦아 남들을 돕는다면 그것만한 보시와 공덕이 또 있을까도 싶다.

평일은 평일대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나는 주말은 주말 나름대로 시간이 벅차다. 나와 미래를 약속한 여인과 더불어 대구, 경북 근교의 사찰을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용연사에서 두 사람의 미래를 약속하였고, 마음이 울적할 때는 은해사에 가서 108배를 드리며 자신들을 다스리고는 한다. 이와에도 파계사나 승림사도 가끔 들러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곤 한다. 약속의 장소로 부처님 도량만큼 확실한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없을 터이다. 부처님 전에 정성껏 절을 하고 일어나면 그렇게 홍만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유명 사찰은 물론 인도의 룸비니에서 시작하여 싯달타태자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보드가야, 초전법륜을 펼치신 바라나시를 비롯해 많은 활동을 보인 라자그리하, 입멸하신 쿠시나가라까지 부처님의 발자취를 좇아 약혼녀와 함께 여행을 하고픈 것이 내 작은 소망이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화두나 공안이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무'자 화두나 '이뭣고'일게다. 그러나 내게는 내 삶의 화두가 있다. 그것은 단지 지적인 것도 아니고 실천적인 성향만을 지닌 방편만도 아닌, 내가 처한 장애라고 하는 생생히 살아 있는 화두이다. 난 어딜 가나 이유도 없이 동정의 대상, 업신여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엔 그것이 정말 화나고 속상한 일 중의 하나였으나 이젠 그런 상황들을 보면, 단순한 가시적인 기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중생들을 오히려 내가 동정하고 안스러이 여긴다. 물론 '장애'란 것이 살아가는데 있어 그렇게 유쾌한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자는 '어디에서든 배울 수 있는 자'라 하였던가? 더하니 못하니 하는 분별의 개념으로 헤아린다면 '장애'라고 하는 화두는 내 삶을 곤두박질치게 하는 독설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닐 게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한 생각 돌려보면 이것 또한 내게 '인욕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며, 불평 속의 사람들에겐 나 자신이 열심히 살수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극제가 된다면 이것만한 마음의 보시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세상은 참 공평하다'는 말을 가끔씩 절감하는데, '장애'란 현실은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들이 많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부처님 도라는 큰 공부에 있어서는 참선이나 기도 등을 하는데 전혀 지장을 느끼지 않는다. 그나마 경전을 읽는 것이 애로 사항이었으나 앞에 소개한 바처럼 컴퓨터를 통해 어지간한 경전과 설법은 다 접할 수 있으므로 별 어려움은 없다. 그리고 세상 전체가 살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경전인데 그걸 볼 줄 모르는 내 하근기가 문제이지 무엇을 탓하랴. 순간 순간에 진리의 길을 걷고 나 자신을 확인한다면 이것만한 공부가 더 있을까? 디오게네스는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며 참된 진리를 찾았다고 한다. 우리 모두가 그런 정신으로 참된 길을 걸어 한소식을 하고 마침내 큰 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강시열(대구시 서구 중리동)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몰 부다피아 선정 상품 특선

참선명상방석
국내 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참선 · 명상 · 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정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여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크기 39×43(cm)
•가격:₩27,000

건강한 방옥베개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잠자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이 일어나는 것이 싸증스럽거나 피곤한 분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
많은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패턴을 하고 싶은 수험생 안성두를.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만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 분
•가격:₩30,000(1개) / ₩56,000(1세트)

싸이버 선덕대왕 신종
원형그대로의 자태와 사이버 사운드의 완벽한 증소리
에밀레종 소리를 전자 사운드 칩을 이용해 디지털화, 이 칩을 에밀레종 축소모형에 넣어 제작 종을 치거나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은은한 종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싸이버 에밀레종(동황)
재질: 합금
종류: 청록, 동록, 청동
규격: 좌대높이 30cm
좌대크기 15cm×15cm
종 5cm×11cm
가격: 143,000
■ 싸이버 에밀레종(주석)
재질: 주석
종류: 개금, 골동
규격: 종 17cm×12cm
가격: 200,000
■ 싸이버 에밀레종(나무사각)
재질: 합금
종류: 청록, 동록, 청동
규격: 좌대높이 26cm
종 5cm×11cm
가격: 143,000

창포로 만든 수행자 그릇 발우
발우는 스님들이 항상 지녀야 할 도구의 하나로 압그릇을 말한다. 원어는 발다라(鉢多羅-patra)인데 적고나 색깔, 양은 규정된 법에 따라야 하므로 '양에 맞는 그릇(應量器)'이라 해석한다. (율장)에서 본래 규정은 나무로 만든 발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철발(鐵鉢)이나 와발(瓦鉢)을 사용하게 하였다. 본 제품은 태안사 들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와칠우(瓦鉢漆)이다
•와칠우(4합) - 가 격 60,000원 무게 2.7Kg
•와칠우(2합) - 가 격 30,000원 무게 1 Kg
(그밖은 제기 불자를 위한 일우 있습니다)

경상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선동을 떠올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오시 큰 아파리 불자들의 일상생활공간을 위하게 만들어 봅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선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크기 : 가로720×세로340 ×높이320(단위/mm)
■ 재질 : 느릅나무
■ 가격 : ₩85,000

바위속에 숨은 부처 VIDEO 테잎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민음의 대상인 부처님상을 많이 조성하였고, 이름있고 성스러운 신, 특히, 경주 남산은 불보살이 여들러 있는 신령스런 영산으로 믿어 수없이 많은 마애불과 석불 석탑이 조성되었다. 국보급 유물과 지방유형문화재 등 빼어난 유물들이 불국정토 화엄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려던 선인의 혼이 서린 생역임을 실감케 한다
(제작) 대청프로덕션
문화관광부 등록 제1호/구성 감독-황기태
상영시간 : 바위속에 숨은 부처 - 40분
반야용선 - 30분
•가격:₩13,000

달마도 순금판 액자
달마도의 대가 해원 윤중우 선생의 그림을 순금카드(99.9%) 위에서 느껴보세요
개인소지 벽걸이용, 선물용으로 최상의 제품입니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액자 크기 27cm X 33cm
순금판크기 10cm X 15cm
실용신안등록 No 24266 호
•가격:₩120,000

Maha Mall 쇼핑몰 주문방법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